



2

1994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4. 2호

(루게 556)



◆◆◆◆◆◆◆◆◆◆ 차 례 ◆◆◆◆◆◆◆◆◆◆

사회주의농촌테제의 빛발아래 찬란히 꽃피는 농촌현실을 더욱 격조높이 노래하자	4
2 월을 노래한다.....	6
새 벽	7
나의 운명을 두고.....	18
사랑에 대한 생각.....	18
신념과 의지의 찬가	19
당신만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	20
로병에게 경례를!.....	20
불멸의 탑앞에서	21
민족과 인류의 운명에 대한 끝없는 신심과 략관.....	21
편 지	22
《그래, 찾았단말이지》	27
서창벌에 쓴 편지	29
민 음	31
자나깨나 마음속에 모시고 사네	31
인생과 운명	32
어느 비오는 날 저녁에	35
인민의 념원을 담아	36
명 언	38

태풍을 길들이다	39
최대의 경사	41
뵈고싶어라	41
주체의 면모를 확고히 갖춘 우리 식 문학	42
영생하는 사랑의 품	47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적극 이바지하는것은 우리 문학의 기본사명	48
사열을 받으시라	52
위대한 그날이 있어... ..	53
항일유격대식배낭을 지고	55
위대한 인간의 품모에 대한 전인민적인 매혹	58
조국의 첫밤	61
2 월의 대동강반에서	62
명제해설	63
밭머리의 새벽	64
정든 땅	71

사회주의농촌테제의 빛발아래 찬란히 꽃피는 농촌현실을 더욱 격조높이 노래하자

오늘 우리 작가들은 전체 인민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발표 3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농민들을 공산주의사회까지 이끌고가는것은 공산주의자들과 로동계급의 숭고한 임무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밝혀진 사회주의농촌건설대강이며 농촌문제해결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력사상 처음으로 전면적인 해명을 준 고전적문헌이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30년간 우리 인민과 농업근로자들이 걸어온 자랑스런 투쟁로정은 위대한 농촌테제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하였다.

사회주의농촌테제가 밝혀준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커다란 승리가 이룩되었으며 우리 나라 농촌의 변모는 근본적으로 일신되었다. 이 변모된 농촌현실은 우리 작가들에게 참으로 귀중한 종자들을 수없이 제공하여주고있으며 끝없는 창작적열정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농촌에서 일어난 세기적변혁과 전변들을 격조높이 노래함으로써 사회주의농촌테제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예술적으로 힘있게 확증하여야 한다.

전변된 땅,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현실을 구가하는것은 우리 문학이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가 이룩한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이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에 이바지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위대한 농촌테제를 내놓으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여 이 땅우에 우리 식의 우월한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마련하여주시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참으로 빛나는 업적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이 높은 단계으로 심화발전하는 현실적요구와 구체적실정에 맞게 농촌테제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전당, 전국, 전민을 불러일으키시였으며 우수한 당핵심들과 청년들을 농촌에 파견하여 사상, 기술, 문화

의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시였다.

당과 수령이 이룩한 이 불멸의 업적을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힘차게 노래하는것은 당과 수령의 위업에 언제나 충실하여온 우리 작가들의 가장 신성한 의무이다.

위대한 농촌테제의 사상이 구현된 우리 나라의 농촌현실을 열렬히 긍정하고 힘있게 노래하는것은 우리 문학이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전을 짓부시고 피로써 쟁취하고 발전시켜온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정당성과 우월성, 그 불패의 생활력을 예술적으로 훌륭히 확증할수 있는 방도로 된다.

우리 작가들은 농촌테제가 밝혀준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온 우리 나라 농촌건설의 자랑스런 력사를 예술적으로 빛나게 형상함으로써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신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에서 살며 일하는 우리 인민보다 영광스럽고 행복한 인민은 이 세상에 없다는것을 깊이있게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사회주의농촌현실주제작품창작에서 이미 귀중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중편소설들인 **《세대》**, **《향토》**를 비롯하여 영화문학 **《도시처녀 시집와요》**, 텔레비전극 **《종달새》**, 단편소설들인 **《사랑》**, **《가을》** 등은 우리 나라 농촌의 현실을 예술적으로 다양하게 반영함으로써 인민들의 사랑을 받고있으며 그들을 농촌테제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사회주의농촌현실주제작품창작에서 얻은 경험과 성과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면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이 주제분야에 계속 깊은 창작적관심을 돌려야 하며 작품의 사상에예술적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탐구에 탐구를 거듭하여야 한다.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사회주의농촌테제에 관통되어있는 중심사상이다.

우리 작가들은 무엇보다도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힘있게 추진되어 사람도 자연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되어가는 오늘의 새로운 농촌현실에 깊은 창작적안목을 돌려야 한다.

여기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사상비학적과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불길속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새형의 인간, 주체형의 참다운 혁명가의 전형을 훌륭히 창조하는것이다.

오늘의 우리 농촌 주인공들은 장편소설 **《땅》**의

파바위, 《석개울의 새봄》의 창혁이와는 비할바 없이 높은 사상의식수준과 기술문화수준에 오르고 있으며 그들의 사고방식과 일본새에서도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사회주의농촌의 새 주인으로 등장한 이들의 생동한 성격을 깊이있게 추구하면서 우리 작가들이 그들의 가슴속깊이에 간직한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혁명적수령관을 핵으로 하는 혁명적인 생관을 보여주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우리 작가들은 농촌주인공들의 투철한 계급의식과 고상한 집단주의정신을 깊이있게 그림으로써 계급교양, 공산주의교양의 무기로서의 우리 문학의 사명을 다해나가야 한다.

우리의 사회주의농촌현실이 배출한 새형의 인간 성격창조에서 나서는 문제는 또한 그들의 높은 기술문화수준을 잘 보여주는것이다.

우리 문학이 사회주의농촌의 주인공들을 높은 기술의 소유자로 그리는것은 기계화의 동음소리 높이 울리는 우리 나라의 새로운 농촌현실을 진실하게 그리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우리 작가들은 높은 현대적기계수단과 설비로 자연을 변혁하고 개조하며 풍년을 노래하는 우리 농촌의 주인공들을 생동하게 창조함으로써 농촌기술혁명의 생활력을 예술적으로 힘있게 확증하여야 한다.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낳은 우리 농촌의 새로운 주인공들의 성격을 그리는데서 3대혁명소조원들의 형상창조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농촌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술수들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사상적으로, 기술문화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3대혁명소조원들을 농촌에 파견하도록 하시고 그들의 사업을 세심히 보살펴주시으로써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그들의 선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교계신다.

우리 작가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투쟁에서 그들이 발휘하고있는 높은 충성심과 아름다운 소행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보여주어야한다.

농촌테제의 생활력을 보여주는 작품창작에서 우리 작가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웅대한 사회주의농촌건설구상을 충성으로 높이 받들고 농촌으로 집단진출하여 여기에 뿌리를 내리며 새 생활을 창조해나가는 제대군인들과 새 세대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적이 깃든 자기 고향을 충성으로 가꾸고 꽃피우기 위하여 정든 수도를 떠나는 우리 시대 새 인간들의 성격을 깊이있게 창조하기 위하여 웅대한 주목을 돌리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

우리 작가들은 당과 수령의 품에서 자란 이들의 성격적미를 높은 경지에서 훌륭히 보여줌으로써 온 사회에 이러한 공산주의적미가 차넘치게 하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이 아름다운 인간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농촌테제의 위대한 생활력을 예술적으로 구현하는데서 그 주제분야를 확대하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우리 작가들은 사회주의농촌현실의 다양한 내용을 다면적으로 추구하면서 그 생활이 안고있는 서로 다른 인간문제를 탐구하는데 창작적관심을 집중하여야 한다.

농촌의 새 세대 청년들의 생활과 그들의 리상과 포부에 대한 문제, 자기가 나서 자란 향토를 사랑하는 문제, 농촌생활과 도시생활의 차이소멸에 관한 문제, 농민들속에서 싹트고 꽃피는 집단주의정신과 공동경리의 우월성문제, 전변되는 농촌현실에 비끼는 혁명적량만성문제 등 사회주의농촌현실이 제기하는 이 모든 문제들을 당정책적견지에서 포착하고 그에 대한 예술적해답을 주어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이 다양한 주제분야를 새롭게 개척하면서 온갖 도식과 류형을 극복하여야 하며 농촌의 산 현실을 그대로 진실하게 재현하는 진지한 창작적립장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

작가들의 현실체험, 농촌현실로의 깊은 침투는 우리 사회주의농촌현실이 제공하는 다양한 주제와 생활을 진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필수적조건이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농촌테제의 사상이 힘있게 구현되고있는 농촌현실에 깊이 들어가야 하며 그 새롭고 다양한 생활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합법칙적인 새로운 싹들을 보고 그것을 적극 옹호하고 힘있게 긍정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사회주의농촌주제의 모든 작품들에 농촌테제의 사상이 내려치고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생활이 차고넘치는 기름진 화폭으로 사람들의 가슴에 뜨겁게 안겨오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농촌테제는 참으로 우리의 사회주의농촌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는 휘황한 등대이며 우리 문학발전의 새로운 전망을 열어주는 고무적기치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위대한 농촌테제의 사상을 심장에 새기고 그것을 구현하는 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농촌건설의 그 찬란한 리상이 훌륭히 실현될것이며 우리 문학은 또하나의 위대한 현실을 노래하는 문학으로 그 위력을 더욱 힘있게 과시하게 될것이다.

우리 작가들은 시대와 혁명이 제기하는 이 절박하고 영예로운 과제를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연자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

2 월을 노래한다

김만영

봄날의 뜨거운 숨결이
소리없이 흐릅니다
봄날의 첫 향기가
그윽히 풍겨 흐릅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김정일 동지이시여
뜻깊은 탄생일에
축하를 드립니다

2월로 하여 복받은 사람들이
2월로 하여 빛나는 강산이
이 땅에 굽이친 영광의 낮과 밤들에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구상에서 사회주의를 영영 없애려
날이 갈수록 악랄해지는 제국주의자들
그 발광으로부터 우리 세상을 지켜가시기에
따르며 우러르는
우리의 인사는 더욱 뜨겁습니다

태어나신 그때부터
총포성이 울리는 백두의 준령을
다 넘으셔야 했고
홀웃을 입으시고 찬바람부는 싸움터를
다 밟으셔야 했던분

생각하면
지도자동지께서 맞고 보내신 날과 달과 해들은
인민의 세월을 지키셔야 하는
그처럼 무겁고도 중한 일
누구도 대신 못할 그런 위업이었습니다

혁명의 최전연에 나오시여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바꾸시며
사회주의 항로를 개척해가시는
사회주의의 위대한 타수이시여!

그 어떤 제국주의자들과 혁명의 배신자들이
그 어떤 위협과 공갈과 회유로도

인민을 지키시고
진리를 지키시고
사회주의를 고수하시려는
그 의지를 꺾을수는 없었습니다
그 신념을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오, 그것으로 하여 그것으로 하여
불멸의 그 이름은 승리입니다
위대한 그 기치는 진리입니다
빛나는 그 위업은 인류의 리상입니다

세상없는 덕을 입으며
세상없는 믿음을 받으며 살아온 우리
우리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
한생을 바쳐오시는 그 숭고한 위업을
우리 어찌 한줄기 빛인들
호리게 할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세상엔 폭풍이 불어칩니다
지금도 주위엔 격랑이 일어번칩니다
하나 **김정일** 동지께서 계시여
우리의 봄은 따스하고
우리의 미래는 신심에 넘칩니다

하여 2월은
우리의 맹세가 더욱더 불타는 2월
우리의 신념의 선서가
하늘땅에 메아리치는 2월

이 선서
이 맹세
이 신념으로
뜻깊은 탄생일에
축하를 드립니다

아, 우리의 운명이며 조국의 운명인
위대한 **김정일** 동지이시여
그 품 떠나 살수 없는 인민과 더불어
누리에 빛나는 사회주의와 더불어
천년만년 부디부디
만수무강하시라

새 벽

최성진

목중해보이는 쏘파들이 벽가를 따라 주련이 들어 앉은 넓은 대기실안은 조용했다. 굴뚝 바탕에 붉은 무늬가 새겨진 주단이며 방한가운데 놓여있는 무화과나무 화분이며 정교하게 세공한 천정의 무리등에서 흘러내리는 부드러운 빛조차도 방안의 숙연한 분위기를 돋구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인듯이 한성민에게는 생각되었다.

당중앙위원회의 중요직책에서 사업하는 한성민은 방금전에 여기로 왔다. 그는 전국, 전민, 전군이 준전시상태로 넘어갈데 대한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의 명령이 하달되기전까지도 사업보고를 드리거나 새 과업을 받기 위해 친애하는 그이를 거의 매일과 같이 찾아뵈곤했다. 친애하는 그이께서 계시는 곳이라면 의례히 느끼게 되는 숭엄함과 사업의욕을 더해주는 전투적인 분위기... 그것들은 당중앙위원회에서 오래동안 사업해오는 한성민에게 있어서 이미 몸에 밴 것이었다. 채광이 좋은 넓은 복도, 부드럽고 향기로운 공기가 흐르는 그곳으로는 대체로 면식이 있는 당중앙위원회일군들과 중앙의 행정 및 경제부문 일군들, 지방당조직의 책임적인 일군들이 문건철들을 들고 바빠 오가곤했었다.

그런데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부르심을 받고 한성민이 오늘날 여기로 들어서면서 느낀것은 여느때의 그것과는 좀 다른 것이었다. 그것은 한성민이 홍안의 청년이었던 지난 전쟁때 최고사령부 호위병들속에서 하루밤 묵으면서 느끼었던 천막냄새 비슷한 것이었다.

하지만 여기는 50년도의 그 늦가을 선기를 막아주던 야전천막이 아니었다. 자동팽온풍기가 소리없이 돌아가며 인간유기체에 가장 적중한 온도를 자동적으로 조절해주고 방안의 구조며 지어 색조화에 이르기까지도 인간의 편리에 복종시켜 설계된 현대건축예술의 산아이다. 천막냄새 비슷한 류다른 느낌은 무엇때문인가?

한성민은 그것이 다름아닌 대기실안에 팽팽하게 서린 긴장감과 함께 군인들이 류달리 눈에 많이 띄우는 데서 비롯된 감정이라고 생각했다. 방안에는 여러명의 장령들과 고급관들이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다. 사민은 두명이 있었는데 그들마저도 한사람은 민방위사업을 맡아보는 일군이었고 다른 한사람은 철도부의 책임일군이였다.

기실 여기는 지금 우리 혁명의 운명이 걸려있는 곳이었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신후 이곳을 뜨지 못하시고 군사사업을 비롯한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령도하시는 것이었

다. 대기권을 날아오는 무수한 전파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국제국내적인 군사정치정세가 여기에서 분석되고 새로운 전략과 방침들이 사색되며 결정되는 것이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최고사령부의 통신대는 극히 중요한 의미를 띠는 명령서들을 전송하고 있을 것이었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부르심을 받고 들어갔던 과학원의 유명한 물리학계통 박사들과 **김일성** 종합대학의 교수, 박사들로 구성된 학자집단이 나왔다. 그들이 소리없이 실내를 빠져나가자 장령들이 들어가고 이어 철도부 일군이 들어갔다.

대기실이 텅 비다싶이했을 때 한성민은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새벽이 가까와오고있었다. 그는 이제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뵈옵게 되면 자신의 마음속에 깃든 많은 생각들을 어쩔수 없이 솔직하게 털어놓게 되리라는 생각을 하며 어쩐지 자꾸 생소하게만 느껴지는 대기실안을 다시금 새삼스러운 눈길로 둘러보았다. 그러자 친애하는 그이의 부르심을 받고 여기로 오면서 달아올랐던 흥분은 가라앉고 팽팽하게 사고하기 시작했다. 사실 한성민은 적들의 대규모적인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이 진행되면서부터 밤낮이 따로 없는 분명한 나날을 보내면서 수많은 사업들을 진행했었다. 전국의 강연망들에 적들의 무모한 대규모군사연습의 목적을 폭로하는 새로운 강연을 포치하는 문제, 군민관계에서 발휘되는 긍정자료들을 전국에 일반화하는 문제, 혁명의 3세, 4세들에 대한 교양문제... 하지만 국방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들이 주관되고있는 여기에 들어와서 긴장한 공기의 밀도를 온몸으로 느끼면서부터 이 며칠사이에 준전시상태 선포와 함께 얼마나 많은 변화가 눈에 띄게 일어났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 변화가 일어났다! 나라의 어디에 가나 방공호를 파는 가정들을 볼수 있고 밤이면 반향공연습으로 차광막이 내리워지곤한다. 하면서도 그 《전쟁》을 두려워하는 기색은 누구의 얼굴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조선이란 거대한 기관차는 미증유의 힘으로 대지를 구르며 여전히 자기의 궤도를 따라 기운차게 달려가는 것이었다.

이 거대한 기관차를 몰아가시는 분이 바로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세계정치무대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예지의 눈길로 관망하시며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책동이 어느때보다 악랄해지는 속에서도 사회주의의 기치를 고수하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었다. 바로 이밤도 친애하는 그이께서 우리

혁명앞에 조성된 엄중한 난국을 타개하시기 위하여 새벽이 다 되도록 정력이 넘치시여 일하신다고 생각하니 한성민은 가슴이 찢어헤왔다.

한성민은 이달에 들어와서 국제국내정세를 급변시킨 사건들을 생각했다.

적들은 국제원자력기구안의 일부 불순한 사람들을 내세워 우리 공화국이 도저히 접수할수 없는 두개의 군사대상에 대한 핵사찰문제를 새로 들고나왔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우리에게 대하여 순조롭게 진행되던 핵사찰은 갑자기 복잡하게 되었다. 그전까지의 핵사찰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과 협조에 의하여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스스로 말해오던 기구안의 일부 성원들이 어떻게 되어 갑작스레 《핵의혹》설을 퍼뜨리며 핵활동과는 사실상 아무런 련관도 없는 군사대상에 대한 사찰문제를 들고나오는것인가? 여기에는 분명 우리 공화국을 해치려는 어느 대국의 부당한 압력이 작용한것이였다. 우리의 군사대상에 대한 《핵의혹》설을 주장하는 국제원자력기구안의 일부 사람들도 그것이 어느 일국의 정보자료에 기초한것이라는것을 숨기지 않고있다.

공화국에 대한 도전은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 나라가 두개의 대상에 대한 사찰을 단호히 거부하자 오는 3월 25일까지 한달이라는 기간에 《특별사찰》을 받지 않는 경우 유엔안보리사회에 제기하겠다고 위협해나섰다. 그들은 국제적 정의의 편에 서야 할 유엔의 신성한 이름을 빌어 이른바 《강제사찰》이라는 힘의 방법을 적용하겠다는것이였다. 국제원자력기구 2월관리리사회회의의 이 부당한 결정은 그것이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핵전쟁연습이며 핵예비전쟁인 미제와 남조선피뢰들의 대규모적인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과 병행한것으로 하여 한층 더 로골적인 도전기를 띠는것이였다.

적들의 군사연습이 실동단계라는 절정을 향해 치달아오르는 속에 우리 공화국에 대한 《최후통첩》을 한것이나 다름없는 《3월 25일》이 다가오고있었다. 공화국은 이미 자기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부당한 《특별사찰》결의를 배격한다는것을 엄숙히 성명하였다. 하다면 이 나라의 하늘과 땅, 바다를 메우며 밀려드는 검은구름은 이제 무엇을 배태할것인가? 우리 민족과 인류의 머리우에 참혹한 재난을 들썩을 핵전쟁은 일어나고야말것인가? 다가오는 그것은 인간이 바라지 않지만 인간의 사유와 의지로는 어쩔수 없는것인가?

어느날 한성민은 한 외국인기사를 만났다. 서방의 보도계에 그 이름이 잘 알려져있는 기사는 오래전부터 우리 나라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가지고있는 사람이였다. 그는 자기 나라 출판물에 우리 공화국의 면모를 소개하는 글을 여러건 써냈는데 편견을 두지 않은 기사들이였다.

기자는 한성민을 만난 석상에서 우리 나라의 핵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하였다. 《귀국이 핵문제에 있어서 정말로 청백하다면 문제로 되고있는 두개의 대상에 대한 사찰을 받으면 그만이 아니겠는가.》하는것이였다. 기자가 말하는 진의를 한성민은 어렵지 않게 간파할수 있었다. 즉 당신네 나라는 대국과의 대결을 피하는것이 상책이다. 그러다가 대국의 군사적간섭을 당하는 날에는 공화국의 존재자체를 지켜낼수 없지 않겠는가 하는것이였다. 외교적 어투가 다분할망정 공화국의 운명을 우려하는 말이였다. 하지만 한성민은 그 순간 격해지는 감정을 억제하기 힘들었다. 그것이 단순히 두개의 군사대상에 한한 문제가 아니라는것을 이 기자가 이해 못한단말인가! 그가 사태의 본질을 이 나라의 주인인 우리들보다 더 정확히는 리해를 못한다고 해도 지각이 있다는 기자가 아닌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미 우리 일군들에게 두개의 군사대상에 대한 《특별사찰》을 허용할수 없다는데 대하여 명백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우리가 오늘 두개의 군사대상을 열어보인다면 래일에는 그들이 또 다른 대상을 보여달라고 뻔뻔스럽게 요구해나설것이다. 대국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여 내린 기구의 결정자체가 주권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이며 국제적정의에 대한 란폭한 도전이다. 공화국은 그 누가 자기의 존엄을 유린하는데 대하여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그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그런데 그 외국기자라는 사람은 사태의 진상이 어떻든지간에 힘앞에서는 심사숙고해야 한다는것을 력설하지 않는가. 강도가 일단 칼을 꺼내들면 주인은 그가 요구하는것을 내주고서라도 살고봐야 한다는 론리였다.

한성민은 온종일 그 기자의 말이 귀전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정의와 평화의 대변자가 되여야 할 기자까지 그런 말을 할만큼 사태가 점점 험악해지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력사는 정말로 어떤 사변을 창출하려는가. 이제 이 땅에 다시 전쟁이 터지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누구에게나 명백한것이였다. 그것은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자들간의 최후결사전으로 될것이다. 력사가 이미 기록한 두차례의 세계대전과는 다른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기치를 들고 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을 단숨에 집어삼키려고 공격해오고있다. 공화국과 인류의 평화가 경각에 다달은 이 시각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무엇을 생각하고계시는것인가?

바로 그무렵에 전국, 전민, 전군이 준전시상태로 넘어갈데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이 하달되였다. 중대보도를 알리는 방송원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온 나라를 격동의 회오리속에 몰아넣었다. 사람들은 력사적인 명령의 구절구절을 크나큰 흥분

속에 음미했다. 최고사령관 명령은 적들이 벌리는 사상류례없는 대규모의 도발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대하시는 친애하는 그분의 결심과 철의 의지를 말해주듯 강경한 표현으로 일관되어있으면서도 우리 당과 조국앞에 드리운 위협의 양상을 절감하게 하는 것이었다.

김정일 동지의 명령은 비상한 힘으로 순식간에 사람들을 분발시켰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운명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수도 있는 사변적인 그 무엇이 눈앞에 실제로 다가오고있음을 의식하며 거기에 대처할 마음속각오를 굳히었다. 세계의 통신과 방송이 친애하는 그분의 명령을 다루어 전하고 공화국을 힘으로 위협해나선 적들이 된매에 걸려들어 당황망조해하는 속에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서는 침략자들을 용서치 않으려는 결사항전의 구호가 높아갔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두리에 하나로 뭉친 인민의 불가사의한 힘의 분출을 목격하는 한성민은 심장이 견잡을수 없이 높뛰었다. 그 어떤 원썬놈들이 이런 인민을 굴복시킬수 있단말인가!

하지만 우리 민족앞에 드리운 위협이 결코 가시여진것은 아니었다.

바로 두시간전에 한성민은 새로운 군사정세자료를 접하였다. 인쇄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은 16절지의 얇은 통보문은 이미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의 실행단계에 들어간후 더욱 심상치 않게 번져가는 적들의 위험한 군사적움직임상태를 보여주고있었다. 이미 웅근 한차례의 전쟁을 치를수 있는 20여만의 침략군과 100만톤의 작전장비들이 조선반도의 남단으로 끌어들여와 상륙작전과 타격훈련을 벌리는 것과 때를 같이 하여 태평양상의 여러 기지들에 있는 침략군놈들과 최신예의 군사장비들이 기동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것들이 노리는 목표가 어디인가는 볼을 보듯 뻔한 것이었다. 이걸 우리 공화국에 대한 공공연한 위협이다. 아니 단순한 위협이 아니다! 전쟁의 불집을 터뜨려서라도 우리 공화국을 먹여보자는 것이다. 통보문의 한구절 한구절이 담고있는 엄청난 의미를 헤아려보던 한성민은 심각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문득 우리 공화국의 운명을 우려하던 외국기자의 말이 생각났다. 강도가 칼을 뽑아들면 주인은 자존심을 팔아서라도 살고봐야 한다고? 아니다. 그것은 서방식의 이른바 《현실주의적인 사고》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논리이다. 강도가 칼을 뽑아들었다고 하여 굶어들 우리 인민이 아니다.

한성민은 조국과 민족의 생사운명을 건 판가리싸움의 시각이 드디어 왔다는것을 의식했다. 그는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생각했다. 그이께서 이밤 심중이 얼마나 복잡하시랴. 사색은 얼마나 많으셔야 하며 일감은 또 얼마나 아름답치시랴. 한성민은 마음이 무거웠다.

바로 이때 전화종소리가 방안을 가볍게 울리었다.

예리하면서도 아름다운 음악처럼 부드러운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한성민의 머리속에 예감의 불꽃을 튀겨놓았다. 한성민은 습관된 동작으로 재빨리 옷매무시를 바로잡으며 정중히 송수화기를 들었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귀에 익은 다정하신 음성이 수화구로 흘러나왔다. 그이께서는 인사의 말씀을 올리는 한성민의 웅골은 바스의 목소리를 알아들으시고 무척 반가와하시였다. 그사이에 일이 잘되어가는가고 그이께서는 물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방금전까지만 하여도 엄혹한 정세로 하여 무거운 생각에 잠겨있던 한성민이어서 어안이 뱅뱅해졌다. 친애하는 그이의 어조가 너무나도 잔잔했기때문이었다. 한성민은 인차 자신을 다잡았다. 《사업은 잘되어갑니다. 저희들이 아직 일을 쓰게 못하여 모든 일이 원만하게 진행된다고는 볼수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크게 걸리는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며칠째 군사사업때문에 좀바쁘게 보내다나니 동무들한테 부담이 많을것입니다. 더우기 준전시상태가 선포된후 당사업무부문에서도 여러가지 문제들이 제기될것입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앞으로 예견되는 국가적인 중요한 대회들과 회의들을 잘 준비할데 대한 문제, 4월의 봄축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오게 될 세계여러나라 예술단들의 숙소문제, 새로 완공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될수 있는 실무적인 문제들 등을 화제에 올리시였다.

그이께서는 문의도 하시고 때로는 가벼운 나무람도 하시면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러시다가는 생활의 다반사어로 가지를 쳐나가시기도 했다.

한성민은 자기도 모르는사이에 조금전의 무겁던 생각을 말짱 잊어버렸다. 폐사로운 날과도 같이 쾌활한 그분의 음성을 오래도록 듣고싶은 은근한 기대로 가슴이 설레었다.

그것은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늘 가까이 모시고 일해오는 한성민에게 있어서 확실히 류다른 감정이였다. 그런가운데 한성민은 불쑥 손주녀석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군대에 나간 손주녀석이 땅크병 교도기간을 마치고 부대로 배치받아 가는 길에 어제저녁 집에 들렀다 갔습니다라고 말씀 올리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거참 반가웠겠다고 하시면서 그래 손주를 섭섭치 않게 해주어 보냈는가고 물으시였다. 손주가 왔으면 나한테도 좀 알려야지 그렇게 슬쩍 떠내보내는 법이 어데 있느냐고 진정을 담아 나무람도 하시였다.

한성민은 불시에 눈굽이 후터워왔다. 군복을 입은 손주녀석의 까맣게 탄 얼굴이 떠올랐다. 군인이라고는 하지만 웅석반이시절의 애된 목소리만은 별로 달라지지 않은 애송이였다.

그녀석이 이 사실을 알면 인제는 군인인데 군인

이 명령을 받았으면 한시바삐 부대에 가달아야지 집에는 뭣하러 들렸는가고 쫓아버리다싶이한 이 할아버지를 얼마나 원망할까! 한성민은 그런생각에 가슴이 찢어졌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왜서인지 잠시 침묵하시다가 갑자기 《가만- 어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군!》하고 혼자소리로 말씀하시었다. 다시금 동안을 두었다가 수화구로 그이의 음성이 울려나왔다.

《오늘밤엔 잠을 자볼것 같지 못하구만! 이렇게 합니다. 이제 곧 나한테로 오시오.》

한성민은 그제야 친애하는 그이앞에 자신이 주책없는 말씀을 장황히 올리었다는것을 깨닫고 얼굴이 화끈거리었다. 손주이야기를 꺼내놓다니! 당치않게도 가정의 세말사를 말씀올리다니! 그이앞에서! 지금이 어느때인가. 우리 혁명이 준엄한 난국을 헤쳐가야 할 때가 아닌가. 지금이야말로 한초한초가 그대로 우리 민족의 운명과 직결되어있는 그분의 귀중한 시간을 누구도 감히 침범해서는 안되는 때가 아닌가! 이밤은 잠들것 같지못하다고 하시던 친애하는 그분의 말씀이 다시금 귀전을 울리었다. 그이께서 무슨 일로 부르시는것인가? 조성된 엄혹한 사태와 관련하여 어떤 중한일감을 맡기시려는것인가? ...

그리하여 한성민은 자정도 넘은 밤에 여기로 달려온것이였다.

×

한시간전에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중요한 작전회의를 지도하시었다. 나라의 군사원로들이 참가한 이 회의에서는 급변하는 정황에 대처하기 위한 군사적대책안들이 토의되였다. 적들의 전쟁도발에 즉시적인 반격으로 대처하기 위한 작전안들이 결정되고 인민군대 각 군종, 병종 부대들에 하달한 명령서들이 작성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작전회의가 끝난 다음에도 많은 일감들을 처리하시었다. 집무탁우에는 그사이에도 문건들과 자료들이 더미로 쌓여졌다. 외교사업과 관련한 문건들, 군사정치정세와 관련된 새로운 자료들, 중앙과 지방의 당 및 행정단위들에서 올라온 보고서들과 문건들, 대책안들... 분과 초를 다루며 그이의 결론을 기다리는것들 이였다. 그이의 무변의 사색을 요구하는 그것들은 한시간이라도 결론이 늦어지는 경우 당과 국가의 운명에 중대한 후과를 가져올수도 있는것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문건들을 검토하시는 한편 몸소 사람들을 만나주시었다. 핵물리학계통의 권위있는 학자들과 일군들을 만나시여서는 적들이 벌리는 핵소동의 진상을 만천하에 폭로하기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민간무력의 동원준비문제, 수도방위에 인입된 반항공부대들의 전투준비문제, 탄약과 포탄을 비롯한 전략물자들의 수송 및 보급문제 등 조국방위와 관

련한 대책안들을 직접 료해하시고 가르치심을 주기 위하여 인민군대안의 지휘장령들과 해당 부문의 일군들을 만나주시었다.

한성민이 여기에 들어섰을 때에는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전화로 누군가를 호출하신듯했다. 그이께서는 송수화기를 드신채 탁상우에 펼쳐져있는 당보를 들여다보시다가 문가에 나타난 한성민을 보시자 반색의 표정을 지으며 가까이 오라고 이르시었다.

한성민은 정중히 인사를 올리고나서 약간 주춤거리며 그이곁으로 다가갔다.

《요즘 날씨가 산산한데 건강에는 별일 없습니까?》 그이께서는 로년기에 들어선 한성민의 건강이 넘려되시는듯 그의 낫색을 살펴보시었다. 한성민은 어정쩡한 기분에 잠겨들었다. 소탈하시고 정력에 넘치신 그이의 모습 어디에서도 정세의 준엄함에서 오는 무거운 기색이란 전혀 찾아볼수 없었다. 다만 겹쌓이는 일감과 수면부족이라고 생각되는 피로의 흔적이 그이의 안색에 나타나군했는데 그것이 한성민의 가슴을 아릿하게 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가까이 다가간 한성민에게 갑자기 한손을 들어 미안함을 표시하시며 수화기에 정신을 집중하시었다. 그이께서 아주 먼곳의 누군가를 호출하시였는데 드디어 그곳과 이어진듯했다.

한성민은 자신의 숨소리마저도 그이께서 이제 하리게 될 아주 중요한 대화에 방해가 될가보아 극히 조심하기에 애쓰며 송구스러운 자세로 서있었다. 하면서도 한성민은 탁상우에 눈길이 갔다.

친애하는 그이께서 보시던 당보의 특호활자들이 시야에 들어왔다. 1. 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단위들을 소개하는 소제목들이였다. 《조선비단회사에서》, 《기세좋게 전진하는 북창의 동력전사들》, 《유성탄광에서》, 《수도의 3만세대 살림집건설장에서》, 《새해 농사차비로 들끓는 사회주의협동벌에서》... 한성민의 눈길은 어떻게 되어 당보너머의 탁상일력장에 가서 멎었다. 탁상일력장우에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필체가 분명한 《3월 25일》이라는 글발이 마지크로 씌여있었다. 방금 써놓으신듯 생신한 글발앞에 뚜껑을 연 마지크가 놓여있었다. 그이의 사색의 흔적을 보는 순간 한성민은 심중의 호수에 바위돌이 떨어져내리는듯한 충격을 느꼈다. 당과 혁명의 운명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지금은 누구나 《3월 25일》에 생각이 집착되어있다. 적들이 《최후통첩》을 해온것으로 하여 어쩌면 그날에 전쟁이라는 엄중한 사태가 빚어질수도 있는것이였다. 그리하여 《3월 25일》은 남녀로소 할것 없이 이 나라에 생을 둔 모든 사람들 개개인의 운명과 갑작스레 이어져버렸다. 그러나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걱정을 다 합친다고 해도 지금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안으신 심뇌와 사색에는 비교할수도 없는것이였다. 그이께

서 이 나라 인민 한사람한사람의 운명을 다 맡아안으시고 책임지시기때문이였다.

한성민의 눈앞에는 태평양을 건너오는 최신예의 전략폭격기편대들과 상륙함들, 남녘의 산야들에 화약내 질은 먼지구름을 피워올리는 지상부대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3월 25》이라는 글자들은 눈앞에 닥친 《전쟁》이라는 그것의 실체인듯이 생각되였다. 저분께서 지금 얼마나 생각이 많으시랴! 한성민의 생각은 여기서 끊어졌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전화가 이어진것이였다.

전화는 새 광산을 개발하는 먼 북변의 어느 연합기업소 책임일군과 하시는것 같았다. 그이께서는 퍼그나 온화한 음성으로 광산개발정형을 보고받으시였다.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하고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키는데서 동무네 광산개발이 아주 중요하다 하시며 해로가 되어 도로상태가 나빠졌겠는데 설비들의 운반대책을 어떻게 세웠는가, 광산에 새로 배치되어간 제대군인들이 인제는 안착되어 일하는가, 그들의 생활에서 애로되는것은 없는가고 물으시였다. 때로는 잘했다고 치하도 하시고 때로는 엄한 지적의 말씀도 해주시며 그곳 형편을 일일이 료해하시던 그이께서는 갑자기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였다. 제대군인가정에서 쌍둥이가 태어났단말이지! 첫 쌍둥이라! 그거 좋구만! 동무네 광산이 흥할 징조요! 하고 호탕하게 말씀하시였다. 먼데 시집장가를 간 자식들한테서 생남소식을 받아안은 친어버이의 마음이 되시여 더없이 기뻐하시던 그이께서는 거기 병원도 새로 꾸렸겠는데 해산방조를 제대로 받았는가, 산모와 아이들의 건강상태는 어떤가고 물으시였다. 동무네 그곳에서 술한 제대군인들이 새살림을 편 조건에서 출생아들이 많겠는데 병원에 소아과를 잘 꾸려주어야 한다고 꼭진한 당부도 하시였다.

한성민은 갑자기 훈훈한 바람이 불어와 온몸을 덥혀주는듯한 감이 들었다. 그런데 북변의 광산마을에서 미구에 태어날 아이들의 생명까지 걱정하시는 그분의 말씀이 탁상일력장에 써놓으신 《3월 25일》과는 너무나도 대조가 판이한것 같았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통화를 끝내시자 송수화기를 내려놓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제 근간의 사업들을 두고 여러가지 질문을 하실것이라고 생각하며 한성민은 미리 준비해가지고 온 문건들의 내용을 머리속에 간중그리였다. 그이께 올리는 보고는 언제나 일목료연해야 하며 간단명료해야 한다. 그이의 사색에 부답이 될수 있는 군말 한마디, 문구 하나라도 들어가서는 안된다. 그이를 보좌해드리는 일군의 자세는 그래야 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한성민에게 쏘파를 권하시고는 다시금 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시였

다. 《얼굴이 축났습니다. 요즘 너무 무리하는것같구만.》하고 걱정어린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한성민은 말문이 막혀버리였다. 어쩐지 눈곱이 찌룩해오면서 뜨겁고 땀뻘한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다. 그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그이앞에서는 언제나 자연스러워지곤했었다. 정녕 오늘밤은 어이된 일인가? 한성민은 머리속에 차곡차곡 정리해놓은 문건내용이며 여태껏 지탱해온 모든것을 망각의 심연속으로 떠밀어버리며 황망히 그리고 떠듬떠듬 말씀올리였다.

《항간에서는 지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밤잠을 잊으신채 작전대앞에서 일을 보신다는 소문이 나돌고있는가봅니다. 적들의 군사연습이 고조에 이르고 3월 25일도 얼마 남지 않은 때에 모두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만을 바라보고있는데 지도자동지께서 이렇게 무리하시면...》

마디마디 절절하게 울려나오던 한성민의 말은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차 말씀이 없으시였다. 생각이 깊으시였다. 한성민이 인민들의 의사를 결고하는 그 말이 그자신의 마음이기도 하다는것을 그이께서 어찌 모르시랴. 웅심깊고 원숙한 이 로년의 당일군이 결코 오늘의 어마어마한 정세에 놀리어 복잡잡한 심리에 빠져들어간것은 아닐거라고 그이께서는 생각하시였다. 한성민이 목메여 말을 잊지 못하는 기저에도 전사의 깨끗한 향심과 뜨거운 의리와 자기 수령에 대한 역적같은 믿음과 그리고 혁명에 대한 투철한 정신이 깔려있는것이였다. 당과 함께 한생을 걸어오는 한성민이 어데가겠는가. 좌로 세워봐도 우로 세워봐도 한성민은 역시 한성민인것이다.

《〈3월 25일〉이라...》 **김정일**동지께서는 혼자 소리로 뇌이시다가 가볍게 웃으시며 한성민을 향해 혼연히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에 위험이 닥쳐온것도 사실입니다. 아니, 전쟁이 일어날수도 있습니다.》

옆방으로 통하는 문이 소리없이 열리더니 장령이 나타났다. 다부진 체격의 젊은 장령은 가지고 들어온 변신지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 올리고나서 기계같은 걸음으로 사라졌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변신문을 읽어보시더니 전화기에로 다가가시여 누군가를 호출하시였다.

전화는 인차 련결되였다. 상대방은 미리부터 대기하고있었던듯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상대방의 보고를 청취하시며 도중에 군사술어로 일관된 간단간단한 질문을 하시였다. 이윽하여 《좋소! 그렇게 하오!》하고 명확한 결론을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송수화기를 내려놓으시고 잠시 무슨 생각엔가 잠기시며 방안을 조용히 거니시였다. 그 순간엔 한성민의 존재를 잊으신듯했다. 그 무엇인가를 부정하시듯 고개를 저으시던 그이께서

는 한쪽 벽면을 배경으로 놓여있는 커다란 지구의 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었다.

눈앞에 다가온 축소판의 푸른 행성을 바라보시던 **김정일** 동지께서는 《참 아름답거던! 우리의 행성이 말이요.》라고 하시었다.

《그렇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실지로 우주비행사들이 대기권밖에서 내려다보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처럼 아름다운 행성은 더는 없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행성을 보면 신비한 아름다움과 황홀경에 경탄을 금치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 동무는 이 아름다운 행성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군합니까?》

《저는 언젠가 본 환상영화가 생각납니다.》

《환상영화라...》

《그렇습니다 지도자동지.》

그것은 어느 한 나라의 반전반핵평화단체의 주문에 의하여 제작되었다는 영화인데 핵전쟁이 지나간 뒤의 지구를 환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저는 그때 인간이 어떻게 그런 몸서리치는 장면을 상상이나 할수 있단말인가 하는 생각에 밤잠을 다 못잤습니다. 지금 이 아름다운 지구의를 보니 그때 생각이 납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한성민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시며 푸른 지구의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었다. 영화는 자신께서도 보신적이 있었다. 밤잠을 못 잤다는 한성민의 말이 리해되지었다. 이 아름다운 행성에서 어떻게 인류의 흔적을 지워버릴수 있단말인가! 그럴수 없다. 우리의 행성은 영원히 인류의 것이다. 인간이 살고있어 우리의 행성은 이토록 아름다운것이다!

《그런데.》하고 그이께서는 불시에 격하시여 말씀하시었다. 지구우에는 현실적으로 핵전쟁의 위험이 존재하고있다, 우리의 행성을 핵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으려고 획책하는놈들이 있다, 현대판 《노아의 대홍수》를 연출하려는 놈들이 있다, 그놈들은 인류공동의 이 신성하고 아름다운 행성을 완구처럼 생각하고있다, 완구처럼 마음대로 분해도하고 재조립도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있다, 이 시각도 적들의 군수산업독점체들에서는 인류의 파멸에 기여할 대량살륙무기생산에 열을 올리고있다, 황금에 환장한자들에 의하여 지구촌의 오염문제가 심각히 제기되고있다, 인류를 수십번 멸살시키고도 남을 고성능의 초대형 핵폭탄들, 핵탄두들이 지구도처에 쌓여있다, 인류의 적들은 핵우세를 위해 지구촌을 파괴하고 핵무기로 인류의 생존자체를 위협하면서도 자주성을 지향하는 제3세계나라들, 혁명하는 나라들을 말살하는데 《핵의혹》을 구실로 내걸고있다,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자들의 파렴치성의 극치이다, 지금 적들은 바로 그 《핵의혹》을 내걸고 세계의 면전에서 우리 공화국을 선제타격하려고 하고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지구의에서 물러나시었다. 천

천히 방안을 거니시다가 다시금 지구의앞에 멈춰서시었다. 그이의 눈길은 지금도 류혈전이 계속되는 행성의 곳곳을 더듬고있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동유럽나라들에서... 나라와 나라사이, 민족간의 충돌이 일어나고있다. 그것은 단순한 골육상쟁이 아니라 전쟁의 양상으로 확대되어가고있다. 한나라, 한민족안에서도 분파들이 생겨나 내란의 불꽃이 튀고있다. 나라와 민족을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던 군대가 사본오렐되고 최신예를 자랑하던 비행기들, 탱크들, 미싸일들이 내란에 휘말려들어 불을 뿜고있다. 희생자는 누구인가? 무고한 인민이다. 정권에 환장한 몽유병자들, 몇 안되는 인민의 배신자들에 의하여 도시와 마을들은 황폐화되고 사람들은 무참히 죽어가고있으며 집을 잃고 자기 조국을 떠나가고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삶의 터전을 잃고 방황하는 그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시여 가슴이 아프시었다. 인류문명이 전성기에 이른 현세기말엽에 이르러 과연 이러한 비극은 계속되어야 하겠는가! 힘의 만능을 고집하는자들에 의하여 나라와 민족들이 통락당하고 력사와 문화가 뒤범벅이 되고 인류의 존엄이 유린되는 이 부조리한 낡은 질서는 종식되어야 한다. 참다운 국제적정의가 구현된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해야 한다. 핵문제! 지금은 핵문제를 놓고 세계무대에서 진보와 보수간의 치열한 대립이 이루어지고있다. 조선반도의 《핵문제》가 세계정치의 초점으로 되고있다. 핵사찰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원칙적립장을 세계가 지지하고있다. 정의와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나라들, 각국의 공산당과 노동당들, 국제기구들과 저명한 인사들이 우리 공화국에 련대성을 보내고있다. 잊지도 않은 우리의 《핵문제》를 부당하게 내돌리며 공화국을 위협하는 적들을 단죄하고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것인가! 세계의 인민들은 자주와 평화를 지향하고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적들이 내돌리는 공화국의 잊지도 않는 이른바 《핵문제》로 말하면 그것은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에 관한 문제이며 동시에 세계의 자주화와 인류의 존엄에 관한 문제이다.

그런데... 하고 **김정일** 동지께서는 생각을 이어가신다. 조선반도의 남단을 뒤덮으며 각일각 밀려오는 전쟁의 검은 구름이 떠오른다. 대양건너 본토기지들과 하와이, 괌도, 일본의 규수, 오키나와를 비롯한 여러 침략기지들에서 날아든 각종 전쟁수단들, 초대형항공모함을 기함으로 하는 함선집단들과 습격기며 추격습격기들, 수직 리착륙기, 전자장애기, 반잠초계기들, 만전쟁에 동원되었던 최신예의 핵적재전략 및 전투폭격기들, 오랜 침략전쟁력사로 악명높은 지상군부대들, 산악지역에 익숙되고 령한훈련을 받은 신속반응전개무력체계안의 타격부대들, 해병원정부대들... 그것들이 남조선전역에 쓸어들어와 미친듯한 침략열기를 올리는속에 포항지구에서 이미 대규모적인 《시범상륙공격》연습이 한

창 벌어지고있다. 완전한 전투대형으로 편성된 이 방대한 무력이 공화국북반부지역으로 기수를 돌리 기만하면 불과 불의 대결은 피할수 없게 된다.

문득 그이의 뇌리에 《3월 25일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라고 말하던 한성민의 방금전의 그 이상한 억양이 스쳐갔다. 적들의 광기어린 대규모군사 연습도 실동단계에 들어서지 않았는가. 적들은 우리가 손을 들고 투항하기를 바라는가? 그놈들이 된매를 맞고도 아직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어떤것인지 모르는것 같군. 원칙은 한치도 양보할수 없지. 자주성... 원칙... 원칙... 핵문제... 그래, 민족의 최고리익을 지키기 위해 후퇴란 있을수 없다.

한성민은 그이의 심중에서 산악처럼 거대하게 자라오르고있는 그것을 아직은 알수 없었다. 다만 그이께서 무엇인가 범상치 않은 사색을 안으시고 이 밤을 심뇌속에 보내고계신다는 어렴풋한 의식에 가슴이 저릿해지는데였다. 한성민은 자기가 알수 없는 오직 **김정일**동지께서만이 예견하실수 있는 거대한 사변이 근일간에 일어날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친애하는 그이께서 북변의 광산마을에서 출생할 아이들의 생명을 걱정해주신것도 그리고 우리의 행성을 두고 하시던 말씀도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생각되었다. 그리하여 한성민은 친애하는 그이께서 이밤은 잠들것 같지 못하다고 하시던 그 말씀의 심각한 의미가 어렴풋하게나마 비로소 의식되는 것 같았다. 또 다른 한성민이 그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으면서 속삭이는것 같았다.

전사여, 결사의 각오를 굳게 하자! 경애하는 우리의 **김정일**장군을 보위하는 성전에 나서자! 민족의 사활적인 중대사 앞에서 나이가 무슨 상관이라!...

×

김정일동지를 모신 승용차는 전나무들이 키높이 자라올라 우중충한 숲을 이룬 정원을 에돌아 인차 정문을 벗어났다. 시내중심부를 이루는 기본도로에 나서자 승용차는 속력을 높이였다.

그이를 모시고 승용차에 몸을 실은 한성민은 조심스럽게 생각을 굴려보았다. 친애하는 그이께서 잠시나마 휴식을 하셔야 하련만 이 새벽 천금같은 시간을 내시여 여기로 나오심은 무엇때문인가 하는 생각이 지꽃게도 머리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이께서는 바람이나 쏘일 겹 함께 시내를 돌아보자고 말씀하시였건만 이 길이 단순한 산책의 걸음은 아닐 것이었다. 저이께서 어찌 레사로운 산책의 걸음을 걸으실 여유가 있을것인가. 이밤은 잠들것같지 못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그만큼 무거운 번뇌를 안으시고 범인간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광폭의 사색을 펴가시는분이 아니신가. 민방위사업이나 그 밖의 방위문제가 걱정되시여 어데 시찰을 하시려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 길은 저분의 사업일정에 예견되어있는 걸음일수 있다.

왜서인지 한성민의 눈앞에는 친애하는 **김정일**동

지의 집무탁우에 있는 달력장에 《3월 25일》이라고 씌여있던 그분의 필적이 다시금 언뜻 떠올랐다.

승용차는 어둠에 휩싸인 도시의 중심가를 꿰며 고속으로 달리였다.

아직은 불을 켜기에 이른 시간이었다. 물기가 흐르는 은행나무가지들사이에서 희뿌연 빛을 발산하는 가로등들만 아니라면 반향공신히가 울리고 창문들마다 차광막이 빈틈없이 내리어진 도시를 방불케 할것이다.

푸릿한 빛이 자욱하게 서리어 망망대해의 심연처럼 보이는 아득한 공간이 시야에 안겨든다. 도로좌우쪽에 즐비하게 늘어선 초고층의 현대식살림집들도 지금은 어둠속에 잠겨 조용하다.

살같이 날아가는 전조등의 역광에 불꺼진 창문들이 얼른거린다. 창문들은 재빨리 뒤로 사라져버리였다. 네거리를 외로이 지켜서서 부지런히 깜박거리는 자동신호등들, 장식간판들, 자동전화실들이 나타났다가 시야밖으로 밀려났다. 도시의 어디에나 아직은 사람들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다. 온 도시가 잠을 자고있다. 평화가 깃든듯한 도시이다. 실상 평화로운 공기만이 흐르는것은 아니다. 날이 밝으면 무장한 병사들을 태운 대렬차들, 전투적인 구호를 내붙인 군용장갑차들이 인민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며 지나가는것을 볼수있다. 길을 가는 병사들의 어깨우에는 위장망이 걸려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질풍같은 속도로 마주 다가오는 도시의 밤풍경을 묵연히 바라보시였다. 갑자기 어디선가 멀리에서 철관을 힘있게 두드려대는듯한 소리가 아스라하니 들려왔다. 그 어떤 음향도 밤이면 진폭이 놀랍게 크다. 철관 두드리는 소리는 분명 통일거리 건설장쪽에서 날아건너오는 소리였다. 어느덧 그 소리는 사라져가고 차안에는 여운만 남았다.

《준전시상태가 선포된후 어떤 반향들이 일어나고있습니까?》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답답한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한성민은 황황히 자신을 다잡았다.

《현정세에 대처하는 우리 인민의 열의는 대단히 높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저는 이번의 준전시기간을 통하여 우리 인민이 어떤 인민인가를 새롭게 알게 된것 같습니다. 지도자동지의 명령이 하달되자 ○○지구에서는 하루사이에 강철생산량이 두배로 올라갔습니다. 전선탄원운동도 전국적범위에서 벌어지고있습니다. 전선탄원자들중에는 청년들만이 아니라 과학자들, 작가들, 예술인들, 체육인들도 있고 전쟁로병들도 있습니다.》

《전쟁로병들도 있단말이지요? 전쟁로병들도!》

김정일동지께서는 한성민의 말을 도중에서 자르시며 활기로운 음성으로 뇌이시였다. 감동의 빛이 그이의 눈가에 번뜩이는것 같았다.

《나의 앞으로 직접 그런 요청을 담은 편지를 보

내오는 로병들도 많습니다. 준전시상태가 선포된 후 ○○지구에서 강철생산량이 두배로 올라갔다는데 그것은 그대로 우리 인민의 의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전국의 공장들과 생산기업소들에서 생산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협동농민들은 올해에 알곡풍년을 안아오기 위해 씨뿌림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전선탄원운동이 벌어지고있다고 했는데 나한테 올라온 보고를 보면 지금까지 150만명의 근로자들과 지식인들, 청년학생들이 입대를 탄원해나섰습니다. 어제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된 15만 근로자들의 결기모임과 시위도 분위기가 고도로 앙양되었다고 합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시야에 언뜻 비쳐들었다가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은행나무가지들에 눈길을 두고 계시었다. 도시는 여전히 안식에 무뎠어있다.

《좋은 계절이 오는데…》 하고 혼자소리로 뇌이시었다. 그이께서는 물기를 머금은 은행나무가지들과 물김같이 뽀얗게 서기가 어린 대기를 통해 새싹이 움터나고 꽃망울이 부풀어오르는 봄의 전조를 느끼신것 같았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윽하여 동무들도 최근의 정세자료를 보았을거라고 하시면서 적들이 《특별사찰》소동과 강권행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물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물론 그들이 진정으로 핵전과를 막기 위해 그러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압살하기 위한 정치적목적을 어떻게 하나 실현해보려는 집요성이 반영되어있다고 봅니다. 그놈들은 동서간의 랭전구조가 허물어진 오늘에 와서 힘을 가지고 세계를 제마음대로 좌우지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 인민은 스스로 선택한 사회주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거요. 포기하기는 그들이 힘의 정책을 포기해야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동지! 놈들은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의 일부 불순세력들을 통하여 우리가 3월 25일까지 〈특별사찰〉을 받지 않으면 어떤다는 결의를 통과시켜놓고 아직까지 철회하려하지 않고있습니다. 이제 두주일이면 3월 25일입니다. 지금 세계가 우리 나라에서의 사태발전을 주시하면서 신경들이 이 〈3월 25일〉에 쏠리고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들속에 3월 25일은 지구가 깨어지는 날이라고 아우성을 지르는 사람들도 있는것 같습니다.》

《허허…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최후통첩식으로 〈3월 25일〉을 찍어서 결정한 그 마당에서 우리 대표단 단장이 그것을 전면부정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니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은 놀랄수도 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잠시 침묵하시었다. 이윽하여

《3월 25일이라. 그러니 대답을 기다린단말이지. 대답을.》 하시더니 결연하신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었다. 《그러나 우리가 그 〈3월 25〉일에 대하여 지나친 신경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날자는 그들이 감히 제멋대로 정해놔으니 철회하려거든 그들더러 철회하라고 합시다.》 다시 침묵이 흘렀다. 하얀 라크칠을 하여 선명하게 드러나는 도로중앙선이 쓴살같이 다가왔다가 옆으로 지나갔다.

《우리의 원칙적립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특별사찰〉도 허용할수 없으며 〈강제사찰〉이라는것은 더더욱 들어올수 없습니다. 누가 감히 우리한테대고 그런 장난질을 한단말입니다. 〈강제사찰〉이라니! 안됩니다!》

그이께서는 저으기 흥분하신 어조였다.

잠시후 **김정일**동지께서는 긴장한 한성민의 심정을 리해하신듯 가벼운 미소를 지으시었다.

《놈들이 전쟁을 일으키겠으면 일으키라고 합시다.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전후 40년동안 온갖 시련을 이겨내며 일떠세운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있으며 강위력한 국방력이 있습니다. 우리 군대는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그 어떤 적들과도 싸워이길수 있게 준비되어있습니다. 참, 박명철동무를 한성민동무도 잘 알지요?》

김정일동지께서는 《만경대혁명학원출신의 박명철장령을말입니다.》 하고 툇겨주시었다.

《그 박명철이라면 잘 압니다, 지도자동지.》

한성민의 눈앞에는 박명철의 크고 벌거친 얼굴이 이내 떠올랐다. 전연지구의 한 연합부대를 지휘하는 박명철은 비상한 수학적두뇌와 군사적기질을 겸비한것으로 하여 **김정일**동지께서 무척 아끼시며 키워오시는 일군이였다. 그이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박명철의 이름을 꺼내시는지 알수 없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갑자기 절절 웃으시었다. 차안에는 한순간 맑은 기운이 가득 서리었다.

《그 박명철이 장하거든! 내가 전화로 부대들의 기동정형에 대하여 물었더니 그 동문 명령대로 끝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저쪽너머가 요즘 소란스러운걸 보면 가들이 이번에는 잡도리를 단단히 한것 같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가들이 감히 덤벼들면 단때에 목사발을 만들겠습니다!〉 내 한성민동무가 무엇때문에 〈3월 25일〉소리를 했는지 압니다. 당과 혁명 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감으로 하여 한성민동무가 그런 마음도 쓰게되었을것입니다. 일군이라면 조국앞에 엄혹한 시련이 닥쳐올 때 누구보다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해야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조국앞에 드리운 위험은 동무들이 생각하는것보다 더 절박한것일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저 로씨야땅에서 10월의 기치가 사수되던 그때와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령토도 작고 인구수도 적은 우리 나라가 사회주의를 말살하려고

물려드는 발톱까지 무장한 현대제국주의자들과 맞서 결사전을 벌여야 하는것입니다. 그러나 놈들이 무력을 가지고 우리를 감히 어찌지는 못합니다. 우리 무력은 전반적으로 기동이 끝났습니다. 적들이 어느 시각에 쳐들어와도 즉시적인 반격으로 무자비한 징벌타격을 가할수 있게 병사들은 진지를 차지했고 기재들은 발동이 걸리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주권을 지켜낼것입니다. 자주권은 매개민족에게 있어서 생명입니다. 혁명가요에도 자유권없이 살아도 죽은 목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귀중한것을 우롱당하면서 적들에게 평화를 구걸할수는 없습니다.»

그이께서는 생각에 잠기시며 조용히 외우시였다. 문득 그이의 시야로는 려명이 완전한 하늘을 배경으로 묵묵히 솟아있는 모란봉이 비껴들었다. 단군이래 반만년, 궁지도 많고 피의 곡절도 많았던 민족사의 증견자라는 생각이 드시였다. 그이께서는 천년이기에 묻힌 성돌마다에 숨배여있는 선조들의 넋을 생각하시였다. 순국의 피로 이 땅을 적시고간 렬사들의 기원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근로하는 인민이 주인된 나라, 그 어떤 외세의 지배도 모르는 자주적이며 독립된 조선이 아니었던가! 그이의 사색은 끝없이 이어져갔다.

《저 아득한 세기에 자기의 문화를 꽃피웠던 고조선의 력사도 이 땅위에 흘러갔고 뛰어난 무예와 슬기로 이방인들의 침략을 물리쳐온 고구려인민의 자랑스러운 력사도 있었는가 하면 고려의 뒤를 이어 조선봉건왕조의 500년이란 기나긴 력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체시대를 맞이한 오늘날 우리 인민이 자주적이며 존엄있는 삶을 누려본적은 더는 없었습니다. 더우기 그것이 백두의 설한봉속에서 조선의 혁명가들이 피를 흘리며 이룩한 전취물이여서 우리 인민은 더더욱 자기의 존엄을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그것을 짓밟으려는 놈들과는 결단코 싸울 각오가 되어있는것입니다.》

애민애족의 뜨거운 숨결이 말씀의 마디마디에서 느껴졌다.

《그런데 신성한 국제기구를 저들의 불순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공작물로 만들어놓은 그놈들이 죄는 우리에게 뒤집어써우면서 공화국을 감히 해치려 하거든! 안되지! 우리의 대답이 어떤것인지 알아야 그놈들이 제정신을 좀 차릴것 같소.》

김정일 동지께서는 계속하여 놈들이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커다란 관심이나 있는듯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의혹》을 요란하게 광고하고있지만 그럴수록 제놈들의 취약성을 드러내놓을뿐이다. 도적이 도적이야 하고 소리를 먼저 지르면서도 제발이 저러하는것처럼 그놈들은 핵무기의 완전철폐에 관한 비핵국가들의 정의의 목소리를 두려워하고있다. 우리는 그놈들의 약점을 틀어쥐고 꼼짝 못하게 수족을 얹어매야 한다. 이제 놈들의 도덕적저열성을 만

천하에 발가놓을 우리 나라 외교부의 비망록이 곧 세상에 나갈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한성민은 차츰차츰 심장이 놀라기 시작했다. 그의 심중에서 무엇인가 거대한것이 이루어지고있는듯한 예감이 들었다. 저분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대답》이란 무엇을 념두에 두신것인가. 정말 전쟁때문인가? 하지만 이제 와서 그것은 어쩐지 너무나도 범속한 의미로 한성민에게는 생각되었다.

《지도자동지, 그 깊은 뜻은 제 아직까지 다 깨닫지 못하면서 일해오는것 같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심각해진 한성민을 돌아보시며 소탈하게 웃으시였다.

《그러지 마오. 사실 나는 동무들이 결에서 잘 받들어주어 언제나 마음이 든든해서 일합니다. 나는 아까 박명철동무와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힘을 얻었습니다. 이런 일군들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일인들 결심을 못하랴고말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 박명철동무가 통쾌한 소리를 했더니 배심이 든든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

《왜 그렇니까?》

《어제 집에 들렸댔다는 제 손주녀석이 바로 그 박명철동무네 부대에 있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갑자기 차안이 들쭉하도록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영문을 몰라하는 한성민을 즐거운 눈길로 돌아보시였다.

《한성민동무가 손주자랑을 할줄 알거던!》

한성민은 그제야 친애하는 그이께서 웃으신 까닭이 이해되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지도자동지, 할아버지가 되면 어쩔수 없는가롭니다.》

《모두들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손주가 박명철동무네 부대에 배치될 받았다면 일이 잘된셈입니다. 한성민동무에게 땅크병 손주라...》

《그녀석이 땅크를 서툴게 다루다가 언덕이마에 쿵알만한 상처자리를 내서 반창고를 붙이고있으면서도 제단에는 리수복이처럼 평장한 위훈이나 세울듯이 큰소리를 치면서 부대로 떠나갔습니다.》

《손주가 꽤 똑똑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제 누굴 닮았는지 싱겁기가 형편없는 녀석같습니다. 이 할아버지를 그 애녀석이 가르치려들지 않겠습니까.》

김정일 동지께서는 흥미가 동하시는 기색이었다.

《할아버지가 그래도 로간부인데 가르치려든다는게 웬말입니까?》 하고 물으시였다.

《그녀석한테는 이 할아버지가 그저 한갓 로인으로만 보였던것 같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하는 말이 할아버지, 우린 놈들과 한번은 싸워서 결판을 내야 해요. 그놈들이 우리를 먹어보겠다고 덤벼들려하거던요. 하지만 걱정마시라요. 인민군대가 승냥이같은 그놈들을 씨도 없이 소멸할테니까요, 우린 꼭 이겨요. 할아버진 이걸 아시구 신심을 가져야대요 하

질 않겠습니까.》

김정일 동지께서는 간밤을 지새우신 피로도 무거운 상념도 그순간엔 말짱 잊으시었다. 사람 좋은 《할아버지》이기도 한 이 훌륭한 당일군에게서 참으로 좋은 말을 들었다고 생각하시었다. 우리 당의 위업을 대를 이어 받들어나갈 혁명의 3세, 4세들이 쇠소리나게 자라났다. 그 어린 전사도 자기의 사령관과 똑 같은 생각을 하고있지 않는가. 한성민의 사랑스러운 손주를 보고싶으시었다. 땅크를 다루다가 생겼다는 이마의 상처가 걱정되시기도 했다. 이제 다시 그 나 어린 땅크병이 평양에 들리면 한번 만나 봐야겠다는 생각도 드시었다. 아니, 그이께서는 이 나라의 모든 전사들, 이 나라의 인민 한사람한사람을 다 만나보고싶으시었다.

《그 손주가 했다는 말을 들으니 리학동무가 생각납니다.》 그이께서는 전사의 모습을 그려보시는 듯 승용차의 등받이에 몸을 묻으시며 광막한 공간으로 시선을 달리시었다. 《공군지휘관이었던 리학동무가 어제 나에게 편지를 보내왔는데 거기에 쓰기를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한테 비행기를 한 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그 비행기에 폭탄을 차고 전쟁을 일으킨 그놈들의 소굴을 향해 날아가 한몸이 그대로 폭탄이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받아보고 이것이 바로 조선의 의지이며 결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도처의 수많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로동계급들과 협동농민들, 군인들, 대학생들, 지식인들, 로병들이 그런 편지를 보내오고있습니다. 그속에는 유성탄광의 오랜 공로자인 박원호동무도 있습니다. 오늘호 당보를 보니 유성탄광에서 1.4분기 석탄생산계획을 한달이나 앞당겨 수행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곳 탄광에서 고문지배인으로 있는 박원호동무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내가 한번 만나본 동무인데 한생을 석탄전선에 있으면서 우리 당을 진심으로 받들어오는 좋은 동무입니다. 오는 3월 25일이면 바로 그 동무의 생일 일흔흔이 될 것입니다. 인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한 그 동무에게 생일 일흔흔상을 우리가 차려주자고 합니다. 그날 잊지 말고 생일 일흔흔상을 잘 차려내려보내줍니다.》

한성민은 친애하는 그이께서 탁상일력장우에 《3월 25일》이라고 적어놓으신 글발의 의미를 비로소 알게 되자 눈앞이 확 흐려졌다. 그것은 제국주의 앞잡이들의 《최후통첩》에는 비교도 할수 없는 그이의 더없이 숭고하고 위대한 사업의 기록이었다. 정녕 그이의 마음속에는 이 나라 인민모두의 운명이 뿌리를 내리고있는 것이었다. 그 행복한 인민속에 한성민이도 그의 사랑스러운 손주도 있는 것이었다.

《그 누구도 이러한 인민을 다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이의 음성은 동터오는 무한대의 공간을 짹 채우며 울리는 듯했다.

...우리의 행성에서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행성의 평화도 매개 나라, 매개 민족의 자주권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인민은 자기를 건드리는 자들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용서치 않을 것이다...

승용차는 여전히 도로우를 질주하고있었다. 전조등의 희미한 역광이 살같은 속도로 누벼나가는 보도너머 저기 초고층살림집에 붙여진 창문 하나가 그이의 시야에 안겨들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붙여진 창문앞에 이르러 갑자기 승용차를 세우시었다. 어인 일인가? 귀를 강구시는 듯 등받이에서 몸을 떼신 그이의 눈가에, 그이의 만면에 고요히 미소가 피어나지 않는가. 저 붙여진 유난스러운 창가에 저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무엇이 있단말인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이께서 은근하신 음성으로 속삭이신다.

한성민은 꿈결에서마냥 아슴프레 들려오는 타악기의 예리한 음향을 느끼며 붙여진 창문가를 향해 귀를 기울이었다. 첫 련인을 사모하던 젊은 시절의 그때처럼 가슴은 울렁이기 시작하더니 확 달아올랐다. 땡...땡... 그것은 새날의 방송개시를 알리는 소리가 아닌가!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천천히 라디오의 다알을 돌리시었다. 타악기의 울림은 선명해지기 시작하더니 장중한 음악으로 변조되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온 우주에 퍼져가는 신비의 음향을 음미하시듯 기척이 없으시다가 갑자기 우리가 밝아지도록 환한 미소를 지으시었다. 《저것보시오!》 하고 그이께서 환희에 젖은 음성을 울리시었다. 그이의 시선을 따르던 한성민의 두눈에도 환희의 불꽃이 튀기었다. 하늘을 향해 숲처럼 일떠선 고층살림집 창문들에 하나 둘씩 불이 켜지는가싶더니 어느새 하늘의 별이 다 내려앉은듯 온 도시가 불빛의 바다로 화한 것이었다.

승용차는 그 불빛의 바다 한가운데를 미끄러지듯 달리였다. 한성민은 숭엄한 격정에 목이 꺾 메였다. 저기 푸르게 열려가는 하늘이 온통 휘날리는 공화국기의 천지로 보이였다.

아침은 빛나라 이 강산

은금에 자원도 가득한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

김정일 동지의 힘있는 음성이 한성민의 흥벽을 쿵 울리였다.

《그 어떤 제국주의도 힘으로 세계를 지배할수는 없소! 인류의 리성이 그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거요. 제국주의자들이 남의 등을 치먹기 위해 만들어낸 낡은 질서는 깨버려야 하오!》

순간 한성민의 눈앞에는 거대한 얼음산이 산산조각이 나고 녹아내리는 장쾌한 장면이 떠올랐다. 한

성민에게는 조선이라는 땅덩어리가 하루밤사이 지구촌 초월한 웅근 하나의 행성으로 자라오른것 같은 생각조차 들었다. 가슴속에 뜨겁고 거대한것이 짙어 들어차는것 같았다. 눈앞이 확 흐려왔다.

한성민은 간밤의 일들을 생각했다. 이밤은 잠을 이루실것 같지 못하다고 하시던 그 말씀이며 우리의 행성과 인류에 대하여, 우리 인민에 대하여 하시던 그이의 의미심장한 말씀들을 생각했다. 이제와서야 한성민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온밤 커다란 심뇌를 안으시고 사색에 사색에 또 사색을 해오신것이 무엇때문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것 같았다.

머리위로 떠오르는 전쟁의 검은구름이 질어만가는 기나긴 밤에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공화국과 인류의 존엄을 위해, 이 땅에 삶을 둔 인간들매 개인들의 운명을 지켜주시러 사색의 바다를 헤쳐오신것이다. 이 아침 안식의 요람에서 깨어나는 저 행복한 사람들이 그것을 어찌 알수 있겠는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벌써 아침이 되었습시다!》

《아침이라! 어허- 사람들이 일하러 나갈 때가 되었구만! 얼마나 좋습니까!》

구획이 선명해진 동평양의 고층살림집들의 가장자리에서부터 불그레한 빛이 연하게 살아오르는것 같았다. 아침이다! 미구에 온 누리를 금빛으로 물들이며 찬란한 태양이 솟아오를것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샘물처럼 끓어오르는 생활의 음향을 온몸으로 느껴보고싶으신듯 차창을 내리우시었다.

《그래, 지구는 영원히 인류의것이지. 우주가 어떻게 변한다고 해도 우리의 행성에 인간은 영원히 존재하며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해나갈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이 행성도 주체의 광휘로운 빛발을 뿌리며 거연히 솟아있는 존엄높은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이 있어 더욱 아름다운것이다!》

그이께서는 등받이에 몸을 묻으시며 침묵에 잠기시었다. 축소판의 푸른 지구의를 다시금 그려보시는듯...

...

반만년 오랜 력사에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슬기론 인민의 이 영광
몸과 맘 다 바쳐
이 조선 길이 받드세

열려진 차창으로는 파스한 생활의 무수한 음향이 습배인 3월의 바람이 날아들었다. 우리의 **김정일**동지께서 제국주의자들이 몰아오는 전쟁의 회오리바람을 몰아내시고 인민에 대한 다함없는 사랑과

강철의 의지로 안아오신 승리의 전조가 아닌가!

한바퀴만 더! 한바퀴만 더! 한바퀴만 더 달려주오. 운전사동무, 조심히! 조심히!...

친애하는 그이의 반면에 아침노을처럼 피어오르는 미소를 바라보며 한성민은 마음속으로 뜨겁게 부르짖었다.

지금 저분의 위대하고 끊임없는 사색속에 우리 모두의 오늘과 래일의 삶이 설계되고있다. 저분은 오로지 우리들의 운명을 놓고 기뻐하시고 피로와도 하시며 즐거워도 하시고 심뇌도 하신다. 저분은 우리 모두의 친아버지이시다. 아니, 인류의 삶이 깃들인 영원한 행성이시다. 인류는 저분을 잘 받들어모셔야 한다. **김정일**동지- 저분께서만이 인류의 진정한 평화도 지켜내실수 있고 우리 민족의 존엄도 세 계만방에 더욱 찬연히 빛내어주시실수 있다!...

그때로부터 이틀후에 평양의 만수대의사당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 탈퇴를 결정하는 중앙인민위원회 제9기 제7차회의가 엄숙히 진행되었다.

그때로부터 다시 몇달이 지나갔다. 록음이 한창 질어가는 뜨거운 7월의 아침, 수도 평양에서는 전승 40돐경축 열병식을 알리는 레포가 울리었다.

이어 **김일성**광장을 울리며 열병의 대오가 보무당당히 행진해갔다. 위대한 령장이신 **김정일**동지를 우러러 만세를 부르는 대오속에는 박명철장령과 함께 땅크병모자를 쓴 한성민의 손주도 서있을것이었다. 그리고 오랜 탄부인 박원호로인도 훈장이 번쩍이는 로병대오속에 서있을것이었다. 한성민은 끝없이 이어지는 대오를 바라보며 가슴이 내내 후터워왔다. 이 몇달사이에 인민은 얼마나 위대한 승리를 체험했던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영영 압살하려던 놈들의 악랄한 기도가 산산이 깨어져나가고 태평양을 건너왔던 핵적제기들도 우리의 위력에 겁을 먹고 황황히 사라져버렸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가장 엄혹했던 그 시각에 위대한 결단을 내리시여 안아오신 승리, 한차례의 대전을 치른것과 같은 이 거대한 승리로 하여 이해의 전승기념행사는 더더욱 의미가 깊은것이 아니라. 한성민은 이 모든것을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뜨겁게 부르짖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고 조선을 구원하시였습니다!

진정 우리 조선을 다시한번 저 아득한 창공높이 에로 떠올려주시였습니다!) 하고.

...하지만 아직은 음달에 잔설이 남아있어 새바람을 불어오는 3월이었다. 승용차는 이른아침의 푸릇한 대기를 헤가르며 만수대기슭을 감돌아 달리고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 집무실로 들어가시는길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리인모동지가 헌시와 가사를 올리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를 받아안고 보람차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있는 리인모 동지는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담아 그이께 헌시와 가사를 지어올렸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삼가 올립니다

나의 운명을 두고

죽은자는 산자로 될수 없나이다
지옥행은 락원행으로 바뀔수 없나이다
하건만 나의 운명은
인생의 이 궤도를 부정하였나이다

저는 다 죽었던 사람
남쪽의 옥방에서 이름석자도 없이
수인번호로 불리우던 몸
숨쉬는 화석이였습니다
시들어버린 고엽이였습니다

허나 내 오늘
지옥의 판문에서 벗어나
세상이 다 아는 리인모로 되였습니다
인생의 청엽으로 생기가 넘칩니다

이런 행운을 두고
남쪽사람들은 말합니다
신화속의 《운명의 신》이
베풀어준 은총이라고

아니옵니다
저에게 행운을 주신분은
위대한 인간이신
은혜로운 **김정일**, 당신이옵니다

정녕 넘지 못할 분단선을 뚫고
죽은 몸을 꽃수레에 태워오신 당신이옵니다
수령님결에 저를 세워주시고
친히 슬하에도 불러주신 당신이옵니다

하기에 내 오늘
운명에 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저의 운명은 자애로운 당신
민족과 인류의 운명도 위대한 당신

저는 심장으로 말합니다
거룩하신 **김정일**, 당신은
진정 운명의 《신》이십니다
둘도 없는 우리 운명의 구세주이십니다

사랑에 대한 생각

남쪽의 차디찬 감방에서
홀웃을 걸치고 떨던 몸
지금은 따스한 이불을 덮고
편히 침대에 누워 자다가도
문득 깨어나 생각하는것
내 이 사랑을 다 아는가

지팽이인생으로 시들던 이 몸
오늘 손자의 손목을 잡고
정다운 내 집 정원을 거닐다가도
문득 멈춰서서 생각하는것
내 이 사랑을 다 아는것인가
사랑을 받기는 쉬워도

사랑을 알기는 어려운것
사랑을 모르고 살아온 사람에게는
사랑이 클수록
더구나 다 알기란 쉽지 않은것

40여년세월
죽이 없는 삭막한 남쪽에서
사랑과 담을 쌓은 악의 세상에서
사랑이란 말조차 잊어버린 저였습니다

그러나 분단선에서부터 목이 메였습니다
사랑과 사랑이 저를 품어주었습니다
미처 알지 못한 그 사랑

어디서 오는것인지...
가르쳐주지 않아도 느꼈습니다
너무도 뜨거워 너무도 고마워
자애로운 **김정일**, 당신의 사랑인줄

내 숨쉬는 공기에
내 몸에 비치는 햇빛에
당신의 사랑이 꼭 차있습니다
내 집 앞방에도 당신의 사랑
뒤방에도 당신의 사랑
옷층에도 아래층에도
당신의 사랑이 겹겹이 쌓였습니다

끊임없이 아껴주시고
내세워주고싶으신 그 마음속에
천하를 다 주고도 또 주고싶어하시는
그 자애속에...
제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큰 사랑도 있는가고

사랑밖에 밀려났던 이몸
70고개를 넘어선 오늘에야
당신의 사랑이 무엇인지
늦게나마 알고 옵니다

눈물이 말라버린 이 늙은 몸도
고마워 울게 하는 사랑이옵니다
조국이 무엇이고 혁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사랑이옵니다
리기도 모르고 깨끗하게
살게 하는 사랑이옵니다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칼도 이기게 하는 사랑이옵니다

그래서 쉽게 외울수 없는 사랑
그래서 가볍게 받을수 없는 사랑
아,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여
열렬한 사랑의 인간 당신은
위대한 사랑의 화신이시옵니다

신념과 의지의 찬가

저를 신념의 화신이라 하셨습니다
제 어찌 신념의 화신이겠습니까
죽어도 못버릴 나의 신념
그것은 **김정일**, 당신이 주신것입니다

저를 의지의 화신이라 하셨습니다
제가 무슨 의지의 화신이겠습니까
숨져도 꺾이지 않을 나의 의지
그것은 **김정일**, 당신이 주신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신념이라 함은
세상에서 가장 굳센 의지라 함은
그것은 위대한 강철의 인간
김정일, 당신의것이옵니다

당신이 계시기에
당신의 기질을 받은 저입니다
당신의 숨결을 받은
리인모입니다

유혹의 전향문이 괴롭힐 때마다
내 심장속에 계신분은 아버지수령님
불사의 힘으로 나를 지켜주신분은
백두산의 아들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해가 바뀌어 머리가 희여져도
언제나 당신은 나의 하늘이였습니다
그래서 30대 청춘기에도 그 신념
그래서 70대 황혼기에도 그 의지

당신은 강하십니다
강하여 언제나 이기십니다
만난을 웃음으로 이기시고
천지를 한손에 다스리시는 장군이옵니다

내 똑똑히 보았습니다
천하제일장군인 당신이 계시여 무적인
강한 신념과 의지의 우리 공화국을
언제나 이기는 기질의 인민을
언제나 이기는데 습관된 군민을

당신의 신념으로 력사가 흐르고
당신의 의지로 지구가 돌기에
위대한 **김정일**장군이시여
참된 신념과 의지의 꽃다발을
이 로병은 영명한 당신께 드리옵니다

가사

당신만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

1. 백두의 뱃으로 광풍을 부시고
역풍을 길들인 **김정일** 장군
당신만 있으면 고난이 무어나
당신만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

2. 광복의 정치로 천만을 이끌어
기적을 창조한 **김정일** 장군
당신만 있으면 역경이 무어나
당신만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

3. 일심의 대군단 강철로 다지고
보검을 안겨준 **김정일** 장군
당신만 있으면 대적이 무어나
당신만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

1993년 11월
당신의 로병, 종군기자
리인모 올립니다

반향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들이 **김정일** 동지의 정치를 가리켜 사랑의 정치, 믿음의 정치, 광복정치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민을 믿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그에 대한 신뢰의 표시이고 칭송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 리인모동지가 삼가 올린 헌시와 가사는 지금 우리 작가들과 시인들을 크나큰 열정과 창작적흥분에 휩싸이게 하고있으며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로병에게 경례를!

검은머리우에 위장망을 두른 군모를 눌러쓰고 준엄한 전선길을 떠나갔던 로병 리인모!

총칼도 이기고 감옥과 교수대도 차던지고 백발을 날리며 시들어버린 고엽으로 돌아왔어도 부끄럽지 않게 높이 치여든 그 장하디장한 모습으로 이 가슴에도 시의 샘물을 가득 부어주던 리인모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오늘 이렇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뜨거운 사랑속에서 인생의 청엽으로 생기에 넘쳐 정말로 시다운 명작으로 또다시 이 눈굽을 적셔주었다.

헌시와 가사를 읽으며 저는 두볼이 다 젖어내리는것도 미처 몰랐다.

진정 우리 운명의 《신》이시며 천하제일장군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모신 우리 로병들의 마음도 합쳐 씌여진 구절구절은 위대한 우리의 령도자에 대한 우리 인민모두의 한결같은 레찬

이다.

죽은자가 산자로 될수 없고 지옥행이 락원행으로 바뀔수 없어도 인생의 이 궤도를 부정한 리인모의 운명은 우리모두의 운명이며 그이 품에 안겨사는 우리 인민모두의 운명이 아닌가.

리인모동지가 헌시와 가사에서 심장으로 노래했듯이 우리에게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는 둘도 없는 운명의 구세주이다.

우리모두의 이 심장의 말을 함께 해준 리인모동지가 정말 장하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나 역시 전선길을 군복입고 헤쳐온 로병의 한사람된 자격으로 그에게 전투적인 경례를 보내는바이다.

시인 **심봉원**

불멸의 탑앞에서

리봉화

대동강 기슭에 거연히 솟은
나의 사랑하는 탑, 주체사상탑이여!
내 그대의 주추돌에 힘이 된다면
내 그대의 탑신에 보탬이 된다면
이 한몸 기꺼이 바치리라
만년초석되어 굳건히 떠받들도록

그대는 나에게 넋을 주고
영원한 신념을 안겨주었도다
그 넋을 지녀 변함없는 신념으로
내 당을 따라 승리의 한길로 나아가니
오, 그대는 마음의 성새로 높이 솟았어라

온 누리에 붉게붉게 타오르는
승엄한 주체사상탑이여!
그대의 불길에 불씨가 된다면
그대의 빛발에 섬광이 된다면
이 심장 기꺼이 바치리라
봉화가 더욱 세차게 타오르도록

그대는 나에게 밝은 빛을 주고
머나먼 나의 앞길 밝혀주었더라
저 빛발 비쳐가는곳에
인류의 찬란한 미래는 일떠서나니
오, 그대는 영원한 혁명의 해불로 빛발쳐라

인간사랑의 탑, 주체사상탑이여
영광으로 빛나는 탑이여!
그대의 높이 더해줄수 있다면
그대의 위용 더 빛낼수 있다면
이 한몸 초석이 되어 더 높이 받들어주리라
백두산과 더불어 제일 높이 솟아 빛나도록

영생불멸의 탑이여
그대 지닌 존엄의 높이 끝없고
그대 쌓은 업적의 높이 끝없어
이 세상 끝까지, 이 세월 끝까지
내 그대 받들어 영원히 노래하리라!

민족과 인류의 운명에 대한 끝없는 신심과 락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삼가 올린 리인모동지의 헌시와 가사는 진정 돌도 없는 우리 운명의 구세주, 위대한 령도자에 대한 다함없는 송가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신념과 의지로 력사가 흐르고 지구가 돌며 그이의 사랑을 숨쉬는 공기처럼 해빛처럼 안고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인생의 궤도도 부정하고 사는 행운이라는 헌시의 구절구절은 참으로 오늘 우리 시대의 사상감정을 집약적으로 구가하는 뜨거운 찬가로 된다.

정말로 리인모동지는 자신의 인생체험을 통해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계심으로 하여 우

리는 언제나 이기며 필승불패한다는것을 절절하게 노래하여 심장과 심장들에 크나큰 신심과 자부심을 안겨주었다.

저는 일편단심의 귀감인 리인모동지의 산 모범을 적극 따라배워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결전의 길로》를 창작하여 높이 부르며 결사의 고지를 달리던 그 정신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드는 길에서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나가겠다.

시인 **석광희**

편 지

오피천

달아 네가 읽어드리렴

넓으나 넓은
서창벌 아득히
미끄러지던 달이
파수발에 앉아 쉬더니
갈길을 잊은듯 설 곳을 찾는듯
자정이 넘어
정우네 합숙창가에 기웃거리려

한자를 골라 쓰고는
달리던 연필을 놓고
생각의 바다를 헤치다가는
다시 연필을 들어 쓰고 또 쓰는
정우의 편지를 읽으려
달아 너 창가에 내렸느냐

정우의 마음 달이 알고
달의 마음 정우가 아는가
꿈결에도 그리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삼가 올릴 편지를
쓰고 다듬는 정우
은실금실 실실히 내리는
달빛으로 새기고싶은 마음
달아 너는 알겠지
친애하는 그이께서 이밤 어디 계시나

그밤 너도 보았지
그이께서 내 차의 운전칸에 올라
삶의 궤도를 밝혀주시며
내 인생에
못잊을 정을 남긴 그이
달아 네가 알지

하늘중천 둥근달을 바라보니
환히 웃으시던 그이 모습 더욱 그리워
한없이 달려가는 마음
달아 알려다오
그이께서 이밤 어디 계시나

눈을 감으면
오색기발 필력이는 대오앞에
수수한 회색 작업복에
수수한 모자를 쓰시고
공사장에 들어 서시던

그이 모습 삼삼히 안겨오고

귀를 강구면
찬비 뿌리던 봄날
허리치는 물창에 들어서시여
결차게 일을 해제끼시던
그이의 숨결소리 들려와
아 꿈에도 못잊을
그날의 룡성도로확장공사장

나도 수령님의 뜻을 꽃피워가는
건설자의 한사람이라시며
이 땅에 대건설의
첫 서사시를 새기신
력사의 일터

손수 삽을 드시여
탄무지를 담아주시며
나도 근로하는 인민의 아들이라고
그리도 겸허히 자신을 낮추시던
못잊을 일터

어찌 잊으랴
하루도 아닌 긴긴 예순날
불도젤을 함께 물며
땀흘리던 나날

아 날이 가고
달이 가도 못잊을 사연
달아, 너 이밤
내 가슴에 다시 되새겨주는거나

《정우동무는 제대되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겠소?》
공사를 끝내고 떠나기 전날
다정히 물으시던 그이

생각이 짧았나 달밤이 짧았나
무슨 일을 해야
그이께 기쁨드릴까
달밝은 그날의 밤
내 심연의 바다를 헤치는데

정우의 심증을 헤아려보시듯

생각깊이 거니시던 그이
《동무의 고향이
서창벌이라고 했지
그곳은 내가 잘 아는곳이요

고향이 서창벌이라면
나는 황해곡창을 갈아제끼는
농촌기계화초병이 되겠소!

서창벌은
아버이수령님께서
농민들이 보내온 애국미로
첫 농기계임경소를 무어주신
뜻깊은곳이요
그곳에 가서
수령님 뜻을 꽃피우는
기계화초병이 되오!》

전사가 가야 할
참된 삶의 길을 밝혀주시는 그이
전사가 가꾸고 꽃피우고싶던
행복의 터전
희망의 언덕을 가리켜주시는 그이

《제대되어 그곳에 가거든
인차 소식을 알리오...
그리고 일하다가
애로가 제기되면
편지를 하오...

우리 약속합시다
나하고 함께
서창벌의 풍년농사를 지어
아버이수령님께 기쁨드리자는것을
알겠소 정우동무!》...

아 못잊을 그날의 약속
그 약속 지켜
이밤
정우 편지를 쓰는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
룡성도로확장공사장의
이 꼬마전사는
그날의 약속을 지켜
서창벌로 달려왔습니다!》

아, 기쁨은 벌써
그이 계신 창가로 달려가
문을 두드리는듯
창가에 멎어있던 달도
이 소식 어서 전하러
미끄러져 구름바다를 달리는데

하지만 정우는 차마
편지를 부치지 못했다
어디선가
기쁨의 파도가 밀려가는
심장 한복판에서 속삭임소리 들려와서

아 편지
편지란 무엇인가
소식을 알리는것
그것이 편지던가

그이께 드릴 편지는
안부의 글월이 아니라
이룩한 일의 성과로
기쁨 드리는것

그이께 드릴
편지의 의미는
바로 이러한것

바로 그 기쁨
그 편지가
그이께 다진
약속의 의리이며
전사의 본분

이 본분
이 의리 다했을 때
그이와 한 약속을
지킨것으로 되리

아 보내지 못한 편지여
친애하는 그이께
올리지 못한 글월이여
너 어느때야 그이품에 닿으려나
정우의 가슴에 남아
위훈의 꿈을 피워주는 편지여!

달아 이 심정 전해주렴

서창벌 한가운데
뿌리내린 한그루 나무
비바람에 실하게도 자라

이제는 어언 스무해
년륜을 새긴 나무

실뽀리 내리울 땀
애꿎던 정우
이제는 마을의 거목과 함께
동갑을 겨루는 장년나이

빨간 견장 달고
배낭메고 올 때는
새파란 총각
오늘은 구레나룻 시꺼먼
세 아이 아버지

서창벌에 뿌리내렸다고
첫 편지 쓰던 그밤부터
이십여년 세월
소식 전하는 편지보다
실천으로 기쁨 드리리라

그것이
그의 신념이었고
그 신념으로 서창벌에
기계화를 꽃피워온 정우

백년 홍수에도 끄떡없게
수십리 배수로를 짜고
불안전담을 옥답으로 만든 이야기는
그 어느해의 이야기며
그 어느해의 자랑이던가

해놓은 일 많고
또 자랑도 많아
이제는 그에게 편지를 올려야지
생각은 끝이 없었던만
무언가 부족한것 같아
다시 미루기를 그 몇번

이제 무엇을 더해야
그에게 더 큰 기쁨 드릴까
그렇지 그것이지 그거야
하루에도 두번씩 밀려오고 밀려가는
서해의 밀물을 막는것이지

조상대대 놓고있던
서강쪽 십리 갈바다를
기름진 새 땅으로
네귀번씩 구역포전으로 정리하는 일

땅이 열기전에 끝내고
하루라도 한시라도
그에게 편지를 써야지
허나 어찌랴
농장일에 나왔던 불도젤
다른 공사장에 가고 없으니

손 털고 나왔어 있을수 없는
정우의 성미
그리하여 수리분조원들과
설계도를 그리고
짜고 두드려 맞춘것이
프락토프이마에 보습날을 붙인
온 마을이 이름지어 부르는
프락토프식불도젤

신바람 났구나
정우가 만든 새 기계
서창벌 한구석의
놓고있던 땅을 옥답으로 펼쳐
기계화의 장훈을 부를 돌격전에

그런데 어찌랴
마감고비...
감탕속에 숨어있던 바위에 걸려
서창벌의 외아들 보습날이
그만 꺾어지고말았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가
부서진 가름대에 늘어붙어
담배를 붙여뗀 정우
점우의 머리위로
어제날의 그 달이
다시 또 미끄러져 흘러라

달!
정우의 밤동무 저 둥근달
달이 정우마음 이끄는가
정우의 가슴에
못견디게 찾아드는 그리움
친애하는 그이의 영상

이럴 때
친애하는 그이께서
곁에 있어주셨으면...

아 그날도 이밤처럼
이밤처럼 달이 밝았지
룡성도로확장공사장의 심장부인
간선공사를 장마전에 끝내자고
돌격전을 벌리며
불도젤을 몰아 달리던 그밤

어쩐 일이었더냐
그 무쇠삽날이
바위에 부딪쳐
부분품이 마사지고말았으니

이 일을
이 일을 그이께서 아시면...

내 무슨 일을 저질렀담

운전대를 붙잡고
어쩔바를 모를 때
가까이 다가오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꼬마동무!
이 어인 일이요?
고장났다고 맥을 놓고있으면
누가 고쳐준다오
이리 내려오오》

기름묻은 기계를
뜯어보고 쓸어보시며
《안되겠군
새 부분품을 깎아와야지》

부분품의 크기며
치수를 일일이
수첩의 갈피에 적으시고는
《운전수동무 기다리오
내 인차 갔다올테니
그동안 꼭 쉬라구》

기름묻은 부분품을
어깨에 메시고
자초지종 알길 없이
어디론가 달려가신 그이

아 마음 조이며 얼마나
그이 오시길 기다렸더냐
헌데 그이 돌아오신것은
그 어느 농가집 처마밑에서
첫닭의 울음소리 울려오던 새벽

《자, 정우동무
새 부속을 깎아왔소
잘 맞겠는지》

깎고 다듬어
거울같이 반짝이는 부분품
안아보고 쓸어보며
그만에야 가슴에서
흐느낌인듯 웃음인듯
터치고만 목소리

《잘 맞습니다!》
《딱 맞습니다!》

조용히 내 등을 쓰다듬으시며
그리도 다정하게
그이 하시던 말씀
《정우동무!
일을 하느라면 실수도 있고
기계에 고장도 나는것이지
어찌 못하지 않는 애로가
있을수 없겠소

앞으로 제대되어
일하다 애로가 있을 땐
나를 찾소
아무렴 힘든 일도
함께 고심하면 풀리는 법이요》

크게 웃으시며
그리도 소탈하게
주눅이 들가보아
어려워할가보아
뜨겁게 하시던 말씀...

아 못잊을
못잊을 그날처럼
친애하는 그이의 영상
다시 뵈울수 없느나

달아
그날처럼
운전대의 차창에 내려앉아
못잊을 사연 속삭여주는
달아 내 마음의 둥근달아

이내 심정
그이께 전해주렴
그이 계신 창가에
내 마음 실어가다오

애로가 있을 때면
편지를 하라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사무치게 그리운 이 심정
달아, 네가 전해주렴!

두번째 편지

그리하여 이밤
정우 편지를 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첫번째 편지를 쓰던
그밤으로부터 긴 세월이 지난
이밤

달빛 흘러드는
두리상에 앉아
한자 또 한자
정우 편지를 쓴다

농장에 풍년호 한대에
프락포르 세대만 더 있으면
게다가 자동차가 두대만 끼우면
신선농사 지어보겠는데...
언젠가 관리위원장아바이 한 말
가슴에 되새기며

또 언젠가
우리 농장에 빠스 두대하고
애기차 석대만 있으면
일하러 갈 때도 빠스타고 나들고
보모들이 아이들 젖먹이려
포전길 나들지 않아도 되겠다던
유치원 원장 웃으며 하던 말

아, 농장원들의 그 말
모두 다 담아
한자를 쓰고 또 한자를 쓰는
정우

쓰는 열정
올리는 진정에
시간 가는줄 몰랐던가
창가엔 벌써 밝게 웃는 하현달
과수밭너머 벌써 반짝이는 새벽

다 쓴 편지
한자한자 정히 읽어보는
정우의 가슴엔
우렷이 안겨오는 그이의 영상

《애로가 있거든
편지를 하라구 했더니
꼬마동무가 편지를 보내왔군》

반갑게 읽어주시며
기쁘시여
정우 이름 다시 부르시며
환히 웃으실 그이 모습

어느새 알았는지
잠에서 깨어난 안해
어깨에 매달리는 딸
딸을 불러 봉투 곁에 만들고
안해를 불러
참쌀 갈아 풀 쭉고...

봉투의 마감뚜껑을 덮으니

아, 왜서인가
왜서인지
긴긴밤의 긴장감이 사라지고
길가의 버드나무 실가지처럼
마구 설레이는 가슴

왜서일가
내 왜서 진정을 못할가
편지를 가슴에 안으니
천근 무쇠덩이를
가슴에 올려놓은듯
가슴은 답답해지고
심장은 터질듯

순간
심장이 답답한 문을 차고
설레이는 갈피를 가르며
웨치는 소리
《정우야, 네 무슨 일을》

다시금다시금
온몸을 떨며
심장이 분출하는 소리
《정우야... 정우야...》

이 모든것
하루밤에 있는 일
하나 이밤
몇백 밤이 흘러간듯
몽롱한 꿈속에서 깨어난듯
정신을 가다듬는 정우

그렇다
애로가 있어
편지를 올리는것이
그이와 한 약속을
지키는것이겠는가

이 땅 이 천지에
그이께서 만나주신 전사
천이라 만이라
그 천이 되고 만이 되는
수만 전사 모두가
애로가 있을 때마다
편지를 올린다면...

생각만해도
한생애 다 씻지 못할 일을 친듯
손을 내미는 전사보다
제힘으로 해내는 사람
그 의리가
전사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용서하십시오
저의 이 불찰을
어찌 저의 한생에
씻을수 있겠습니까?

흐느끼는 어깨
들먹이는 가슴
창가에 걸린
하얀 새벽달도

함께 흐느끼는듯

아, 두번을 다시 보내지 못한
사연깊은 편지여
더 어느때야 그이 품에 닿으려나
언젠가 썼던
첫번째 편지와 함께
정우의 가슴에 남아
전사의 의리를 속삭이는 글월이여!

《그래, 찾았던말이지》

구월산 아흔아홉 굽이를 병풍처럼 두른
그리 크지 않은 도시
서해지구농업일군협의회를 마친
참가자들도 다 돌아가고
미루나무숲에서 재롱대던 새들도
깃에 든 고요한 저녁

그 누구를 기다리시는가
보시던 두툼한 문건우에
달리시던 연필을 놓으시고
다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다시 또 창가로 다가가시고

은을 내는 기계화의 동음소리
농촌테제의 빗발아래
농민들도 포전들도
달라지는 오늘

서해의 놀고있던 진펄을
옥토벌로 만들리라 발기해나선
서창벌의 기계화초병
정우라는 그의 이름 반가우시여
몇번이고 외워보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스무해전
룡성도로확장공사장에서 함께 일한
그 꼬마전사가 아닌가 알아보라고
그때의 사진까지 주시며
몸소 한 일군을 파견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즐거운 추억에 잠기실수록
대견히도 떠오르는 그날의 꼬마전사.
사회주의농촌테제관철의 앞장에 선
뜸뜸한 그의 모습

어서빨리 만나고싶으신
그이의 마음을 흔들며
조용히 들어서는 일군

달려나가시여
그의 손을 마주 잡으시며
그 꼬마전사가 맞다는
일군의 보고를 들으시며
환히 웃으시는 지도자동지

얼마나 심중에 찾으셨으면
그리도 기뻐하시랴
일군의 얼굴에도 환한 웃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이 사진이 큰 은을 냈습니다》

《그래 맞단말이지
어디 다시 보기도
어제날의 불도젤운전수
그 꼬마전사를!》

기쁘시여
병사시절 다름없이
농촌기계화초병이 되어
그날의 약속을 지켜가는
그 전사가 기특해
보고 또 보시는 그날의 사진

기쁘시여
못내 기쁘시여
걱정을 못감추시는
그이를 우러르는 일군
그 가슴엔 오늘아침
새벽에 있었던 일이
화면처럼 회오리쳐왔다

...아침이면 열리게 될
서해지구농업일군 협의회
회의에 내놓으실 문건들에
심혼을 다 기울이시며
새벽을 맞으신 그이

밀물 썰물에 갈새만이 올던
백정보 진펄을 옥답으로 풀고
기계화포전으로 만들었다는
서창벌 기계화초병에 대한 이야기
뜻밖이신듯
자료에 새겨진 이름 《정우》
그 이름밑에 밑줄 그으시고
이윽도록 새겨보시더니
일군을 가까이 불러 하시는 말씀

《이 자료에 난 동무가
아마 내가 잊지 못하는
그 동무가 틀림없는것 같소
애로가 있으면 함께 풀어
서창벌의 풍년농사를 짓자고
오래전에 약속한 동무요

그때는 애어린 꼬마전사였는데
이젠 몰라보게 변했을게요
동무가 내 대신 찾아봐주요》

간곡하신
그 말씀 받아안고
급히 떠나려는데

《가만
이제는 스무해 세월이 흘러
얼굴도 이름도 잘 모를수 있는데
이렇게 합시다
나에게 그 동무와 찍은
사진이 한장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나가서 알아보요》

그러시고는 색바랜 사진 한장을
일군에게 주시며
뜨겁게 하시던 말씀
《바로 이 동무요!》

세월이 백년이 흘러도
놓아주지 않으실듯
그의 어깨를 짚으시고 찍은
잊지 못할 사진

《그러면 이 동무가
그렇게도 잊지 못하시는
그 꼬마전사입니까?》

《그렇소!
그 동무가 내 옆자리를
어떻게 앉아냈는지 아요?》
일군을 돌아보시며
어제런듯 펼쳐놓으시는 이야기

그날은
공사를 앞당겨 끝내고
군인들과 헤어지는 날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
헤어져도 잊지 말자고
기념사진을 찍던 날

부디 만류하시는
친애하는 그이를
가운데자리에 모시고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
뒤에서 술렁이는 소리

정우가
친애하는 그이옆에 앉은
학생옷을 잡아당기며
자리를 바꾸자고
학생은 자리를 양보 안하겠다고
싱겁이질에
종시 끝나지 않은 싱겁이 《짜웁》
웃음속에 지켜보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같이 있는 우리야
다른 기회도 있지 않는가
학생동무가 양보하라고
그리고 군복 입은 꼬마전사를
옆자리에 앉히고 찍은
못잊을 사진

그 못잊을 이야기로 엮어진
뜻깊은 사진이었으니
그 사진으로 찾은 전사
얼마나 반가우시랴

기쁨을 못감추시며
그이 하시는 말씀
《그래 찾았던말이지
찾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나가서 만나봅시다》

날도 저물고
길도 좋지 않다고
만류하기를 그 몇번
허나 서창벌의 길세는 내가 잘 안다고
예서 멀지 않으니
여기까지 왔다가 그냥 가면

그가 얼마나 서운해하겠는가고
길차비를 서두르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자, 어서 떠납시다!》

서창벌에 쓴 편지

네 활개를 휘저으며
정우가 달려간다
물아가던 벼수확기에서
성큼 뛰어내려
방금 베어놓힌
벼단들을 건너뛰어

뒤엎킨 콩포기를 헤쳐넘는
정우의 바지가랭이에서
벼메뚜기 놀라 뛰고
머리우에서는 빙빙
풍년 학이 날아라

그이께서 날 부르시다니
친애하는 그이께서...
보름달 비긴 동쪽에 올라서니
환히 웃으시는 모습
손저어 부르시는 영상

분명쿠나 그 손길
으악스레 불도젤 몰아가시며
공사를 부쩍 다그치자고
힘있게 호소하시며
진두지휘하시던 그 손길

분명쿠나 그 모습
목고를 하다가
죽었다는 사람 못보았다시며
손수 메시던 넓으신 그 어깨

서창벌 넓은 벌로
마주 걸어오시여
정우를 팔벌려 안아주시는
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정우동무가 분명쿠만
룡성도로확장공사장을 들었다놓던
불도젤 꼬마운전수
동무가 보고싶어서
내 이렇게 들렸소!》

귀밑머리 굵실굵실 중년의 사나이
어제날 숨털도 돌지 않은
그 자태라곤 볼수 없는
농촌의 미더운 기계화초병

대견하시여
그의 등을 다정히 짊으시고
《벌이 좋구만
저 번듯한 규격포전우로
벼수확기가 달리고...

내 언젠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이 서창벌을 찾은적이 있소
그때는 이렇지 못했소》

그이의 말씀을
가슴흐뭇이 듣고있던
농장의 관리위원장
정우를 이끌어 그이앞에 세워주며
정우의 노력이 컸다고
자랑삼아 말씀올리는데
못내 기쁘시여 그이께선
다시 말씀을 이으시여라

《그러니 애로인들 얼마나 많았겠소
참, 사람두 편지할게지
애로가 있으면 함께 풀며
풍년농사 짓자고
우리 오래전에 약속하지 않았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참고 가슴속에 갖췄던
그 걱정을 터치며
그이 넓은 품에 얼굴을 묻는 정우

《나는 기다렸소
언젠가 편지를 할텐데 하고...
그래 그렇게도 무정히
약속을 어기기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사실은...》

《내 다 아오
그러나 생각해보았소
편지를 쓰는 자식보다
편지를 기다리는 부모의
그 마음을
내 언젠가 초소에 가서

전사들에게 집에 편지하는가 물으니
잘하지 않는다고 하더군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부모들이 얼마나 기다리겠는가
편지를 자주 하라고 했소

정우동무
동무에게도 아들이 있소?
있다? 군대에 나갔다?
그래 편지가 자주 오오?

잘 안온다
거 보라구
아버지 어머니들은
안타깝게 기다리는걸》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저의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이의 깊은 심중의 뜻을 새길수록
가슴 조여지는 정우

《그래서 내 이렇게
동무를 찾아오지 않았소
스무해 동안 많은 애로를 푸느라
고생인들 얼마나 많았겠소
그 수고를 풍년열매로 익혔구만

동무는 나에게 쓰는 편지를
여기 대지에다 새겼소
나에게는 지금
저 한이삭 저 알찬 열매 한알한알이
동무가 20년 동안 마음속에 쓴
편지의 글줄같이 보이오

내 오기를 잘했소
동무도 만나보고
동무가 서창벌에 쓴
편지도 읽고...》

전사가 써 놓고도
부치지 않은 편지
그 마음 헤아리시여
설레이는 풍년나락에서
편지의 구절구절을 읽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저 설레는 이삭의 억만 나락들을
정우의 숨은 노력의 열매라고
어제는 군복입은 전사
친구를 만나 기뻐했는데
오늘은 사회주의 농촌테세관찰에 앞장선
숨은 영웅을 만나 기쁘다고
이름없는 농장별

수수한 기계화초병을
생의 한끝까지 빛내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오, 말하라
사랑과 의리의 역사를 새겨온
조선혁명의 력사여
사랑이란 무엇이고
의리란 무엇인가

지도자가 있어
전사가 있고
지도자의 믿음 있어
전사의 보답이 있나니

전사의 한생은
지도자의 믿음을
마음속에 정히 심고
길길이 가꾸는것 아니더냐

위대한 약속의
위대한 산 모범을
여기 서창벌에 펼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여!

지도자와 인민
수령과 전사간에 맺어지는 약속
그것은
사랑과 충성의 서사시

그 서사시가
여기 서창벌에
만풍의 나락으로 수놓아지고
위대한 농촌테세의 빛나는 열매로 무르익었나니

달아 네가 읽어다오
하루도 아닌 십년을
십년도 아닌 이십년을
전사를 찾아
전사에게 기울이신
령도자의 위대한 사랑을

그것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아버이로
오라버님으로
스스럼없이 소원을 담아 편지를 올리고
효자로 효녀로 한생을 다하는 우리 인민

우리 인민보다 더 좋은 인민
참된 인민은 세상에 없다시며
친히 사랑의 회답편지도 보내시고
하늘끝이라도 찾아가시여

안아주시고 빛내주시는
위대한 령도자의 력사

사랑은 믿음을 낳고
믿음은 충신을 낳는
위대한 령도자의
인간주체의 이 원리

아 위대한 수령의

그 좌우명의 한페지가
여기 서창벌가득
서사시로 수놓아졌으니

달아 이밤이 지새도록
네가 읽어다오
세월이 다하도록 받아외우며
후대들도 길이 이 노래 부르도록!

믿 음

홍성두

높뛰는 심장으로 받아안았습니다
우리 기자, 언론인들에게
친애하는 그이 보내주신 서한
그것은 다만 글발이 아닙니다

당과 영원히 운명을 같이하는
참된 문필전사, 사상전선의 견결한 투사로
그이 서한에서 불러주신 믿음이
혈관에 툭툭 피로 뿜니다

피가 끓어 심장이 뛸니까
심장이 뛰여 피가 끓습니까
아닙니다, 친애하는 그이 주신 믿음이 있어
이리도 나의 심장은 피끓어번지나니

설사 백만의 원쑤가 덤벼든대도
놀랍지 않고 두렵지 않을
그 믿음은 나의 신념입니다

낮에 밤을 이어 가고있는 취재길
그길에 설사 쓰러진대도
충성의 불대만은 놓지 아니할
그 믿음은 나의 의지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한
혁명의 필봉높이
당의 사상진지를 지켜선 전사
나의 심장은 멎지 않을것입니다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한
주체의 사회주의를 받들어
나의 피는 뜨겁게만 끓어번지리니

높뛰는 심장으로 받아안았습니다
친애하는 그이의 뜻깊은 서한
그것은 다만 글발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가사

자나깨나 마음속에 모시고 사네

서진명

아침의 해를 봐도 마음 달리네
저녁의 별을 봐도 마음 달리네
계시는곳 어딘지 안녕하신지
가슴에 차넘치네 그이의 생각

비오면 비맞으며 어디 가실가
눈오면 눈맞으며 어디 가실가

인민의 행복 위해 가고가시는
눈앞에 어려오네 그이의 모습

하루도 못잊어 그 품을 찾네
꿈결에도 못잊어 달려가 안기네
인민의 희망이신 지도자동지
자나깨나 마음속에 모시고 사네

인생과 운명

문상봉

인간생활이라는 복잡다단한 물결이 지구촌의 첫 계곡을 두드린 때로부터 세월은 아득하게 흘렀다.

삶과 죽음, 번영과 몰락의 끝없는 교차속에 각이 한 기복을 이루면서 수수천년 사뭇쳐온 생활의 흐름, 이 세상에 무수한 파문들과 형형색색의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21세기에로 굽이쳐가는 인생의 대하!

세상만사에 부대끼고 풍상고초에 시달린 그 기슭과 굽이굽이를 잠깐 더듬어보자.

어느 기슭이나 인간의 회로애락과 생사흥망에 대한 자취가 천태만상으로 숨배였고 어느 굽이에나 인생과 운명문제에 대한 탐구와 모대김이 제나름의 흔적으로 어려있다.

무지와 몽매의 질은 어둠속에서, 착취와 억압의 숨가쁜 협곡들에서 허우적이고 모지름을 쓰면서도 사람들은 일루의 희망만을 안고살아왔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보람차고 값높은 삶을 누리면서 영생의 권리를 향유하는것이였다. 인간생활이 기적을 낳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루어질수없는 행운이였다. 하여 사람들은 하느님이나 신이라는 초현실적인 우상에게 모든것을 기탁했었다.

얼마나 많은 《구세주》들이 인류의 머리우에 군림하여 위세와 전지전능을 떨쳤던가? 그들이 설교하고 약속한 천당이나 극락세계는 또 얼마나 현란한 삶의 극치였으며 영생의 보금자리였던가?

하지만 그것들은 인간을 현혹시키는 신기루에 불과했다. 세월의 고삭은 이끼까지 들추며 아무리 눈여겨 살피어도 천당이나 극락세계의 자취와 흔적은 없었다. 하느님도 임금도 영웅도 역초장생의 어느 한사람에게나마 기적을 안겨주지 못하였던것이다.

사람들은 몇몇 우상과 불한당에 의하여 참으로 오랜 세월 인생을 짓밟히웠고 운명을 회롱당하였다. 그토록 혼신을 다해 빌고 개여올렸건만 못신들이 《하사》한것은 무지와 몽매의 암흑세계였고 력대 위정자들이 《선심》쓴것은 노예와 굴종의 쇠고랑 뿐이였다.

세상살이의 주인이 못되었던 근로대중은 로동 그 자체가 신성한것임에도 불구하고 인생과 운명개척에 무력하였으며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에서 벗어날수가 없었다.

어찌 그뿐이라. 무시로 감행되는 압제자들의 정복전쟁과 조석으로 뒤엎어지는 통치배들의 권력쟁탈에 백성들은 피해자로 희생물로 되여야 했다.

문노니 인류사에 전횡과 감언리설, 위선과 약속강식의 제물로 되여 한생을 속절없이 마친자 그 일

마이나? 세월의 저쪽 기슭과 굽이에서 처절씩이는 물결소리가 그네들이 남긴 탄식과 원망의 메아리가 정녕 아니란말인가.

압박이 있는곳에는 반항이 있고 반항이 있는곳에서는 혁명이 일어나기마련이다.

인민은 생존의 초보적인 권리마저 빼앗은 지배계급에게 반기를 들고 분연히 일떠섰다. 고대 스파르타쿠스노예폭동과 중세기의 빈번한 농민전쟁들, 근대의 빠리쑤문, 사회주의10월혁명...

지구촌에 출현한 사회주의는 꺼져가던 인류의 희망에 활력을 주었다. 사람들은 무지와 몽매의 세기적인 장막을 헤치고 자기들에게 차려진 새 세상을 꿈속처럼 둘러보았다. 기적은 자주적인 인간생활 그자체에서 태동하고있었던것이다.

맑은 아침의 나라 조선에는 성지로 널리 알려진 백두산이 창공에 높이 솟아 위용펼치고있다. 이 신령스러운 골안에서 시원히 열린 참신하고 깨끗한 생활의 물결이 인생의 대하를 이루면서부터 현실적으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백두의 혁명정신, 주체라고 부르는 이 줄기찬 흐름은 인간세상을 삼시에 정화시키면서 사람들을 깨우쳐 자기자신을 알게 하고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지위를 확고하게 만들었다. 뿐만아니라 그 역할을 다하도록 대중을 불러일으켰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이다. 사람답게 살려면 자주성을 빼앗기지 말라!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를 보라, 사람을 위해 이 세상 모든것이 있다!

사람은 자기 운영의 주인이다.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

주체의 보검으로 온 누리를 평정케 하는 이 위대한 생활철리는 그 어느 《성서》나 《경전》에도 없는것이였으나 이 세상에 거대한 파문들을 일으켰고 경이적인 힘으로 인생의 대하를 가속화시키였다. 주체위업의 거세찬 흐름은 세기적인 변혁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동방일각에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우뚝 솟구쳐올렸다.

온 세상 사람들이 사회주의 참모습이라고 경탄을 금치 못해하는 조선! 여기서는 인류의 념원과 리상이 현실로 꽃피나고있다. 여기서 슬기롭고 용감하고 근면한 인민대중이 하느님도 되고 임금도 되고 영웅도 되여 삶의 보람찬 활무대, 영생의 락원을 펼쳐놓았던것이다.

오늘날 주체의 무궁무진한 생활력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수 없는 시대적주류로 되였다.

이 장엄하고 거족적인 흐름은 인류사상 류례없는 비렬한 배신과 변절 그리고 수명이 다된 지배세력의 파멸치한 압력과 도전을 질풍노도로 쳐갈기면서 희망의 바다, 공산주의를 향해 도도히 굽이치고 있다.

그지없이 황홀하고 아름다운 생활의 화폭들이 시대의 물결을 타고 흘러간다. 그것은 억만년 세월이 가도 마를줄 모르는 주체의 흐름, 무한대의 행복을 펼쳐든 사랑의 요람이었다.

한없이 은혜롭고 따스한 그 품에서 장중한 시대의 찬가가 온 누리에 울려 퍼진다.

사나운 폭풍도 쳐몰아내고
신념을 안겨준 **김정일**동지
당신이 없으면 우리도 없고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

복받은 대지위의 모든 만물이 태양의 거룩함에 감사드리듯 우리 인민이 심장을 합쳐 부르는 전인민적송가!

인류에게 인생의 휘황찬란한 전망을 열어주시고 우리모두의 운명을 한품에 안아 지켜주며 빛내여주시는 향도의 태양을 우러러 터치는 신념과 의지의 메아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우리 인민들이 김정일동지가 없으면 조국도 없다는 노래를 부르고있는데 그 노래가 좋습니다. 노래에도 있는바와 같이 김정일동지가 없으면 동무들도 없고 사회주의조국도 없습니다.》

세월의 만고풍상을 다 겪으시며 주체의 시원을 열어놓으신 어버이수령님,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신 수령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그 말씀은 사회주의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오늘의 시대적요구와 우리 혁명의 전도를 깊이 헤아리신 뜻깊은 말씀이었다.

인간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성스러운 위업은 대를 이어 끝까지 수행해야 할 혁명위업이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역사적경험과 오늘의 격변하는 세계정세는 이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혁명위업의 계승문제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전면적승리로 향도하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우리 인민들은 오래전부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혁명의 수위에 높이 우러러모시고 끝없이 경모하여왔으며 무한히 숭배하고있다. 그이께서는 인민의 수령이 지녀야 할 모든 고결한 품모를 최고의 높이에서 지니신 혁명과 건설의 참다운 지도자이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간고한 항일혁명의

결전장에서 탄생하시어 격동적인 사변으로 충만된 환경에서 성장하시였다. 두차례의 치렬한 반제전쟁, 심각한 사회혁명, 고난 많던 새 사회건설의 끊임없는 폭풍속에서 언제나 인민들과 곁을 함께 나누시고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적복무로 심장을 불태워오신 《군로신일》의 력사였다.

시대의 방향타를 틀어쥐시고 비상한 예지와 무비의 담력으로 주체의 격류를 이끄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이어받으신 고결한 품성으로 인생의 대하를 사랑과 믿음의 서사시로 수놓아가시는 령도예술의 영재! 한번 그 품에 안기면 떠나고싶지 않고 슬하를 잠시 떠나도 꿈속에서 달려가 안기는 운명의 품!

...제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큰 사랑도 있는가고
사랑밖에 밀려났던 이몸
70고개를 넘어선 오늘에야
당신의 사랑이 무엇인지

...

그래서 쉽게 외울수 없는 사랑
그래서 가볍게 받을수 없는 사랑
아,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여
열렬한 사랑의 인간 당신은
위대한 사랑의 화신이시옵니다

글쎄마다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이 헌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크나큰 사랑을 받아안고 지옥행에서 락원행으로 인생궤도를 옮긴 리인모동지가 격조높이 노래한것이다.

남쪽의 차디찬 감방에서 수십년동안 인간세상과 격폐당하고 갇은 악형과 굶주림속에 떨던 그였었다. 《전향서》에 이름 석자만 쓰면 수난을 당하지 않았을수도 있었다. 그러나 인간답게 살아본 해방후 5년동안의 참된 생활과 결별할수 없었다. 조선로동당원이라는 신성한 이름을 더럽힐수 없었던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기나긴 나날 옥중고초를 겪으면서도 끝끝내 공산주의리념을 지킨 그의 신념과 의지를 무엇보다도 값높이 사주시였다.

그를 신념과 의지의 화신으로 온 세상에 내세워주시고 몸소 송환투쟁정형을 알아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전세계적범위로 이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시였다. 무수한 통신들과 보도들, 언어와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의 집회와 시위들이 세상천지를 뒤덮었다. 그이께서 지새신 밤은 또 얼마인가!

동서고금의 어느 력사갈피를 들춰보아도 이런 사랑의 전설은 없다. 하기에 리인모동지는 심혼의 뜨거운것을 모두 기울여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있다.

...하기에 내 오늘
운명에 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저의 운명은 자애로운 당신
민족과 인류의 운명도 위대한 당신

저는 심장으로 말합니다
거룩하신 **김정일**, 당신은
진정 운명의 《신》 이십니다
둘도 없는 우리 운명의 구세주이십니다

70여년간의 인생체험과 칠성판에 올랐던 자신의
운명곡절을 통하여 또하나의 금강석같은 신념과
의지로 굳어진 이 웨침! 심장의 분화구에서 불화산
처럼 터져오른 삶의 찬가!

사람들이여, 무심히 읽지 마시라, 무심히 읊조리
지 마시라.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라...

리인모동지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삼가 올린
이 충성의 헌시는 이 나라 인민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효성의 샘줄기이기도 하다.

대안의 로동계급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
제에 관한 테제》** 발표 30돐을 맞는 청산리 농장
원들, 조선중앙통신사 5국 2세포의 당원들과 조선
문학창작사의 작가들, 박용철의 8형제 군관들과 조
선인민경비대원들, 청소년학생들과 어린이들...

물방울들이 모여서 시내를 이루고 시내가 모여서
대하를 이룬다. 물방울에 또하나의 물방울이 합쳐
져 더 큰 하나를 이루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하나의 물방울에서
우주를 굽어살피신다. 미시세계로부터 거시세계로,
거시세계에서 미시세계로...

지난해 3월 미제와 그 추종자들의 《핵사찰》 소
동으로 이 땅에 일촉즉발의 전쟁위험이 닥쳐왔을
때였다.

최고사령부의 작전대앞에서 어느 한 처녀의 기특
한 공산주의소행자료를 보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
지께서는 급히 일군들을 부르시였다. 아주 훌륭한
동무라고 신문과 방송으로 널리 소개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감사사를 전해달라고 부탁하시였다. 그러시
고는 은정어린 선물까지 보내주시였다.

각급 당조직을 통하여 소행자료를 더 많이 제출
하라는 포치까지 반자 일군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초를 닦는 긴장한 시각에 군사와는 전혀 다른
사업이 전당적으로 벌어지다니?

그때로부터 불과 몇달후에 전국공산주의미풍선
구자대회가 열리였다. 거기서 한결같이 울려나오는
목소리를 듣고서야 일군들은 무릎을 쳤던것이다.

《...정녕 우리모두가 심장에 지닌 혁명정신과 신
념뿐아니라 온 사회에 꽃피나는 미풍도 위대한 사
상과 숭고한 인간애를 지니시고 인덕정치를 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손길에서 심어지고 꽃피난
일심단결의 화폭임을 저희들은 당당히 자랑합니
다.》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

룬 일심단결! 이것은 천만대군이나 원자탄보다 더
위력있는, 우리만이 가질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무
기였다. 원썬들은 우리의 이 무기앞에서 전율하였
던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신뢰,
이것은 령도자에게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러
는 더없이 아름답고 숭고한 사상감정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
인 믿음, 이것은 령도자가 이룩한 업적의 영원불멸
성을 깊이 체득한데 기초한 확고한 신념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일편단
심, 이것은 령도자를 따라나갈 때 자기들의 미래를
빛내일수 있다는 드림없는 의지이다.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은 인간의 가치를 규정해
주는 가장 고귀한 삶이다. 육체적생명은 끝이 있어도
정치적생명에는 한계가 없다. 하기에 인간에게 있
어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보살펴주는것보다 더
은혜로운 사랑은 없는것이다.

부모도 자연도 줄수 없는 정치적생명, 바로 이 영
생의 권리를 안겨주시고 빛내여주시는분이 우리의
자애론 아버지이시며 인류해방의 구성이신 친애하
는 **김정일** 동지이시다. 그이의 이렇듯 은혜로운 품
이 있기에 혁명렬사들의 모습이 영생의 푸른 언덕
에서 별처럼 빛나고 그이의 혁명전사들은 영원한
청춘으로 살고있다.

진정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는 인간사랑의
화신이시며 우리 민족과 인류의 구세주이시다.

남조선의 도시와 마을들에서 힘차게 울리는 향도
성의 노래! 파썸과 매국이 란무하는 그속에서도 남
조선인민들은 그이를 민족과 통일의 구성으로 우러
르고있다.

지구촌 그 어디에서나 인류해방의 성스런 교과서
로 애독되는 수많은 그이의 로작들! 그이의 신념으
로 지구촌이 움직이고 그이의 의지로 력사가 뒤채
이고있는것이다.

오늘 평양은 세계사회주의와 진보적력량의 단결
의 중심으로 되였다.

이미 세계의 200여개 정당들이 수표한 평양선언
은 무엇을 말하는가.

리성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주의력량이 어떻게 제
편성되고 보강되어 미증유의 힘을 이루고있는가를
느끼며 보고있다. 그것은 미구에 거대한 해일로 떨
쳐일어나 온갖 낡은것과 력사의 오물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로씨야신문 《이즈베스찌야》 이전 기자였으며
작가인 이완 로보다는 자기 글에서 이렇게 쓰고있
다.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김정일** 동지의 리
론과 실천은 국제공산주의운동에 의하여 높이 평가
되고 인정되였다.

사람들은 그이를 오늘 세계혁명가들앞에 나서고

있는 모든 과업중에서 가장 혁명적인 과업들을 해결하시는 견결하고 자주적인 진정한 공산주의 수령으로 우러러모시고있다.

김정일동지는 조선인민뿐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진보적인민들의 희망이시다.》

물은 제뫼으로 흐르기 마련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거대한 인력에 온 세계 자주세력이 쏠리고 있다.

제국주의자들과 사회주의배신자들은 이 생활의 격류를 막아보려고 최후발악을 하고있다. 허나 그것은 연기로 태양을 가리워보려는 어리석은 망상이다.

위대한 진리의 대하가 흘러간다. 백두의 혁명정

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자랑찬 전통속에 이룰데 없이 황홀하고 아름다운 생활의 화폭들이 흘러간다.

시대의 숨결로 출렁이는 이 물결은 억만년 세월이 가도 마를줄 모르는 주체의 흐름, 무한대의 행복을 펼쳐든 삶의 요람이었다.

한없이 은혜롭고 파사론 그 품에서 장중한 시대의 송가가 온 누리에 울려 퍼진다.

...

세상이 열백번 변한다 해도
인민은 믿는다 **김정일**동지
당신이 없으면 우리도 없고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어느 비오는 날 저녁에

리 석

비가 오던 날
우산을 들고 퇴근하러
사무실문 나서려는데
문밖에서 주춤거리는 녀인

누구를 찾아왔는가 묻는 말에
당위원회에 찾아왔다가
어려워 선풍 들어서지 못했다고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듯
머뭇머뭇거리는 그 모습

아, 내 무슨 일 저질렀는가
가슴에 안고 찾아온 일
얼마나 안타까우랴
얼마나 급하면
비오는 날 저녁에 찾아왔으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피로울 때나 느닷없이 찾아와 들어서야 할
이 사무실 문턱
그리도 높았던말인가?

이 문턱이 높으면
한지붕아래서 살아야 할
어머니와 자식이
마치 남과 남이 되는것

그래서 내 생각하노니
당일군이 군중을 멀리하고
사람들앞에서 호령하고 눈을 흘기면
이 문턱은 점점 높아져
문밖엔 풀이 무성하리

그러면 어머니를 따르는
자식들의 발걸음은 뜸해지고
당위원회 사무실은
한적한 집으로 랭기가 돌려니

당위원회엔 문턱이 없어야 하리
눈감고도 쉽게 들어올수 있게
불없는 밤에도 손더듬없이
밝은 대낮처럼 웃으며 들어설수 있게

그러면 당과 군중이
남과 남이 안되리
그러면 당과 군중이
하나의 혈육이 되리

아, 당위원회 사무실엔
문턱이 없어야 하리
문턱이 없어야 하리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주제문화건설의 기본의 기본이다. 우리의 문학에서는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을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김정일

위대한 업적

인민의 념원을 담아

2. 작품을 대작이라고 하시며

우리 인민들과 세계 진보적인민들 속에서 것처럼 열렬한 환호를 불러일으키고있는 혁명영화 《조선의 별》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창작완성된 우리 시대의 명작이며 대작이다.

이 대작의 영화문학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의하여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히 창작완성될수 있었다.

1980년 2월 어느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혁명송가 《조선의 별》이 발굴되는데 대하여 알려주시면서 《조선의 별》 노래를 종자로 하여 영화를 하나 잘 만들면 당 제6차대회를 더 의의깊게 빛내일수 있을것이며 수령님께서도 기뻐하실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순간 일군들은 크나큰 감동에 휩싸였다.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이 발굴되자 온 나라는 얼마나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들끓었던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시대와 인민의 지향을 깊이 헤아리시고 혁명송가 《조선의 별》을 종자로 혁명영화를 만들데 대하여 발기하시고 영화문학창작임무를 작가들에게 맡겨주시였다.

영예로운 창작임무를 받아안은 창작가들은 크나큰 환희와 감격에 휩싸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잡아주신 종자는 영화문학작가를 비롯한 창작가들에게 창작적열정이 솟구치게 하고 환상의 나래를 활짝 펴게 하였다.

작가는 보통 장편영화문학의 두배에 달하는 영화문학 《조선의 별》 1, 2부를 불과 20여일동안에 탈고해내는 기적을 창조했다.

이것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친히 종자를 잡아주시고 그것을 꽃피울수 있는 형상방도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만 가능한것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후 10월중순 어느날 영화의 작업필름을 보여주시면서 창작가들이 작

품을 완성할수 있도록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영화에서 잘된 점을 말씀하신데 이어 작품의 결함과 그를 시정할 방도를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선 위대한 수령님을 만난 다음 김혁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보여줄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1부 마지막에 마차를 타고가면서 김혁이 차광수에게 성주동지를 만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고 물어보는 장면에서 차광수가 김혁에게 이제 우리가 어떤분을 모시고있는가를 보라, 네가 10여년동안 떠돌아다녔지만 성주동지 같은신분은 처음 뵈게될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여기로 불렀다고 말하게 하고 그 장면을 김혁이 수령님과 만나는 장면과 잘 연결시켜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렇게 수령님을 만나보러 가는 장면에서 김혁의 내면세계를 보여주고 수령님을 직접 만나뵈는 장면에서 김혁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보여주면 그의 성격이 더 살아나게 될것이라고 하시였다.

사실 창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뵈운 다음 김혁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보여주지 않은채 인차 《조선의 별》을 작곡하게 하였기때문에 허전한감을 주었고 작곡하는 계기점도 명백하지 않아 보다는 큰 감명을 줄수 없었던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에 의해 비로소 그 부족점이 밝혀지고 그를 극복할 방도가 명백히 서게 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또한 2부에서 김혁이와 청년공산주의자들사이의 인간관계를 생활적으로 보여주지 못하였기때문에 김혁이 최후를 마친 다음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슬퍼하는것이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으며 김혁이 《조선의 별》을 작곡하는 것과 감옥에서 수령님을 한번 만나뵈고 《혁명가》

를 부르는것 그리고 설은주와 오가며 만나는것밖에 별로 인상에 남는것이 없다고 지적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을 받고보니 확실히 창작가들은 작품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만난 다음의 김혁의 내면세계만이 아니라 김혁과 청년공산주의자들사이의 인간관계를 생활론리에 맞게 깊이 파고들지 못했음을 알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것인가. 청년공산주의자들사이의 인간관계의 기초는 무엇이여야 하는가. 모두 이렇게 생각하며 그이의 말씀을 기다리고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김혁과 청년공산주의자들사이의 인간관계를 잘 보여주자면 그들이 지니고있는 수령관을 깊이있게 그려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지니고있는 수령관과 혁명의 정도자를 중심으로 그들이 어떻게 단결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이 작품의 중심으로 하여 생활을 깊이있게 전개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수령관에 대하여 파고들어 잘 그리면 작품의 품위가 훨씬 높아질수있다고 하시면서 이런 각도에서 교양적가치가 있고 철학적깊이가 있게 수령관에 대한 문제를 잘 형상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이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영화에서 수령관을 바탕으로 하여 김혁을 비롯한 청년공산주의자들사이의 뜨거운 동지애를 실감있게 보여주며 노래 《조선의 별》을 보급하는 사업을 통하여 수령관과 관련된 사상을 강조할데 대하여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가며 가르쳐주시였다.

이렇듯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세심한 가르치심에 의하여 영화의 앞부분과 마지막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기신 필적을 두고 감명깊은 장면들을 설정함으로써 《혁명에 다진 그 맹세》라는 사상이 더 강하게 안겨울수 있게 되었으며 남만청총대회와 관련한 대목들에서도 차광수, 박도범, 최창걸을 비롯한 청년공산주의자들사이의 동지적관계를 수령관과 결부시켜 보여줄수 있었다.

또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수령님께서 책망하시였음에도 《조선의 별》노래를 보급해야 한다는것을 일치하게 강조하는 장면들을 통하여 수령관에 기초한 그들의 인간관계를 더욱 두드러지게 보여줄수 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을 받으면서 일

군들과 창작가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동지애란 수령을 중심으로 굳게 단합되고 수령을 옹호보위하는 길에서 생사를 같이하는 동지들사이의 사랑과 의리라는것을 더욱 깊이 깨달았으며 이 작품에서 동지애를 어떻게 그려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게 되었다.

이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영화에서 처음부터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기정사실화하지 말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차광수, 김혁, 최창걸, 박도범과 같은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있었기에 수령님을 우리 혁명의 정도자로 높이 모실수 있었다는 것과 그들이 수령님 주위에 단합되는 과정을 실감있게 보여줄수 있게 그려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그러시고 수령이 하늘에서 내려온것처럼 하지 말고 참다운 동지들에 의하여 높이 추대되는것으로 그려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미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와 혁명가정을 형상화하는데서 격식화, 기정사실화하지 말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그러나 창작가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이 가르치심을 《조선의 별》창작에 옹계 구현하지 못하였던것이다.

그이께서는 이러한 창작가들에게 거듭 이 문제를 제시하시고 구체적인 실례를 드시며 따듯이 깨우쳐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에 고무된 창작가들은 그후 창작전투를 힘있게 벌려 두번째로 수정한 작업필름을 그이께 올리였다.

그날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새벽 3시에야 작업필름을 보아주시게 되었는데 고치라고 하신 대목을 잘 고쳤다고 하시고는 영화의 사상적핵이 명백하여졌다고 말씀하시면서 영화에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중심이 누구이며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동지애란 어떤것인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작품이 대작이라고 하시면서 작품의 내용도 폭이 넓고 1920년대의 시대상도 폭넓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또한 형상의 세부에서 나타난 결함들을 하나하나 지적해주시였다.

실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혁명영화 《조선의 별》을 최고의 걸작으로 완성하여주시기 위하여 기울으신 로고는 끝이 없다.

1980년 11월 어느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또다시 혁명영화 《조선의 별》에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영화를 두번씩이나 보아주시고 매우 만족해하시었다고 하시면서 영화가 김혁과 차광수를 비롯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형상을 통하여 수령님께서 조선혁명의 령도자로 추대되시는 과정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보여주었다고 분에 넘치는 치하를 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날 김혁이 《조선의 별》을 작곡하는 과정을 진실하게 보여줄데 대하여 주요하게 지적하시었다.

그이께서는 김혁이 수령님을 만나뵈옵자마자 《조선의 별》을 작곡하는것으로 형상하는것보다 류길학우회에서 청년학생운동을 지도하는 과정에 보고 느낀 실지체험에 기초하여 작곡하는것으로 형상하는것이 더 좋다고 하시면서 력사적사실을 놓고 보아도 김혁은 류길학우회에서 학생운동을 지도하는 과정에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학생들이 수령님을 얼마나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는가 하는것을 실지 체험하고 그들의 념원을 반영하여 《조선의 별》을 작곡하게 되었다고 지적하시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취급하는 작품에서 반드시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인물들을 형상하여야 진실성을 보장할수 있다는것을 가르쳐주고있었다.

그런데 창작가들은 김혁이 《조선의 별》노래를 작곡하는 장면에 력점을 두고 강조하느라고 하였지만 그가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옵자마자 인차 이 노래를 작곡하는것으로 형상하였기때문에 그 계기

와 과정이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안겨오지 않았던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김혁이가 《조선의 별》을 작곡하는 과정을 더 진실하게 보여줄 방도를 가르쳐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김혁에게 공작임무를 주어 류길학우회에 파견하시는 장면을 설정하고 김혁이 류길학우회에서 활동하는것을 보여주면 그가 《조선의 별》을 작곡하게 되는 과정을 더 진실하게 보여줄수 있을것이라고 가르쳐주시었다.

이처럼 혁명영화 《조선의 별》과 그 영화문학은 종자의 선택으로부터 형상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따뜻한 지도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것이란 하나도 없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혁명영화 《조선의 별》을 다부작으로 만들데 대한 과업을 창작가들에게 제시하시였으며 그 창작과정 역시 세심히 지도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형상한 다부작영화!

오늘 우리의 영화문학은 세계가 아직 알지 못하는 이렇듯 거창한 봉우리에 올라서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우리 영화문학에서 이룩된 이 위대한 전변은 몸소 작품의 종자를 주시고 그것을 꽃피우시려 휴식도 주무심도 잊으시고 밤이 새도록 작가들을 깨우치고 이끌어오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비범한 령도, 한량없는 사랑에 의해 이루어졌으니 우리 어찌 은정의 낮과 밤을 잊을수 있랴.



《민족을 우위에 놓지 않고 리념만 절대화하게 되면 진정한 합작이 이루어질수 없다. 민족해방이라는 대전제를 첫자리에 놓는다면 어떤 계층과도 손을 잡을수 있다는것이 그 당시 나의 견해였다.

우리는 이런 립장을 가지고 해방후 일생을 반공으로 살아온 김구선생과도 합작하였고 지금도 모든 겨레의 리성을 향해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고 호소하고있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면 남는것은 외세와 매국노들뿐이다.

민족의 대단결이 이처럼 귀중한 지상의 과제이고 경륜이기에 우리는 반공일선에서 우리에게 총부리를 맞대고 평생을 살아온 최흥희, 최덕신 선생이 평양으로 찾아왔을때에도 그들에게 과거를 묻지 않고 혈육의 정으로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때 나는 최덕신선생에게 북에 사는 사람이건 남에 사는 사람이건 민족을 첫자리에 놓고 통일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민족이 있고야 계급도 있고 주의도 있지 않겠는가, 민족이 없이 공산주의는 해서 뭣하고 민족주의는 해서 뭣하며 <하느님>은 또 믿어서 뭣하겠는가 하였다.》

태풍을 길들이다

1980년대 첫해가 저물어가던 1980년 10월 26일이였다. 세계 해운력사에 《죽음의 날》로 기록되어있는 10월 26일!

바로 이날 일본의 한 해운학전문가는 《죽음의 날》에 있는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썼다.

《26일 새벽, 태평양서부지역에서는 급작스런 운 기류변동이 있었다. 그 기류변동은 일찌기 볼수없었던 강한 태풍을 일으켰다.

당시 이 수역을 통과하던 수십척되는 1만톤급이상의 선박들이 모조리 침몰되었다.

태풍중심권을 벗어난 지점인 남조선근해에서만도 740여척의 배들이 항방없이 종적을 감추었다.》

그러나 세계가 《죽음의 날》이라고 비명을 올린 그날, 놀랍게도 그 태풍구역을 무사히 항행한 배가 있었다.

그 배가 바로 우리 나라 려객선 《삼지연》호이다.

1만톤급이상의 대형선박들도 손쓸새없이 침몰당한 엄혹한 자연의 광란속에서 어떻게 되어 크지않은 려객선 《삼지연》호가 무사할수 있었는가?

오사카에 살고있는 재일동포청년 오달수가 조청모범반일군 단기방문단의 한 성원으로 조국에 가기 위하여 려객선 《삼지연》호에 오른것은 10월 24일이였다.

일본에서 나서자란 그는 처음 가보는 조국이여서 그런지 마냥 흥분에 떠있었다.

말만 듣고 책으로만 알고있던 조국땅을 직접 제발로 밟게 되었다는 꿈같은 일을 생각만해도 그를 크나큰 격정에 휩싸이게 했다.

초겨울의 쌀쌀한 바다바람이 옷설을 파고들었으나 달수는 아까부터 점도록 갑판에 나와서서 일망무제한 바다의 어느 한곳에 눈을 주고있었다.

그가 바라보는 바다건너 저 멀리엔 그리운 조국이 있었다.

조국의 향기에 심취된듯 가슴을 들먹이였다.

얼마나 상쾌한가! 또 얼마나 부드럽고 따뜻한가!

달수에게 맨짚 바다바람이 마치도 꽃발을 지나온 봄바람과도 같이 향기를 실은 춘풍으로만 느껴졌다.

아니 달수만이 아니였다. 지금 이 배에는 조청모범반일군들의외도 조선대학교 졸업반학생 대표단

을 비롯하여 근 400명의 재일동포청년들이 타고있었다.

그들의 심정 역시 달수와 조금도 다를바가 없었다.

어떤 축들은 갑판 란간에 기대서서 《조국이 보인다!-》 하고 소리치기도 하였다.

조국이 보인다!- 그들의 눈앞에, 그들의 마음속에 조국은 환영으로 나타난것이다.

아니, 그들의 눈앞엔 사랑하는 어머니조국-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이 우렁이 떠오른것이다.

그러나 아직 조국은 멀리에 있었다. 흥분을 싣고 달리는 《삼지연》호는 온밤 잠들줄 몰랐다.

그들은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장군별과 백두광명성-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그러다가 새벽이 거의 다 되어서야 잠이 들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든지 한시간이나 되었을가,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창문으로 비쳐들무렵 어디선가 《폭풍이다!》 하는 웨침소리와 함께 비상신호종소리가 다급하게 울렸다.

청년들은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오달수는 갑판으로 달려나가려 하였으나 웬일인지 쉬이 나갈수가 없었다.

배는 금시 넘어질듯 기우뚱거렸다.

얼마나 심하게 흔들려냈던지 벽이나 기둥을 붙잡지 않고서는 그대로 서있을수 없었다.

후에 안 일이지만 《삼지연》호는 항해력사에 보기드문 무서운 태풍중심권에 든것이였다.

오달수는 여기저기 부딪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가까스레 갑판으로 나갔다.

순간 선수를 뛰어넘어 들어온 사나운 물갈기가 그의 온몸을 덮쳤다.

물참봉이 된 달수의 옷은 찬바람에 뻗뻗이 얼어들기 시작하였다. 온몸이 와들와들 떨렸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바다를 보았다. 그러나 바다는 보이지 않고 눈앞에 산같이 일떠선 물벼랑만이 막아서있었다.

산악같은 파도에 말리워 하늘높이 떠올랐다가 밑으로 떨어지자 배는 마치 물속에 잠긴것 같았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고탈소리와 아우성소리가 들렸다.

(이젠 마지막으로구나.)

이런 생각이 순식간에 그의 뇌리를 스쳐지나갔다. 달수만이 아니었다. 여기에 탄 모든 사람들, 선원들과 제일동포청년들모두가 이런 생각을 하였다.

평생을 파도우에서 살아왔다는 《삼지연》호의 한 나이많은 선원도 후에 그때 일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 나는 우리 배가 그 폭풍속에서 구원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배를 타고 먼 여행을 처음 해보는 달수와 다른 청년들의 마음이 어떠하였겠는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은것이다.

달수는 죽기를 각오하였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보는 조국땅을 발목이 시도록 밟아보리라던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보지 못하는 아쉬움과 함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만나 뵙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가슴이 미어졌다.

배는 또다시 산갈은 파도에 실려 가랑잎마냥 기우뚱거리며 하늘높이 떠돌았다가 철석 하고 떨어졌다.

그때마다 사나운 물갈기는 려객선창문을 사정없이 들이쳤다.

쨍가당, 우지끈 딱!

배가 통채로 깨어져나가는듯한 요란한 소리가 울리었다. 사나운 물결에 3층객실 정면의 대판강철유리가 너장이나 부서졌다. 그리고 바다물이 썩!- 하고 흘러들었다. 시간당 100톤은 실히 넘을것 같았다.

달수는 벌벌 기어서 여기저기 붙잡으며 겨우 그리로 올라갔다.

거기서는 선원들이 필사적으로 물을 퍼내고있었다.

《빨리! 빨리!》

선원들은 서로서로 바다물을 가슴으로 막으며 태풍과 맞서싸웠다.

달수와 려객들인 제일동포청년들은 선원들의 투쟁에 고무되어 같이 합세하였다.

그들은 한덩어리가 되어 객실 옷부분에 쓸어드는 물을 배아래부분에 몰아넣고 해수뿔프와 소방뿔프로 퍼냈다.

그러나 광란하는 바다앞에 그들의 힘은 너무도 무력하였다. 바다물은 계속 쓸어들어 3층복도와 일부 객실들이 물속에 잠기었다.

물에 의하여 점차 상층부분이 무거워지자 기울어 넘어질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려객들은 물론 일부 선원들속에서도 동요가 일어났다.

이런 때 무전수가 조국에서 날아온 전파를 받고 선장에게 알렸다.

《〈삼지연〉호. 태풍신호를 받고 왜 응답이 없는가. 배의 현재상태를 말하라.》

선장은 이내 《삼지연》호의 상태를 알리는 무전문을 무전수에게 주었다.

《3층객실 정면유리 4개파손, 객실침수, 배 전진 못함, 위험!》

그야말로 절망적인 무전이였다.

선장도 무전수도 이 무전이 《삼지연》호가 조국에 날리는 마지막무전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후 조국에서는 놀랍게도 《삼지연》호에 보내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말씀이 무전으로 전달되었다.

조국에서 구호대를 조직하여 보내니 신심을 잃지 말고 구호대가 도착할 때까지 투쟁하라는 내용의 말씀이시였다.

선원들과 제일동포청년들은 사경속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전달받고 모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분발하여 일떠섰다.

(어머니조국이 우리를 구원하러 온다!)

그들은 모두 가슴속에 이런 마음의 기둥을 세우고 불굴의 의지로 부딪친 난관을 맞받아나갈 결의를 다졌다.

그런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이 전달되자 참으로 놀라운 일이 생겼다.

갑자기 어디서 생겨났는지 하늘과 바다사이를 질은 안개가 가득 메웠다.

어디가 어딘지 통 분간할수가 없었다. 조금있더니 생겨날 때와 같이 갑자기 그렇게도 뽕얕던 안개가 사라지고말았다.

진짜 놀라운 일은 그다음에 벌어졌다.

안개가 사라지자 눈부신 해빛이 《삼지연》호를 향해 내리쏟아졌다. 때를 같이하여 기승을 부리던 태풍이 조용해지고 파도도 낮아지기 시작하였던것이다.

더욱 놀라운것은 《삼지연》호가 가는 앞에만 물결이 잔잔해지는것이였다.

이게 웬일인가? 사람들은 도저히 눈앞의 현실이 잘 믿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때 구조대로 파견된 공군비행기들과 해군함선들이 《삼지연》호에 도착하였다.

오달수와 제일동포청년들은 하늘과 바다를 둘러보며 모두 감격의 눈물을 흘리었다.

꿈결에도 그리운 조국, 그렇게도 안기고 싶어 찾아가던 조국, 그 어머니조국이 두팔을 벌리고 마주 달려온 것이었다.

《조국이다!》

《어머니조국이 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만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만세!》

감격의 메아리는 만경창과를 짓누르며 만리창공에 높이 울려 퍼졌다.

태풍으로 세차게 출렁거리던 바다는 호수처럼 고즈넉 해졌다.

《삼지연》 호는 비행기와 함선들의 호위를 받으며 무사히 조국땅에 와닿았다.

《죽음의 날》에 《삼지연》 호는 기적적으로 구원되었다.

오달수의 가슴속에선 이런 웨침이 울려나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바다에 호령을 하시

여 파도가 키를 낮추고 태풍을 잡들게 하시었구나!》

×

후날 이 이야기를 들은 서방의 한 조선문제전문가는 이렇게 말하였다.

《1980년 10월 26일, 이 〈죽음의 날〉로부터 바로 한해전인 1979년 10월 26일에는 박정희가 사살되었고 또 그로부터 70년전인 1909년 10월 26일에는 안중근이 이등박문을 저격하여 황천으로 보냈다.

참으로 우연한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도 신기한 일이다. 그러고보면 10월 26일이 〈죽음의 날〉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 〈죽음의 날〉도 친애하는 **김정일** 선생님의 열화같은 인간애앞에서는 어찌지 못하고 머리를 숙이었다.》

최대의 경사

싼띠아고 애레라

비둘기떼 하늘높이 날아오고
환호의 꽃바다 축하의 꽃물결
강산에 차넘치누나

아 탄생일을 맞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이시여
당신은 친근한 벗
다정한 형제

인민의 아버지
당신의 탄생일은
민족의 기쁨이며 영광

인류의 최대의 경사

만민이 드리는
기쁨의 노래
축하의 꽃다발 받으시라!

아, 탄생일을 맞으시는
그이께 영광을 드리노라
만세! 만만세!

(필자는 꾸바음악가임)

뵙고싶어라

마구투스와

만민이 흠모하는 그이
인류가 우러르는 그이
그이는 **김정일** 동지

그이는 사상리론의 천재
그이는 혁명과 건설의 영재
그이는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

만나면 순간에 매혹되고

헤여지면 다시 뵙고싶은
위대한 그이의 모습

달려가 안기고싶고
뜨겁게 포옹하고싶은 이 마음
2월의 명절이 오면
더더욱 간절하여라

(필자는 짐바브웨사람임)

주체의 면모를 확고히 갖춘 우리 식 문학

김병훈

위대한 우리 당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장엄히 선포한 때로부터 20년이 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974년 2월 19일 시대와 혁명발전의 새로운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과학적으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였다.

우리 당의 위대한 강령이 선포된 때로부터 주체의 혁명위업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전진하게 되었다. 이 위대한 강령이 밝혀주는 길을 따라 자연도 사회도 사람도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몰라보게 달라졌으며 우리 당과 인민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가장 뚜렷한 목표와 휘황한 설계도를 가지고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확신성있게 나아가게 되었다. 오늘 우리 문학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이 휘황히 밝혀주는 길을 따라 주체의 면모를 확고히 갖추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실현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고있다.

1

문학이 시대와 인민 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려면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근본적인 변혁을 일으켜야 한다. 문학분야에서의 변혁은 문학예술혁명을 통하여서만 실현될수 있다. 혁명은 그 앞길을 밝혀주는 심오한 사상과 이론을 요구한다. 옳바른 지도사상과 이론, 방법을 가지지 못한 혁명은 라침판 없는 배와 같이 항방을 잃고 방황하기 마련이다.

우리 문학은 우리 시대 문학의 향로를 밝혀주는 휘황한 등대인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당과 수령의 현명한 명도를 받으며 우리 식 문학건설에서 류례없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적문예사상은 우리 문학예술이 나아갈 올바른 길을 밝혀주는 휘황한 등대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을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입니다.》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은 우리 식 문학건설의 지도적지침이다. 경험은 주체적문예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모든 문학예술활동의 확고한 지침으로 삼아야 우리의 문학예술을 끊임없이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

주고있다. 또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우리 문학을 새롭게 혁신해나갈수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영화예술론》**과 **《주체문학론》**을 비롯하여 많은 로작들에서 우리 문학이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을 마련하여주시였다.

우리 문학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실현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당이 제시한 주체적문예사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문학작품창작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것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혀주신바와 같이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문학예술작품을 조선혁명의 리익에 맞고 우리 인민의 민족적 정서와 비위에 맞게 창작한다는것을 말한다. 문학작품창작에서 주체를 세우는 문제는 결국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수행에 맞게 모든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확고히 지향시키고 북돋아주어나가는 문제이다. 우리 인민의 민족적정서와 비위에 맞게 우리 식대로 창작하는 바로 여기에 우리 문학의 본질적특성과 우월성이 있다.

우리 식 문학의 본질적특성과 우월성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주체성을 살려야 한다. 주체성은 민족자주정신의 반영이다. 주체성은 민족문학의 얼굴이며 정신이라고 말할수 있다. 주체성에 의하여 민족문학의 고유한 특성이 살아나며 민족의 정기와 기상이 뚜렷이 표현된다. 문학에서 주체성을 구현하는것은 문학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는 기본담보이다. 주체성과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혁명적문학의 기본특성이며 그 위력의 원천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문학건설에서 주체성을 구현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과 이론을 밝혀주시고 그 실현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주시으로써 우리 식 문학의 본질적특성과 우월성을 더욱 강화해나갈수 있게 되었다.

우리 식 문학의 본질적특성과 우월성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을데 대한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우리 식 창작방법을 주체사실주의로 규정하시고 그를 창작실천에 옹계 구현하기

위헌에서 나서는 원칙과 요구들을 심오히 밝혀주시고 구체적인 방도들을 제시하여주시었다. 그리하여 우리 문학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속에서 창시하신 주체적문예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주체사실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주체의 궤도를 따라 조금도 편향없이 힘차게 전진해나갈수 있게 되었다.

우리 문학을 주체의 요구대로 혁신하고 발전시켜나가는데서 고전적으로작 **《주체문학론》**이 발표된것은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고전적으로작 **《주체문학론》**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건설의 총적방향과 임무, 근본원칙과 방도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있다. 고전적으로작에는 주체의 문예관을 확립하는 문제로부터 혁명적문예전통을 옹호고수할데 대한 문제, 우리 문학이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영원한 형상원천으로 할데 대한 문제와 작품의 형상생리와 문학형태별특성에 맞게 창작할데 대한 제반리론실천적인 문제들이 다 밝혀져있다. 참으로 불후의 고전적으로작 **《주체문학론》**은 주체적인 문학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집대성되어있는 주체문학건설의 불멸의 대강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고전적으로작 **《주체문학론》**을 비롯하여 주체적문예사상을 독창적으로 제시하여주시고 그를 창작실천에 훌륭히 구현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여주시음으로써 우리 문학은 시대와 인민의 지향과 념원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수행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우리 식 문학으로 힘있게 발전할수있게 되었다.

참으로 주체적문예 사상과 리론은 오늘 인류의 리상인 자주위업을 끝까지 수행하려는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가장 독창적이고 새로운 리론이다.

우리 당이 내놓은 주체적문예 사상과 리론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오늘 우리 식 문학창작실천의 빛나는 성과에 의하여 확증되었다.

2

문학의 면모와 성과는 작품창작에 의하여 결정된다. 문학이 어떤 면모를 갖추고있으며 얼마나 발전하였는가 하는것은 창작된 작품들의 사상에술적특성과 형상수준에 의하여서와 시대를 풍미하는 훌륭한 작품들이 얼마나 많이 창작되어나왔는가 하는것을 보고 알수 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이 선포된 때로부터 20년, 유구한 민족문화사에 비하면 매우 짧은 기간이라고 말할수 있다. 하지만 이 기간에 우리 문학은 실로 주체의 면모를 확고히 갖추고 놀라운 발전을 이룩하였다.

우리 문학의 주체적면모는 무엇보다도 문학예술

의 혁명전통이 빛나게 고수되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오늘 우리 문학은 혁명적문예전통을 뿌리로 하여 개화발전하고있다. 우리 문학에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인 **《꽃파는 처녀》**, **《피바다》**, **《한자위단원의 운명》** 등을 소설로 옮기는 사업이 훌륭히 수행되었으며 이 과정에 우리 문학의 높은사상예술적수준이 담보되었다. 또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인 **《성황당》**, **《3인 1당》**, **《경축대회》** 등을 시대의 미학적요구에 맞게 **《성황당》**식혁명연극으로 창조하여 혁명적문예전통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고 빛내었다.

우리 문학은 혁명적문예전통의 깊고도 억센 뿌리에서 자라나고있음으로 하여 주체문학의 혁명적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하며 승승장구하게 되었다.

주체의 면모를 확고히 갖춘 우리 식 문학의 참다운 모습은 로동계급의 수령형상문제를 가장 빛나게 해결하고있는데서 더욱 찬란히 빛나고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문학은 1970년대와 80년대에 수령형상문학의 새로운 빛나는 장을 열어놓았으며 90년대에 들어와서 일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있다.

우리 문학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거창한 시대적임무를 수행하는데서 수령형상창조문제를 근본문제로 내세우고 여기에 모든 화력을 집중하였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 문학은 인류문예사상 처음으로 수령형상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최대의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우리 문학에서 수령형상창조문제를 그 운명과 관련된근본핵으로 보시고 그를 빛나게 해결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여주시었다. 이리하여 우리 문학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전면적으로 형상한 총서 **《불멸의 력사》** 항일혁명투쟁시기권에 속하는 장편소설들을 훌륭히 창작완성하였다. 그리고 해방후편에 속하는 장편소설들을 활발히 창작하고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의 창작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한 수많은 소설, 시, 아동문학, 극문학 등 다양한 형식의 문학작품들이 훌륭히 창작됨으로써 우리 문학은 로동계급의 수령의 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 문학으로서의 자기의 모습을 더욱 뚜렷이 하게 되었다.

우리 문학에서 주체적인 면모가 더욱 빛나는것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한 작품들이 훌륭하게 활발히 창작되고있는데 있다. 오늘 우리 문학은 현시기 인류가 낳은 위대한 영재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탁월한 령도자이시고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하는 최상의 영예와 특전을 누리고있다. 시대의 이 영예를 지닌 우리문학에서는 위대한 령도자의 혁명활동을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형상한 총

서 《불멸의 향도》의 장편소설들이 훌륭히 창작되어 독자들속에 들어가고있다. 이미 장편소설들인 《아침때》, 《예지》, 《불구름》 등이 창작된데 이어 최근에는 장편소설 《푸른 하늘》이 훌륭히 창작되었다. 장편소설들과 함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한 단편소설들이 수많은 훌륭하게 창작되고있으며 중편소설 《들쭉령의 세집》이 우수하게 창작되어 당의 위대성형상의 새 경지를 개척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형상은 문학의 모든 형태에 걸쳐 다양한 형식으로 왕성하게 창작되었다.

여기에서 특히 시가문학이 선도자가 되고있다. 오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이 날을 따라 뚜렷이 과시되고 당을 따르는 인민들의 충성심이 비상히 높아지고있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송가 창작이 전례없이 활발해지고있다.

우리 문학에서 위대한 평도자를 노래하는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는데서 가사문학의 지위와 역할이 더욱 높아지고있다. 당의 위대성을 노래한 가사들은 당과 수령의 위업수행으로 인민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며 시대를 선도하고있다. 특히 최근에 우리 가사문학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우리당과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역사적인 사변들을 계기로 수많은 시대의 명작들을 내놓았다.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는 시대의 메아리가 힘있게 울려 퍼졌고 가사 《무장으로 받들자 우리의 최고사령관》, 《그이의 한생》, 《매혹》 등이 훌륭히 창작되었다.

참으로 로동계급의 수령형상문학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새롭게 개척한것은 우리 문학의 주체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특징의 하나이며 우리 문학이 누린 가장 큰 영예이다.

주체의 면모를 갖춘 우리 식 문학은 당과 수령의 의도를 투철히 반영하고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고있는데서 그 본질적특성을 더욱 강화해나가고있다.

우리 문학은 어떤 시대의 어떤 생활을 반영하든지 당정책의 요구를 구현하고있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여 주체사상화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 이바지하는 현실적이고 절실한 문제를 제기하고 형상적으로 해결하고있다. 이것은 당의 위업수행을 근본사명으로 하고있는 우리 식 문학의 근본특징의 하나이다.

지금 우리 문학은 혁명전통주제, 사회주의현실주제, 군사물주제, 조국통일주제, 역사물주제 등 우리 인민의 다양한 생활을 폭넓게 반영하고있다. 이 모든 주제의 작품들은 한결같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구현하고있으며 당이 절박하게 해결을 바라는 문제를 푸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이리하여 우리 문학은 명실공히 당사상사업의 힘있는 무기로 되고있다.

여기에서 우리 문학이 이룩한 성과는 긍정적주인공, 주체형의 인간전형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한것이다. 주체의 인간학인 우리 문학은 그 본성적요구로부터 긍정적주인공의 형상창조를 근본문제로 제기하고있는 현실공정의 문학이다.

우리 문학은 자기의 실천행동을 통하여 당과 수령의 의도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 관철에서 모든것을 다바쳐나가는 우리 시대의 새로운 인간전형들을 훌륭히 창조하였다.

장편소설 《빈터우에서》와 《철의 신념》 등 많은 작품들에서 형상된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전형적인 모습들, 장편소설 《새봄》, 《대지의 아침》 등에서 나오는 농민의 전형적인 형상을 비롯하여 우리 문학의 긍정적주인공들속에는 혁명의 자주적주체를 이룬 우리 시대의 각이한 인간들의 형상이 있다.

은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심화되고있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우리 문학이 창조한 주체형의 인간전형들의 형상은 새로운 성격적특질을 체현하고있다. 오늘 우리 문학이 창조하고있는 우리 시대 주체형의 인간전형은 수령, 당, 대중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고있다. 그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 생활화하고있으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신념과 의지를 굽히지 않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고있다.

특히 1990년대를 맞이하여 우리 문학은 우리 인민들속에서 새롭게 나타나고있는 정신도덕적품모를 생동한 형상으로 그려내고있다. 우리 문학에 그려진 우리 시대 인간의 새로운 정신도덕적품모의 중요한 특징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쳐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것을 혁명적 의리와 본분으로 여기는데 있다.

수령, 당, 대중 앞에 지닌 사회적의무에 대한 높은 자각과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치는 끝없는 헌신성에 우리 인민만이 지니고있는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인간미가 있다. 여기에 또한 90년대 인간들의 삶의 철학이 있고 주체적미관이 있다.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품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수 없다는 것을 생활을 통하여 절실히 체휼하고있기때문에 어떻게 하면 당과 수령의 크나큰 은덕과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할수 있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늘 마음을 쓰며 수령에게 충성다하는것을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것으로 생각하고있다. 지구가 열백번 뒤집히는 한이 있더라도 사회정치적생명체에 영원히 자기 운명을 맡기고 그와 생사를 같이하려는 우리 인민의 의지는 무엇으로써도 꺾을수 없다.

우리 문학은 시대와 더불어 변화발전하는 우리 인민의 아름답고 숭고한 정신세계를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에 기초하여 혁명적미관의 견지에

서 새롭게 탐구하고 형상하고있다. 이리하여 우리 문학은 긍정적주인공의 성격을 새로운 시대적높이로 승화시켰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구현하고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긍정적주인공의 형상을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혁신적으로 창조한 여기에 주체의 면모를 확고히 갖춘 우리 식 문학의 참모습이 있다.

오늘 우리 문학은 당의 령도를 생명선으로 하여 자기의 사상미학적감화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고있으며 문학의 모든 형태가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고르롭게 발전하고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강령이 선포된지 불과 얼마되지 않는 짧은 력사적기간에 우리 문학창작에서 일어난 놀라운 전변은 실로 특기할 사변들이다.

우리 문학은 당과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혁명적인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우리식 문학의 재보를 더욱 풍부히 해나갈것이다.

3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매우 높은 단계에 들어선 우리 혁명은 문학예술을 더욱 빨리 발전시킬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우리 혁명이 전례없이 간고한 시련을 이겨내며 승리적으로 전진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승리에 대한 신심과 미래에 대한 락관을 가지고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도록 고무하고 선도하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을 창작하는것은 우리 작가들이 력사앞에 지닌 숭고한 의무이며 시대의 엄숙한 요구이다.

우리 작가들이 시대와 혁명, 력사 앞에 지니고있는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문학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우러러받들고 결사옹위하여야 한다.

현시기 우리 작가들의 지상의 과업은 모든 창작적 탐구와 사색, 열정을 다 기울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형상하는것이다.

우리는 지난 기간 탁월한 령도자의 위대성형상에 서 많은 창작적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고있다. 그러나 아직도 시대의 지향과 요구에 비해볼 때 우리 문학이 이룩한 성과는 초보적인 것에 불과하다. 아직도 우리 문학에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이 폭과 깊이와 넓이를 가지고 무게있게 형상되지 못하고있으며 절세의 위인의 탁월한 모습이 웅심깊게 부각되지 못하고있다.

우리 문학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웅당한 높이에서 깊이있게 형상하기 위하여서는 지도자동지께서 지니고계시는 위인으로서의 천품의 위대성과 함께 탁월한 사상리론가, 정치가, 군사전략가로서의 위대성을 잘 그려야 한다.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것이 사상리론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형상하는것이다. 혁명의 령도자의 위대성은 무엇보다먼저 사상리론의 위대성에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비상한 탐구력과 정력으로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시여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빛내여가고계시며 현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원리와 내용들로 주체사상을 더욱 풍부화하고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고계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최근 자신께서 우리 인민의 토양에 씨를 뿌리고 키워오신 주체사상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무성한 숲으로 가꾸어 풍만한 열매를 거둘수 있게 되였다는 뜻깊은 교시를 하시였다. 우리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형상에서 사상리론의 위대성을 예술적으로 부각하는데 특별한 창작적관심을 돌려야 한다.

우리는 또한 위대한 정치가, 군사전략가로서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과 함께 참다운 인민의 지도자로서의 그이의 품모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덕성을 한몸에 지니시고 우리 혁명을 이끄시여 우리 인민의 유구한 력사에서 일찌기 있어보지못한 일대 룡성과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세계에는 나라마다 민족의 자랑으로, 영웅으로, 대표자로 내세우는 인물들이 적지 않으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와 같이 일찍부터 문무충효를 겸비하시고 비상한 령도적수완으로 혁명과 건설의 세계적모범을 창조하시여 당과 국가의 명당과 지위를 최상의 높이에 이끌어올린 위대한 사상리론가,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군사가 없었다.

우리 작가들이 위대한 령도자의 형상을 창조하게 된것은 최상의 영예이고 특전이며 의무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최상의 예술적경지에서 형상적으로 드높이 구가할 때 우리 문학은 우리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고 그 위력으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온갖 반사회주의적책동을 짓부시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는데 힘있게 이바지할수 있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위업을 수행하는데서 강력한 무기로 될 수 있다.

우리 문학이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현실주체의 모든 작품들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정도선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인민들의 운명과 생활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정도와 혈연적으로 련계되어 있다. 자신의 운명과 후대들의 행복한 미래도 오직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품에 맡기고 그에게 모든것을 의탁하고 있는것은 우리 인민의 신조로 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현실생활은 그 어떤것이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정도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우리는 웅당 시대의 흐름으로, 맥박으로 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생활의 본질을 진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정도선을 구현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당의 정도를 받들어 나가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내면세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정도를 심장에 체득한 주인공들의 숭배심과 신뢰심을 잘 그리는것이다. 우리 인민들은 신념과 의리로부터 위대한 정도자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고 있으며 충성을 다하고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숭배심과 신뢰심은 우리 인민들의 념으로 되고 있으며 체질화되고 있다. 우리 인민들의 이러한 정신세계를 잘 그려야 당의 정도선이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구현될 수 있다. 정도자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성의 세계를 그림에 있어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인간적으로 매혹되는 내면세계를 감동적으로 그리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인간에 대한 완전한 매혹에서 발현되는 충실성만이 사심과 변심이 없고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드팀이 없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정도선을 우리 시대 인간들이 위대한 정도자에게 매혹되는 세계를 통하여 보여줄 때 그것은 진실하고 감화력있는 형상으로 될것이다.

우리 문학의 주체적면모를 더욱 강화하고 그 사상미학적감화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학의 모든 형태들에서 형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로작 《주체문학론》에서 제시된 독창적인 리론들을 창작실천에 철저히 구현하는것이다. 우리는 문학의 모든 형태에 걸쳐 고유한 형상생리에 맞게 그 특성들을 옹게 살려 작품의 형상수준을 높여야 한다.

우리의 소설문학은 온갖 낱은것에 도전하는 새형의 문학으로 되어야 한다. 소설문학의 고유한 특성과 우월성을 살려 묘사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진실성과 철학적성, 지성도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독자들이 즐겨 읽는 작품, 우리 인민의 사상정서생활에 이바지하는 작품들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시문학의 서정성과 음악성을 살려 시의 본질적특성을 강화하며 시인의 개성을 적극 발양하여 우리의 시가 시대를 선도하는 투쟁의 기치로 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자라나는 후대들을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힘있는 수단으로 되고 있는 아동문학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체시대 아이들의 아이가 넘치는 다양한 형태의 아동문학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극성에 대한 옳은 리해를 가지고 주체시대의 새로운 극적성격을 생동하게 그린 극문학작품들을 더 훌륭히 창작해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 식 문학의 화원을 더욱 풍만하고 아름답게 장식하여야 한다.

우리 문학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수행에 힘있게 이바지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정도에 충실하여야 한다. 당의 정도는 우리 문학의 생명선이다. 당의 옳바른 정도가 있기에 우리 문학은 그 어떤 편향도 없이 주체사실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시대의 요구에 맞는 혁명문학을 훌륭히 건설해나가고 있으며 빛나는 전망을 확고히 내다보고 있다. 문학이 당의 정도에 충실하자면 당의 의도를 창작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현시기 우리 작가들이 당의 의도를 창작에 구현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창작적관심을 돌려야 할 문제는 오늘 우리 시대에 높이 발양되고 있는 공산주의적미풍들을 작품에 잘 반영하는것이다.

전국공산주의미풍선구대회에서 뜨겁게 울려나 온것처럼 우리 시대 인간들속에서 발현되고 있는 공산주의적미풍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정도를 받는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찾아볼수있는 소행들이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새롭게 발양되고 있는 숭고한 공산주의적소행들을 모든 문학작품들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적극 반영하여 감명깊은 형상을 창조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며 우리 식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하여 우리 당이 제시하는 전투적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투쟁으로 인민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문학작품을 훌륭히 창작하는것은 당의 정도를 문학으로 받들어 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문학작품에 옹게 반영하고 그 정당성과 생활력을 형상적으로 힘있게 확증하여야 한다. 여기에 당의 정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는 우리 작가들의 자세와 우리 문학의 본도가 있다.

우리 문학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당과 수령의 정도를 따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수행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빛나는 예술적형상들을 더 많이 창조함으로서 자기의 주체적면모를 더욱 강화하고 시대적사명을 다할것이다.

영생하는 사랑의 품

류연옥

빛
어둠을 몰아내는 휘황한 빛
세상만물 비로소 제 모습 찾았노라
설레이며 환호성 울릴 때
너그러운 어버이 미소인양
오, 은혜로워라 태양의 빛이여!

빛
사랑의 화살마냥 뜨거운 그 빛
가냘픈 심장 갈피갈피 스며들 때
찬란한 앞길 활짝 열리나니

빛

억만사람 그 빛 우러러나가네
오, 조선에서 떠오른 주체의 빛이여!

빛
사람마다 제 설자리에 이끌어 세워주고
먼 후날도 우주의 앞길 밝혀나갈 빛이여!
태양은 사위여 재가 될수 있어도
온 누리에 빛나는 영원한 빛
오, 위대하여라 주체의 빛이여
김정일!
김정일!

붓

당이 쥐여준 붓
꿈결에도 놓지 못하는 붓
내 그 붓 든지 어제 같건만
어느덧 백발이 설레이누나
허나 내가 든 붓 남긴 흔적 무엇인가?

이제라도 정열의 창날로 한자한자
주옥의 글발 새겨넣어
빛나는 노래탑 쌓아가리라
휘날리는 당기의 그 붓 나는 꼭 틀어쥔다
당을 따라 영원히 발걸음 맞추어...

거울

수수하고 자그마하여도
나에게는 귀중한 거울
날마다 알른알른 닦아
품속에 고이 간수한다

힘겨운 일앞에 주저앉았다가도
이윽히 맑은 거울속 여겨보면
불뽕는 화구 가슴으로 막는 아버지
우렷이 어려오네 영웅의 거울속에

전화의 먼지 말끔히 가신 날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거울

요지경도 만화경도 아니지만
자자손손 물려줄 충성의 가보

보람찬 행복속에서 아들과 나란히
당에 바치는 량심 속다짐하며
오늘은 내가 물려준다
초소로 떠나는 끝끝한 아들에게

말없이 깨우쳐주는 좌우명으로
아들아, 네 품속에 고이 간직하여라
수수하고 자그마하여도
우리에겐 가장 소중한 마음의 거울!

영생하는 사랑의 품

고고성 올리며 삶이 시작될 때
까마득 멀어 가늠할수 없던 삶의 종점
머리에 흰서리 내리자 문득 눈앞에 다가서네
다가서다가도

당기의 그 붓 튼튼히 틀어쥐고
당의 품에 안길 때
삶의 종점 가뭇없이 사라지나니
오, 그 품은 영생하는 사랑의 품!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적극 이바지하는것은 우리 문학의 기본사명

리성덕

격변하는 엄혹한 정세속에서도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수행하는데서 세기적인 전변을 일으키고있는 우리들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되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위대한 강령발표 2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1974년 2월 19일 전국당선전일군강습회에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한 력사적인 결론을 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력사적인 결론에서 우리 당 사상사업앞에 나서는 기본임무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된다는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최고강령이 선포됨으로써 우리 혁명과 주체문학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전진할수 있게 되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최고강령은 당시 성숙된 우리 혁명발전의 주객관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있었다.

온 사회를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요구를 제기하려면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위대한 혁명사상, 지도사상이 있어야 하며 그것이 성숙된 요구로 제기될뿐아니라 사상의 일색화를 받아들일수 있는 준비된 정치적력량이 있어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온 사회를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할수 있는 우리 시대의 유일한 지도사상인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있어 사상의 일색화를 당의 구호로 제기할수 있는 결정적조건이 갖추어져있다고 보시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고 우리 혁명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게 된 조건에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것은 완전히 성숙된 요구로 보시였다.

뿐만아니라 혁명의 참모부인 당이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공고화되고 전당과 전체 인민이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한길을 따라 싸워나가는 우

리 나라의 현실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정치적력량이 믿음직하게 마련되어있다고 보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러한 주객관적요구와 그 실제적가능성을 포착하시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을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히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은 우리 혁명발전의 력사적필연성을 완벽하게 반영한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혁명의 대강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이것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한다는것은 모든 사회성원들을 다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만들며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회를 철저히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것을 의미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력사적인 결론에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한다는것은 무엇일 의미하는가 하는것을 밝혀주시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되는 그 근거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천명하시였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되는것은 여기에 우리 당의 최종목적이 뚜렷이 밝혀져있고 우리 당의 최종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방도가 명시되어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은 공산주의사회의 본질적요구와 그 완성의 합법칙성을 완벽하게 해명해주고있다.

주체사상은 현단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뿐만아니라 앞날의 공산주의사회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 지녀야 할 사상과 리론, 정신도덕적품모를 담고있으며 사회를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여나가는 방향과 요구뿐만아니라 공산주의사회에서 이루어지게 될 모든 사회관계와 활동방식을 밝혀주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제시하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

사상의 기치따라 공산주의으로 이끌어가자는 것이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우리 당의 최종목적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선포하시면서 우리 당 사상사업부문은 그 첫째가는 담당자로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주체문학은 우리 당 사상사업의 위력한 무기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수행에 힘있게 이바지하여야 할 우리 주체문학앞에는 모든 사회성원들을 다 경애하는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전형을 창조하여야 할 과업이 제기되게 되였다.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전형창조,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주체사상이 철저히 구현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투철한 공산주의적인간의 창조를 의미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선포한 력사적인 로작에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며 절대화, 신조화, 무조건성을 지키는것을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의 기본요구, 기본척도이며 수령님께 충직한 혁명전사,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가장 기본적인 품성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이것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최고표현이다.

왜냐 하면 수령님은 우리 당과 우리 혁명,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의 이익의 체현자이시며 수령님의 교시는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의 조직적의사이기때문이다.

수령님께서 심려하시고 바라시는것은 바로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이며 수령님의 뜻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의지로 된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수령님은 곧 당이며 당은 곧 수령님이시라고 말하는것이다.

우리의 주체문학은 이 혁명적리론의 진수를 형상으로, 생활적으로 구현하는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내세우고 수령형상문학의 전면적개화기를 마련하는 획기적인 전변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은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을 첫째가는 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가야 온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성스러운 위업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우리 주체문학이 수령형상창조를 첫째가는 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가야 온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성스러운 위업에 적극 이바지할수있다.

그것은 수령은 시대와 인민대중을 대표하는 주체형의 혁명가의 최고전형이며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의 품모와 자질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있는 위대한 인간인것으로 하여 주체문학의 제일주인공으로 내세워져야 하며 수령의 빛나는 형상을 통하여 사람들은 혁명가의 가장 숭고한 정신세계를 알게 되고 그 위대한 품모를 크나큰 감동속에 따라배우게 되기때문이다.

이러한 형상목적으로 하여 우리의 주체문학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이 선포된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는 20년동안 수령형상작품창작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불멸의 혁명력사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형상한 총서 《불멸의 력사》의 장편소설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송가들과 단편소설들 그리고 극작품들을 창작하는 일대 전성기를 활짝 펼쳐놓았다.

이것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문학작품창작사업을 지도하시는 첫 시기부터 수령형상작품창작을 우리 문학의 주공전선으로 정하시고 창작전과정을 현명하게 령도하시면서 수령형상창조를 위한 정연한 지도체계와 창작체계를 세워주시고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인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해명해주신 결과에 이루어진 빛나는 결실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의 수령을 형상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수령의 위대성을 잘 그리는것이라고 하시면서 걸출한 사상리론가로서의 위대성, 정치가, 전략가, 령도의 예술가로서의 위대성, 수령이 지닌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형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밝혀주시였으며 수령의 위대한 품모를 보여주기 위하여 수령의 혁명력사와 업적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그리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인 문제들과 미학상의 문제들, 수령형상작품에는 고유한 생리가 있다는 독창적인 리론들을 폭넓고 깊이있게 밝혀주시였다.

하여 우리의 주체문학은 1970년대와 80년대 그리고 90년대에 이어지면서 수령형상문학창작에서의 원숙기, 일대 전성기가 찬란한 빛을 뿌릴수 있게 하였다.

총서 《불멸의 력사》의 항일혁명투쟁시기권 전 15권을 완성한데 이어 해방후편인 《빛나는 아침》, 《조선의 봄》, 《50년여름》, 《조선의 힘》을 비롯한 장편소설들이 창작되고 수천권에 달하는 수령 송가작품들과 수많은 단편소설들, 다양한 형식의 극작품들이 창조되어 국보적가치를 빛내게 된것은 우리 주체문학이 거둔 가장 중요한 성과이며 이것으로 하여 우리 문학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위업수행에 크게 이바지할수 있게되였다.

이와 함께 우리의 주체문학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한 문학작품창작에서 빛나는 성과들을 끊임없이 확대해나감

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우리 문학은 우리 당과 인민들 그리고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 열렬한 념원을 따라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충성과 효성, 수령님의 위대한 품모와 자질을 그대로 체현하신 뛰어난 사상가, 정치가, 전략가로서의 고귀한 품모를 훌륭하게 형상한 총서 《불멸의 향도》의 장편소설들과 송가들, 단편소설들과 중편소설들을 창작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수행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수령님의 권위를 절대화한다는것은 대를 이어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며 수령님밖에 그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지며 어떠한 역경속에서도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수령님의 권위와 위신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고 수령님의 권위와 존엄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추호도 양보하지 않는것이라고 가르치시었다. 또한 수령님의 사상과 교시를 신조화한다는것은 수령님의 사상과 교시를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사업과 생활에서 유일한 지침으로 삼으며 그 어떤 불건전한 사상경향으로부터도 수령님의 사상을 견결히 옹호하며 오직 수령님의 사상과 교시를 받들고 그대로 숨쉬고 사고하고 행동하는것이라고 밝혀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또한 수령님의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지킨다는것은 수령님의 교시를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며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강의한 의지를 가지고 사소한 리유와 구실, 조건타발도 없이 무한한 희생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그것을 끝까지 철저히 집행하는것이라고 지적하시었다.

그러므로 우리 문학은 당의 유일사상,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철저히 무장시켜 공산주의혁명가로 준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기 위하여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충실성을 지니고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숨쉬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혁명적수령관이 투철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전형을 창조하는데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여야 하는것이다.

우리의 주체문학은 지난 20년동안 문학의 모든 형태들에서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 참다운 충신의 전형들을 수많은 창작함으로써 온 사회를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 이바지하였으며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이라는 인류력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거대한 사회적변혁을 이룩하는데 적극 기여할수 있었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불패의 통일, 이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수행하는데서 이룩된 가장 빛나는 승리이며 이 위대한 승리에 기여한 여기에 우리 문학의 공지와 자랑이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하여 충실성교양과 함께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실속있고 활발하게 벌리는 한편 혁명교양과 계급교양을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로서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 과정이므로 로동계급의 가장 혁명적인 사상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사업은 대중을 혁명적으로, 계급적으로 교양하는 사업과 떨어져서는 옳바로 진행될수 없다.

그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과정이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하기때문이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지난 기간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문학을 비롯한 영화, 가극, 연극 등 여러가지 형태에 옮기는 사업을 통하여 주체문학예술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만대에 길이 빛내이는 영예롭고 숭고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혁명전통주체 당정책교양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주체의 문학작품들과 계급교양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는 다양한 형식의 문학작품들을 수많은 창작함으로써 당의 유일사상교양에 적극 기여하였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것과 함께 경제와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가야 하는것만큼 주체적인 문학예술은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수행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여야 하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사회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대건설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문학예술이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독창적으로 밝히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전투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상사업을 앞세워 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을 이룩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근로자들을 속도전으로 불러일으키는데 사상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속도전은 모든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가는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이며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계속혁명사상의 구현으로서 자력갱생

의 기치밑에 인민대중의 높은 정치적자각과 창조적 적극성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기적을 이룩해나가는 혁명적인 사업전개원칙으로 된다.

우리의 주체문학은 모든 력량을 총동원하여 사업을 최대한으로 밀고나가면서 그 질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는것이 속도전의 기본요구로 되며 속도전을 벌리는 바로 여기에 모든것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실현하는 길이 있다는것을 생활적으로 형상한 예술적화폭들을 활발하게 창작하여야 하였다.

우리의 주체문학은 다양한 주제, 다양한 형식의 작품을 통하여 속도전을 힘있게 벌리는것이 사회주의완전승리와 공산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우리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로 될뿐 아니라 제국주의를 비롯한 계급적원썹들과의 누가누구를 하는 치렬한 계급투쟁, 힘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는것을 해명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뿐만아니라 우리 주체문학은 특히 우리에게서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백전백승의 주체사상의 기치가 있으며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당과 전체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이 있고 간고하고 시련에 찬 투쟁속에서 단련되고 정치사상적으로 각성된 재능있는 인민들이 있기때문에 남보다 몇배, 몇십배 더 빨리 달려나갈수 있다는것을 예술적으로 확증하는 우수한 작품들을 창작하는데 힘을 넣었으며 속도전을 방해하는 온갖 낡은 사상 잔재들과 불건전한 요소들을 극복하는 치렬한 투쟁속에서 속도전의 위력을 과시하고있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빛나는 승리를 반영하는 작품창작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속도전을 위한 지도를 옹계 보장하기 위하여 관료주의, 주관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품을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사상전은 사상사업에서의 전격전이고 집중적인 공세이며 섬멸전이라는것을 독창적으로 해명하시고 그 본질들을 뚜렷이 천명하심으로써 사상전의 위력한 무기의 하나인 우리의 전투적이고 혁명적인 문학이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들을 잡아주시었다.

우리의 주체문학은 사상전에서는 수령님의 교시, 당의 의도로 대중을 무장시키는것이 첫공정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대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우리 당의 정책을 민감하게 반영하고 그 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을 고수하고있는 충신의 전형들을 형상함

으로써 사회주의대전설전투에 떨쳐나선 우리 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인류문예사상사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대전설전투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경제선동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수행에서 나서는 제원칙들과 구체적인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었으며 작가, 예술인들을 경제선동으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시였다.

이 경제선동방침은 문학예술과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밀접히 결합시키고 인민들을 현행당정책관철에 힘있게 불려일으키는데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중요한 전환점으로 되였다.

그러므로 이 방침은 문학예술발전에서만 아니라 당사상사업전반에서 새로운 전환의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수행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오늘 우리의 문학과 예술이 인민들의 혁명투쟁과 더욱 밀접히 결합되고 현실생활과 깊이 련결된 문학예술로 개화발전하여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에서 분리될수 없는 당정책관철의 위력한 무기로 된것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독창적인 경제선동방침을 제시하시고 우리 작가, 예술인들을 인민들의 투쟁으로 들끓는 현실생활으로 불려주시었기때문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로작의 마지막부분에서 선전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과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밝히심으로써 당사상사업의 한 부분을 담당한 우리 작가들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대오를 꾸리며 창작태도와 창작기풍에서 위대한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시였다.

우리 작가들은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간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선구자로 될데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대로 자신을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정치사상적준비를 갖추는 한편 기술실무수준을 충분히 한 조건에서 인민들의 투쟁과 생활이 약동하는 현실속에서 깊이 들어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키우는데 힘있게 이바지할수 있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수많은 혁명적인 작품들을 창작할수 있게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제시하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은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에서만 아니라 자주성을 위한 세계인민들의 전반적인 혁명운동발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그것은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가장 위력한 무기인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전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투쟁의 세계사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었기때문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인 신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하고 세련된 령도를 따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실현하는 매우 높은 단계에 올라서게 되었다.

우리 주체문학앞에는 일심단결하여 신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보다 높은 고지대로 줄달음치고있는 우리 인민들의 투쟁과 생활을 반영한 새로운 작품들의 왕성한 창작으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더욱 힘있게 이바지하여야 할 영예롭고도 무거운 과업이 의연히 나 서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자신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더욱 철저히 완성하는데 힘을 넣어야 하며 주체혁명위업을 가장 믿음직하게 계승완성해나가시면서 인류사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변혁과 기적의 창조로 우리 혁명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힘차게 이끌어나가는 위대한 령도자, 위대한 혁명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신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절대화, 신조화, 무조건성의 원칙을 어김없이 지켜나가는 가장 충직한 혁명가로 되어야 한다.

애국자인 작가만이 애국적인 작품을 쓸수 있듯이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직한 작가만이 인민들을 충신으로 키우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훌륭한 작품을 써낼수 있다.

우리 인민이야말로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가장 혁명적인 인민이다.

지금 우리 인민들은 남너로소 할것 없이 당과 수령을 굳게 믿고 모든것을 그에 전적으로 의탁하고 있으며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신애하는 지도자동

지를 가장 높이 우러르고있으며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위대한 령도자를 결사옹위해나갈 굳은 맹세를 다지고 그 길에서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가고있다.

우리의 주체문학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신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한 강령을 높이 받들고 충효일심으로 심장을 불태우면서 당과 운명을 같이하고 당의 의도와 숨결로 숨쉬고 사고하는 충신, 효자의 참다운 전형들을 형상한 새로운 경지의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문학예술혁명의 포성을 더 거세차게 울리며 그것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수행에 더 잘 이바지하여야 한다.

우리의 주체문학은 명실공히 충실성의 문학으로 되어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실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다.

충실성교양을 외면한 문학, 충효일심으로 당을 변함없이 받들어나가는 충신을 형상하지 않은 작품은 우리에게 필요없다.

온 심장을 충성의 열정으로 불태우며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신애하는 지도자동지밖에는 모르고 당과 수령이 내놓은 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그 길에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치며 그것을 가장 큰 행복과 삶의 보람을 느끼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을 형상하는 여기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선 역사적전환의 시기에 맞는 주체문학의 새로운 면모가 있다.

우리 작가자신들이 충신으로 되고 저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빛나는 충신의 전형들을 형상한 새로운 경지의 주체문학을 건설하는 이 길에 충성의 탑을 높이 올려쌓음으로써만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높은 단계에 이른 시대의 요구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우리 작가들은 창작에서 보다 새로운 양양을 일으켜야 할것이다.

가사

사열을 받으시라

리정술

사열을 받으시라 **김정일**장군이시여
환호를 받으시라 최고사령관이시여
군기를 높이 들고 만세높이 나가는
혁명적무장력의 환호를 받으시라

사열을 받으시라 **김정일**장군이시여
영광을 받으시라 최고사령관이시여

그 손길 따라서 장수힘을 펼쳐갈
영웅적인민의 영광을 받으시라

사열을 받으시라 **김정일**장군이시여
맹세를 받으시라 최고사령관이시여
통일의 단상위에 우러러 높이 모실
불같은 민족의 맹세를 받으시라

위대한 그날이 있어...

창문밖 가로수들에 핀 서리꽃이 해빛을 담아 눈부시게 반짝이는 2월,

해마다 감격과 흥분, 환희로 맞고보내는 2월이건만 올해 2월은 류달리 새로운 감격과 깊은 추억을 불러일으킨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한 역사적인 로작을 발표하신 때로부터 20년이 되어오기때문이라.

위대한 령도자의 탄생기념일과 더불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주체사상화로 정식화하시고 온 세상에 선포하신 역사적인 로작발표 20돐 기념일, 그야말로 올해 2월은 명절에 명절이 겹친 일대 경사로운 2월이다.

그 뜻깊은 날을 맞이한 나는 불현듯 지난 기간 나의 창작생활에서의 총궐적인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라 제나름으로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된다.

나는 명작을 써서 명성을 떨친 대작가도 아닌 문학대오의 평범한 병사이다.

39년전 잡지 《조선문학》에 나의 미숙한 첫 작품이 발표되었을 때 활자로 찍힌 나의 이름과 전선병실의 탄피등잔불밑에서 쓴 글줄들이 그대로 인쇄되어나온것을 보면서 가슴터지는듯한 환희와 자부심을 느꼈다. 그때 나는 잡지를 펼쳐두고 한달음에 고향의 어머니한테로, 전선부대의 전우들한테로, 미성년의 짝사랑을 매몰차게 외면하던 처녀병사한테로 달려가고, 날아가고싶은 심정이였다. 마치 온 세상사람들이 나를 알고있고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는것 같았다. 아, 그때의 그 순진한 감정, 첫사랑의 입맞춤과 같은 그 순결무후한 감정을 어찌 잊을수 있으랴!

어리석게도 그때 나는 자기에게 큰 작가로 될수 있는 천부의 그 무엇이 있는것 같고 앞에 성공의 대로가 환히 열린것 같았다.

그런데 운명이란 인심이 후하지 못하고 린색한탓인지 그렇게 되지 못하였다. 5년, 10년, 15년이 지나도록 신통한 작품을 한편도 쓰지 못하였다. 그럴때면 쓰디쓴 실패, 몸부림, 락망, 후회가 뒤따랐다.

남이 쓴 작품들은 신통치 않아보이고 자기가 쓰자면 그만کم도 되지 않았다. 불같은 논쟁,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모욕》을 주기도 한것은 몇번이었던가.

첫 작품이 발표되었을 때의 그 아름다운 감정에 속아 자기한테 무엇이 있는줄로 알고 성공이 적은 이 어려운 길에 들어선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가슴을 저미었다. 문학대오의 말단병사는

성공이 없는 깊은 까닭을 썩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 나는 우산장창작실로 가서 여러달동안 전쟁물주제의 장편소설을 안고 씨름하였다. 군관복을 벗고 처음으로 쓰는 장편소설이였다.

창작기량도 어리고 큰 작품을 다루어본 경험도 없어 쏟아붓는 열정에 비하면 작품이 너무나도 잘되지 않았다.

겨우 끝낸 장편소설의 초고를 료독한 출판사의 편집원들과 선배작가들은 한결같이 작품이 산만하고 기발하고 흥미있는 전쟁일화들을 묶어놓은것같은 감이 드는데 이것은 주제가 너무 범박한데 원인이 있다고 하였다. 사실 나는 작품에서 인민군대의 대중적영웅주의를 형상하려고 하였던것이다. 그것은 새롭게 탐구되고 발견된 독창적인 주제가 아니였다.

고요한 우산장의 긴긴 밤 나는 수치스러운 범박섬에서 탈피하려고 무진 애를 썼다.

그무렵 어느날이였다.

평양에서 우산장으로 나온 작가동맹의 책임일군으로부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전국당선전부문 일군들앞에서 중대한 연설을 하시였다는 말을 들었다.

그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발표하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당 사상사업의 몇가지 과업에 대한 역사적인 로작전문을 전달받았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입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자, 이것은 혁명과 건설사업, 우리 생활의 모든 부문을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혁명적변혁의 폭풍을 일으키려는 철의 의지가 깃든 부름이였다.

우산장에서는 로작에 대한 학습과 연구토론회들이 벌어졌다. 그 과정에 나는 온 사회의 변혁에 앞서 우선 자기 작품부터 주체사상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그런 관점에서 미완성작품을 더듬어보게 되었다.

어느날 어느 순간이었던지 가슴속에서 장쾌한 폭발이 일어나는듯한 걸잡을수 없는 환희와 함께 새로운 착상이 번개쳤다.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방어전략, 갱도전, 주

제전법의 거대한 생활력과 그 승리를 구가하는 작품으로 되게 하자!

초고에는 큰 사상의 안받침이 없었다. 해결책은 쉽게 떠올랐다.

어느덧 산만하던 작품의 모든 형상부분들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일관한 논리의 골조가 생겼다. 모든 형상체계에 혈액이 통하고 줄기찬 사상적지향선이 뻗어 창백한 유기체에 혈액이 피어나고 생명력이 부여되었다.

장편소설 《돌과구》는 이렇게 완성되었으며 미숙하게나마 독자들의 사상미학적교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작품으로 되었다.

나는 이 자그마한 체험을 통하여 문학작품은 형식적기교의 산물이 아니며 위대한 사상에 안받침될 때 일정한 수준의 작품으로, 사상미학적감화력을 가진 창조물로 완성될수 있다는 진리를 체득하게 되었다.

참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역사적인 1974년 2월 19일로작은 나뿐만아니라 전체 작가들의 창작활동과 우리 문학운동전반에 거대한 영향을 미친 강령적인 문헌이었다.

나는 첫 장편소설을 끝낸 다음 김책제철련합기업소 확장공사장에 나가 현지작가로서 현실체험을 하게 되었다.

그때 나는 문학의 테두리를 벗어나 사회주의대건설의 거창한 격류속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1974년 2월 19일로작이 우리 혁명과 건설, 우리 사회주의대건설자들속에서 어떤 변혁을 일으키고 기적을 창조하는가를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행운을 지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역사적인 로작에서 사회주의대건설의 기본전투형식은 속도전이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속도전의 혁명적방침을 힘있게 관철할때 대하여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거인적인 령도력으로 이끌어주시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열 사봉벌에서는 대흑색야금기지가 산악처럼 일떠서고있었다. 그 시절 나는 흑색야금공업건설기업소의 설비조립직장 연공작업반에 소속되어 여러달동안 연공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건설장에서는 련일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고있었다. 복잡한 력학계산을 동반하는 창발적인 로동을 하고있는 연공들은 반년이상이나 걸려야 조립할수있었던 중설비들을 한달남짓한 기간에 아득한 공간에 끌어올려 척척 조립해내는것이였다.

건설장에는 련속작업, 확대식지상조립이라는 말이 류행되고있었으며 벽체같은 전투속보판에는 《충성의 속도》, 《속도전의 불바람》이란 힘있는 글발들이 련일 나뉘었다.

부강한 조국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시위하는 철의 바다, 지축을 뒤흔드는 대기계군단의 동음, 수백톤의 설비들을 끌어올리는 쇠바줄들에서는 기름이 땀물처럼 흘러내리는가 하면 불길이 펄펄 일었다.

대담하고 통이 크고 혁신적인 연공들은 기존작업방법과 보수적인 사고방법을 깃부시고 속도전의 불바람을 일으키는것이였다.

나는 하루에도 몇번씩 어디서 이런 힘이 용솟음치는가 하고 자신에게 묻곤하였다. 나는 연공들의 학습과 모임, 로동에 함께 참가하면서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친애하는 그이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에서 밝혀주신 속도전의 혁명적방침이였다.

위대한 령도자의 사상을 심장으로 받아안은 로동계급의 건설로동은 세인을 경탄케 하는 혁신과 창조의 거창한 운동이였다.

나는 대하처럼 굵이치는 그 거창한 운동의 격류속에서 중편소설 《불바람》의 구성작업을 하고 초고를 썼다. 로동계급의 충성의 열정이 나의 몸에도 옮겨졌는지 잠없는 밤을 거듭 보내고도 피로를 몰랐다. 쓰고 또 썼다. 하루가 다르게 키돋움하며 산악처럼 일떠서는 대야금기지의 우중충한 강철구조물들은 종이에 글을 적어가는 《서생》을 굽어보며 빨리 따라오라고 부르는것만 같았다.

이렇듯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온 세상에 선포하신 그날이 있어 나의 창작활동은 새로운 전환을 이룩할수 있었다.

경사로운 2월의 명절이 다가오는 오늘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위대한 령도자의 찬란한 업적을 돌이켜볼 때 무엇보다도 가슴을 뜨겁게 치는 것은 혁명적수령관을 정립하시고 수령형상문학을 만발하게 개화발전시키신 불멸의 업적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4.15문학창작단을 튼튼히 꾸려주시고 총서 《불멸의 력사》를 비롯한 혁명소설창작을 세심하게 지도하시였으며 온갖 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자애로운 스승의 손길로 사상예술적으로 미숙한 우리 작가들을 이끌어주시였기에 오늘 우리 혁명문학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에 훌륭히 이바지할수 있게 되었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1932년》, 《고난의 행군》, 《백두산기슭》, 《혁명의 려명》, 《대지는 푸르다》, 《낮은 울랐다》, 《준엄한 전구》, 《압록강》, 《잊지 못할 겨울》, 《근거지의 봄》을 비롯한 모든 혁명소설들의 갈피갈피마다에는 위대한 스승이신 그이의 천재적인 예지와 로고가 깃들어있다. 이 작품들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밑에 어떻게 완성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는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정녕 오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만발하게 개화된 우리 혁명문학의 화원은 20여성상에 걸치는 그이의 불면불휴의 로고의 결실이다.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작품들뿐아니라 그것을 쓰는 작가들의 생활과 운명에 대하여서도 고매한 의리심과 인간애로 다심하게 보살펴주시었다.

어느 한 소설가가 불치의 병으로 신음하고있을

때 당중앙위원회의 한 책임일군을 병원에 보내여 립종을 앞둔 그의 가슴에 《김일성훈장》을 달아준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슬하의 작가들에 대한 친애하는 그의 사랑이 어떤것인가를 웅변으로 말하여 주는것이다.

위대한 사상리론가, 위대한 실천가의 손길에 이끌려 오늘 우리 문학은 주체사상화 된 주체문학으로 성장하였으며 우리 작가들도 키가 자라고 심장이 커졌다.

2월의 서리꽃이 눈부시게 훑날리는 창가에 서서 나는 감사의 정에 젖어 위대한 스승의 업적을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이의 불멸의 업적은 해와 달이 바뀌고 력사가 흐르면 그 심각한 의미가 깊이, 더 깊어 밝혀질것이다.

소설가 리종렬

항일유격대식배낭을 지고

우리 혁명위업의 빛나는 계승으로 하여 력사의 새 시대를 맞이하는 환희와 감격이 절정을 이루었던 1974년 2월 19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강령을 선포하시던 그 력사적인 전국당선전일군강습회의장 좌측 가운데자리에서 나도 목청껏 만세를 불렀다.

그때 나는 병사시절과 대학시절이 전부였던 젊은 나이였다.

하지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대학을 졸업한 젊은 사람들을 대담하게 등용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한개 군의 당사상전선을 맡겨주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 불러주시었던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 력사적인 연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주체사상화로 정식화하시여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였을뿐만 아니라 그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구체적인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선전도 하고 선동도 하여야 합니다.

항일유격대식으로 사업하는 여기에 선전선동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수 있는 기본담보가 있습니다.》

항일유격대식배낭, 여기에는 우리 젊은 당선전일군들이 낡은 형식주의때에 묻지 않고 언제나 항일유격대의 정치일군들처럼 대중과 혼연일체가 되어 제손으로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둘줄 아는 인간개조의 능수로 키워주시려는 친애하는 그이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담겨져있었다.

우리는 길을 떠났다. 그이께서 메워주신 배낭을 지고 협동의 전야로...

따사로운 향도의 해발로 하여 어데 가나 새삶의 환희와 기백으로 약동하는 봄이었다.

나는 부서에 새로 들어온 오동무와 함께 고읍리 화동별로 나갔다.

우리는 이날 배낭을 바람막이바자기등에 걸어놓고 농장원들과 함께 마른 논둑감기작업을 하면서 이미 배낭에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농장원들속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최근 농업부문에 주신 교시를 알기 쉽게 해설해주었다.

그리고 당원들이 당면한 영농전투에 앞장서도록 분공도 짜고들었고 청년들을 모여놓고는 아직 마을에 남아있는 거름을 모조리 실어낼 방도도 의논했다.

당의 의도를 깨달은 마을사람들이 분발하기 시작하자 우리는 리당을 찾아갔다.

리당비서가 말하기를 그 마을에 갇힌 방송실처녀가 작업반에 웬 체대군인청년 2명이 배낭을 지고오자바람으로 논판에 들어가 일을 하더라고 알려주어 한번 찾아가볼 생각이였다고 해서 한바탕 웃었다.

5작업반 실태를 듣고난 리당비서는 그 작업반사람들이 이악하지 못해서 농사일이 제일 처졌다고하면서 5작업반에서 봄씨불임과 모내기 끝나는 날이 농장적으로 끝나는 날이라고 했다.

우리 5작업반의 실태에 기초하여 리안의 세포비서, 선동원협의회를 조직해서 위대한 수령님의 최근교시를 알려주고 여러가지 정치사업과제를 준다음 다시 5작업반에 내려갔다.

당선전일군들이 농장원들속에 들어가면 그저 새영화나 기동예술선전대를 구경하자고 하고 방송차를 불러오자고 하기가 일쑤이다.

그렇다고 온 군의 사상사업을 보면서 자기가 나간 단위만 선전선동수단을 불러낼수는 없는것이다.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이미 당선전일군들은 직관장식을 평장히 하면서 몇따기식정치사업을 하지 말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강사, 선동원이 되여 당정책을 깊이 해설해주라고 하시지 않았는가.

우리는 농장원들과 함께 논판의 거름을 퍼면서 그들이 당의 의도를 더 깊이 알도록 《로동신문》

시설과 앞선 농장들의 소식들을 알려주었으며 거름을 실어내던 야밤에는 우등불두리의 오락회에서 새 노래도 배워주고 《백두산》 시도 읊어주었다.

나는 그날밤 오동무와 함께 농사차비로부터 시작해서 5작업반사람들의 긍정자료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그들을 불러일으키는 방송원고를 품들여 썼다.

다음날아침, 강건너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봄철영농전투에 떨쳐나선 5작업반 농장원여러분!》하는 방송원의 쟁쟁한 목소리와 힘찬 행진곡이 터졌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강건너를 쳐다보았다.

방송원은 계속하여 전쟁로병인 씨레공아바이며 쌍둥이 어머니인 모판관리공, 제대군인 프락포르운 전수 하면서 5작업반 사람들의 이름과 특성, 일본새를 구체적으로 짚어가면서 격조높은 선동을 들이댔다.

옆에서 불이나게 일손을 다그치던 아주머니와 청년들이 한마디씩 했다.

《아니 저 방송원이 우리 마을 사람들을 어떻게 손금처럼 다 알까?》

《방송차가 그야말로 명중탄을 잘 쏘는구만.》

그렇다, 명중탄, 이것은 우리 당 선전일군들이 언제나 명심할 말이다.

산에다 어방대고 자꾸 대포를 쏘면 썰이나 노루가 맞으리라고 생각하는 식으로 선전사업을 해서는 안되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군중속에 들어가자고 앉고서는 그들의 심금을 울리는 명중탄을 만들수 없는것이였다.

5작업반 모내기전투는 첫 시작부터 기세충천하였다.

그리하여 작업반모내기는 농장이 끝나는 날보다 이를 앞당겨 끝났다.

우리는 5작업반원들과 지원자들에게 먼저 끝냈다고 해서 이웃작업반을 강건너 불보듯해서야 되겠는가, 도와주자고 호소했다.

모두 함성을 지르며 호응했다. 우리는 방송차를 불러 앞세우고 그뒤에 남은 모를 실은 프락포르, 모내는 기계, 그다음 작업반원들과 지원자들이 기발과 구호, 쟁기를 들고 아직 모내기가 한창인 소재지 벌판으로 행진해갔다.

노래도 부르고 구호도 웨치면서...

참으로 그때 5작업반원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온 화동벌이 깜짝 놀라서 쳐다보며 호응했다.

농장적으로 모내기전투의 마지막 총돌격전에 불이 붙었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대로 모내기를 5

월 25일까지 전부 끝내게 되었다.

그때 리당비서는 우리에게 의의깊은 말을 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직접 받아안고 온 당선전일군들이 다릅니다. 그이의 령도로 우리 농촌당정치사업이 생신하게 전개되고 전에없이 들판이 약동하는 산 현실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항일유격대식정치사업은 사상사업에서 고질적으로 남아있던 낡은 틀을 없애고 대중을 혁명적양양으로 일으키는 생기발랄한것으로 되었다.

지금 생각하면 물론 성과도 많았지만 첫 사업을 시작할 때는 서툴고 미숙한 일들이 또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하지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당일군들에게 앓을 자리, 설자리, 전화를 거는 법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학습방법, 자기말로 구수하게 하는 강연본새, 때와 장소, 군중들의 수준과 심리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들이대는 선동사업 등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의 천만가지 방법들을 일일이 다 가르쳐주시었다.

그이께서 안겨주신 사상적량식과 방법들로 하여날이 갈수록 배낭은 불룩해졌고 정치사업은 활기를 띠었다.

수백개의 폐기논으로 뒤덮인 오류동등판의 토지 정리작업도 우리는 등판에 지은 초막에 배낭을 풀어놓고 거기서 침식을 하면서 농장원들과 지원자들을 불러일으켜 규격포전으로 만들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경제선동의 화력으로 만년광산에서 쇠돌생산의 새로운 혁명적양양이 일어나던 1980년대초에도 우리 선전부 일군들은 모두가 배낭을 지고들어가 로동자합숙방들에 풀어놓고 작업탐사광막장에서 광부들과 한덩 어리가 되어 그들을 불러일으켰다.

3대혁명소조원들과 함께 심심산골 리에 배낭을 벗어놓고 무심히 흐르던 매양촌에 11개의 소형발전소를 건설하고 전기화가 높은 수준에서 완성된 문화농촌의 본모기를 만들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기쁨을 드린 나날은 또 얼마나 보람넘친 정치선전, 경제선동의 나날이었던가.

나는 항일유격대식의 보람찬 정치선전의 나날에 배낭이나 가방속에 언제나 시와 소설책을 많이 가지고나갔다.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불러일으키는데서 시와 소설은 매우 큰 감화력과 선동성을 가진 위력한 무기라고 항상 가르치고계시지 않는가.

형상적으로 매우 미숙한 나의 시들은 거의다 발표하기 위해서보다 현실속에서 사람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쓴 시들이었다.

사람들을 정황에 맞게 교양하자니 시뻘만아니라 재담도 쓰고 사이극도 만들었고 군안에서 일어나는 감동적인 사변들과 긍정적소행들은 신문기사나 실화문학, 수많은 방송원고도 쓰지 않을수 없었다.

희망의 년대, 투쟁의 년대 90년대가 시작되는 첫날 나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항일혁명의 사적들을 전국적범위에서 찾도록 하여주시는 방침을 받들고 발굴대원들과 함께 배낭을 지고 황해북도에서 제일 높은 하람산이 솟아있는 남천리로 나갔다.

깊은 눈길을 헤치면서 토착민들을 찾아갔다.

그들과 함께 하람산에서 찾아낸 껍질벗긴 나무들에서 《항일명장》, 《항일녀장수》, 《백두광명성》, 이 나라 3대통운의 자랑을 아로새긴 혁명적 구호문헌을 발굴했을 때의 그 감격을 무슨 말로 다 이야기할수 있으랴.

그때의 감격을 안고 나는 농촌집웃방에서 시초 《내 고향 하람산》을 써서 후에 발표했고 그것을 노래 이야기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전국혁명사적일군대회에서 토론하는 영예를 지니었을뿐만아니라 남천리의 농장원들 100명이 출연하는 노래이야기를 인민문화궁전무대에서 대회참가자들앞에서 공연하는 영광을 지니었다.

참으로 항일유격대식배낭을 지고 달려온 나날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세심한 가르치심대로 들끓는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속에 들어가 대중을 가르치고 대중속에서 배우면서 당선전일군으로서의 수준과 능력을 키워온 보람찬 성장의 나날이었다.

힘이 모자라면 힘을, 지혜가 모자라면 지혜를 주시고 인정이 모자라면 뜨거운 인정을 부어주시며 우리 당 선전일군들을 키워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심려와 그 로고를 무슨 말로 다 이야기할수 있으랴.

혁명의 배낭은 대를 이어 지고야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혁명의 장래운명을 두고 새 세대 청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할데 대하여 얼마나 간곡히 가르치시고계시는가.

청년들이 자기의 향토를 사랑하고 꽃피우는 과정을 통해 사회주의애국주의로 교양하고 집 떠나 고향 떠나 조국보위초소와 사회주의대건설장들에 달려간 청년들과 고향의 뉴대를 이어주면서 그들이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모두 위훈떨치고 돌아오도록 하는것은 중요한 정치사업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자기가 나서자란 고향에서 당사업을 하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고 했다.

그 말은 옳은 말이었다.

사람과의 정치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당일군이 사람들의 매력과 성격을 깊이 안다는것은 얼마나 좋

은 일인가.

우리는 전쟁시기부터 우리 군에서 배출한 영웅들의 전기를 찾아내어 청년들에게 알려주었고 서해갑문 건설에서 신평고등중학교 졸업생인 22살의 최명철이 영웅칭호를 받았을 때에는 《로동신문》과 《문학신문》에 같은 제목으로 나간 가사와 시 《위훈떨치고 돌아오라》, 《조선문학》에는 실화문학 《고향은 영웅을 자랑한다》를 발표했고 노래이야기도 만들어 군적으로 공연했다.

대건설장에서 처녀들이 공로메달을 받아도 누구의 딸이라고 밝히서 군속보관에 영예의 사진을 크게 내주었다.

그러니 광복거리와 북부철길, 발전소와 고속도로로 건설장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편지를 보내왔다.

고향의 부탁대로 모두가 당과 조국을 위하여 위훈떨치고 돌아오겠다는것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지난해 딸을 영예군인에게 시집보낸 우리 가정의 자료를 보고받으시고 친히 분에 넘치는 감사와 뜨거운 배려를 돌려주시고 온 나라가 들썩하게 소개해주신데도 바로 우리 일군들이 자기 자식들과 청년들을 혁명적으로 준비시킬것을 바라시는 크나큰 신임과 기대가 담겨져있지 않는가.

우리 집 딸애의 소행을 두고 또다시 많은 편지들이 왔다.

조국보위초소에서, 건설장에서, 대학에서... 모두 우리 당의 일심단결의 화원에 한떨기 꽃으로 청춘을 빛내이겠다는 훌륭한 결의들을 담았다.

그들모두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위하여 위훈떨친 승리자의 자랑을 안고 배낭을 들썩이며 돌아올것이다.

그렇수록 나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20년전 우리 당 선전일군들에게 항일유격대식배낭을 지워길차비를 해주신 그날, 그 영광의 자리에 자신을 세우고 사회주의건설로 봄비는 협동의 전야와 지하막장, 채벌장의 로동계급과 농장원들, 청년들을 찾아가기 위하여 신들메를 더욱 조이군한다.

나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지고 군중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면서 군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시킴으로써 자신을 당선전일군으로, 시인으로 키워주시고 내세워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겠다.

신평군당위원회 선전비서 **박웅전**

위대한 인간의 품모에 대한 전인민적인 매혹

-가사 《그이의 한생》과 《매혹》에 대하여-

김순림

1

가사 《그이의 한생》이 사람들의 심장을 그토록 뜨겁게 울리며 절절하게 불리우고있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굳은 신념을 지니시고 한평생을 인민을 위해, 조국을 위해 걸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한 한생이 비상히 강렬한 정서속에 철학적으로 심오한 뜻을 안고 울리기때문이다.

1. 아침을 맞으시며 펼치는 사색
언제나 인민 위해 시작되여라
한밤을 지새시며 이어진 사색
언제나 조국 위해 깊어지여라
(후렴)
인민을 위해 조국을 위해 걸으시는 그 길에
아버이장군님 **김정일**장군님 한생이 있네

2. 이슬길 밟으시는 그이 발걸음
우리 집 트랙에도 닿아있어라
눈비를 헤치시는 그이 발걸음
조국땅 그 어디나 닿아있어라
(후렴)

3. 온 나라 대가정을 보살피시며
크나큰 기쁨만을 안겨주시네
힘난한 세상일을 헤아리시며
행복의 보금자리 지켜주시네
(후렴)

가사 《그이의 한생》은 우리 혁명이 반세기를 넘어 끊임없이 전진해온 새로운 력사의 시점에서 《이민위천》의 숭고한 리념을 지니시고 인민을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에 대하여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시대적감정, 생활감정의 진실에 침투하여 감동적으로 노래하고있다.

가사의 사상예술적성과는 인민의 령도자의 숭고한 형상을 폭이 있고 깊이가 있으면서도 친근한 서정적형상으로 노래하고있는데 있다.

노래는 인민을 위해 모든 심혈을 다 바치시는 령도자의 한생을 뜨거운 서정적형상으로 펼치고있다.

가사에서는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고 행복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사색을 펼치시고 쉬임없이

인민대중의 생활감정의 정수를 진실하고 깊이있게 반영한 우리의 시가문학은 오늘 사회주의리념의 승리를 위한 투쟁이 류레없이 간고하고 첨예하며 풍파많은 어려운 길을 헤쳐가는 정세속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위대한 령도자를 잘 받들어모실때 사회주의위업이 빛나게 수행되게 된다는것을 사상정서적으로 뜨겁게 간직할수 있게 하여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를 어떻게 받들어모시며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다.

최근 우리 시인들은 혁명투쟁의 이 위대한 진리를 탁월한 령도자에 대한 뜨겁고도 열렬하며 격조높은 시형상으로 힘있게 확증함으로써 사람들의 혁명적수령관확립에 힘있게 이바지하고있다. 여기에서 가사 《그이의 한생》(리정술 작)과 《매혹》(전동우 작)은 특출한 성과를 거둔 작품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의 위대성과 함께 당의 위대성을 형상하는것은 사회정치적생명체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 이바지할 사명을 지닌 우리 문학의 본성적요구이며 가장 영예로운 과업이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 신뢰의 정으로 가슴불태우고있다.

우리앞에 무거운 혁명과업이 나서고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이 강화될수록 우리 인민들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더욱 굳게 믿고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맡기고있으며 그이의 령도따라 신심과 락관에 넘쳐 역세계 싸워나가고있다.

세월이 흐르고 혁명이 전진할수록 심장깊이 간직되고 뜨겁게 불타오르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는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 준엄한 투쟁의 불길을 헤쳐오는 행정에서 형성되고 굳세어진 철석같은것이며 령도자의 품속에서 누리는 행복과 영예로 하여 높이 발양되는 티없이 맑고 고결한 사상감정이다.

가사 《그이의 한생》과 《매혹》은 위대한 령도자에 대한 시대와 인민의 다함없는 신뢰심과 흠모심을 정서깊게 노래하고있다.

견고 또 걸으시는 자애로운 그 영상이 생동한 정서적화폭속에 형상되고있다.

위대한 아버지의 숭고한 품모가 특징적인 상징적 비유로부터 형상적세부에서 이어지면서 폭이 있고 깊이있게 부각되고있다.

특히 가사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한 품모를 인민과의 관계속에서 깊이 파고들면서 인민을 위한 헌신의 열정과 그 기저에 굽이치는 인민에 대한 위대한 사랑을 노래하고있으며 그것을 통하여 인민의 행복을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주체적인 인생관을 서정적으로 깊이 해명하고있다.

이 세상에서 인민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시고 인민을 위함이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것을 다 마련하여주고계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자주적인 삶을 누려가는 인민들의 행복한 모습에서 유일한 락을 찾으시고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그이께서는 어떤 로고도 달게 여기시고 기쁘게 걸으시는것이다.

아침을 맞으시며 펼치는 사색이 한밤을 지새며 이어지고 눈비를 헤치시는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인민들이 살며 일하는 조국땅 그 어디에나 찾고찾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영상을 모신 서정적형상의 철학적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서정적형상은 주체의 철학적인념을 지니시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의 실현을 위하여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튼튼히 고수하고 빛내여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한 업적이 어떻게 이룩될수 있었으며 그이의 위대성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를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아침을 맞으시며 펼치는 사색이 한밤에도 이어지는 숭고한 시적화폭과 이슬길 밟으시고 눈비를 헤치시는 예술적형상에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인민적품모가 아로새겨져있으며 인민의 령도자의 위대성의 근본을 밝히는 시형상의 철학적깊이가있다. 그리고 험난한 세상살이를 헤아리시며 온 나라의 대가정을 보살피시는 자애로운 모습에는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중심이시고 어버이이신 위대한 령도자의 모습이 숭엄히 부각되고있다.

참으로 가사 《그이의 한생》은 간명한 시적표현속에서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체현하시고 인민에게 행복과 기쁨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위대한 령도자, 위대한 인간의 불멸의 활동과 숭고한 품모를 정서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하였다. 바로 여기에 이 가사의 사상예술적성과가 있다.

2

위대한 령도자를 노래하는 우리의 가사문학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고 받드는 우리 인민의 구체적인 생활감정에 기초하여 그 양상을 새롭게

개척하고 더욱 풍부화하고있다.

가사 《매혹》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흠모와 념원의 감정에 기초하여 보다 서정적이고 절절한 양상의 시세계를 개척하고있다. 이것은 우리 송가의 화원에 새롭게 태어난 하나의 특색있는 가사형상이다.

이 가사는 무엇보다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한 인간세계가 인민대중에게 불러일으킨 새로운 감정의 발현에 기초하고있다.

1. 것처럼 소박하신분 내 아직 못보았네
그처럼 순결하신분 내 아직 못보았네
만나면 순간에 온 뉘이 끌리어
한생을 맡기고 온 세상을 맡기는
아 그이는 **김정일**동지
2. 것처럼 뜨거우신분 세상에 또 계시랴
그처럼 고결하신분 세상에 또 계시랴
만나면 순간에 온 뉘이 끌리어
심장을 합치고 운명을 합치는
아 그이는 **김정일**동지
3. 한없이 친근하신 우리의 아버지
만민이 우러르는 우리의 어버이
만나면 순간에 온 뉘이 끌리어
운명도 미래도 그 품에 맡기는
아 그이는 **김정일**동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인간세계는 인민들로 하여금 끝없는 매혹과 절절한 흠모를 불러일으켰다. 위인에 대한 완전한 매혹에 기초하고있는 절절한 흠모의 감정은 송가형상에 새로운 양상을 가져오고있다.

우리 인민들이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것은 무엇보다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인간적으로 완전히 매혹된데 기초하고있다.

인민들이 령도자를 마음속으로부터 숭배하고 따르게 되는것은 평범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더우기 전사회적으로 한 위대한분을 숭배하고 흠모하는것은 결코 도덕적의무감이나 론리적사고의 귀결에 의해서는 될수 없다.

가장 진실하고 절대적인 신뢰심은 위대한분에게 인간적으로 완전히 매혹될 때 생겨나게 된다. 매혹은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사상감정의 정화이다.

위대한분에게 완전히 마음이 끌리고 자기의 운명도 다 맡길 일념으로 심장이 불타오르는 이러한 정신세계에서는 오직 뜨겁고 진실하며 순결한 사상감정만이 분출하게 된다. 사랑도, 헌신도, 충실성도 인간적매혹에서 생겨날 때 그 어떤 사심과 변심을

모르는 영원한것으로 된다.

가사 《매혹》은 위대한 인간에 대한 우리 인민의 이러한 순결하고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그지없이 친근한 정서로 노래하고있다. 가사에 펼쳐진 이러한 인간적매혹은 령도자의 위대성에 대한 체험이 없이는 생겨날수 없다.

우리 인민들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을 오랜 기간의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심장깊이 체득한 인민이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전성기를 펼쳐놓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탁월한 령도에서 우리 인민은 그 어떤 폭풍도 뚫고나갈수 있다는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다지게 되었다. 이러한 우리 인민의 체험에 기초하여 분출하는 인간적매혹을 노래하고있기때문에 서정이 것처럼 뜨겁게 안겨오는것이다.

가사에서 노래한바와 같이 것처럼 소박하시고 순결하시고 것처럼 뜨겁고 고결하신분은 이 세상에 없는것이다. 그이는 한없이 자애로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만민의 아버지이시다.

참으로 사람들을 완전히 매혹시키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인간적품모는 비할바없이 특출하고 위대한것이다. 우리 일군들과 인민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을 받을 때마다 그이의 비범한 통찰력과 한없이 넓은 식견, 심오하고 해박한 지식에 감탄을 금치 못하군한다.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속깊이까지 속속들이 비쳐들어 삶의 기쁨과 희열과 랑만을 안겨주기에 우리 인민은 그이의 품을 태양의 품으로 따르는것이다.

가사 《매혹》은 위대한 인간세계에 대한 완전한 매혹이 뜨거운 흠모의 열정과 결합됨으로써 자기의 서정적인 특질을 새롭게 나타내고있다.

사상리론적예지에서 비범하고 령도에서 현명하며 덕성이 더없이 숭고하기에 혁명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달려가 안기고싶고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맡기고싶은것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품이다. 그 품을 떠나서 순간도 살수 없다는것이 우리 인민들의 한결같은 신조이다. 우리 인민은 운명도 미래도 그 품에 다 맡기는것이다.

가사는 령도자에 대한 우리 인민의 매혹의 세계를 이처럼 강렬한 흠모의 감정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정서깊게 노래하고있다. 위대한 인간에게 매혹된 사람들의 사상정신세계는 더없이 숭고하고 아름다운것이다. 자나깨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그리워하고 기쁜 일이 있건 어려운 일이 있건 그이께 편지를 쓰며 굳은 맹세를 다지는것도 우리 혁명전사들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인간적매혹을 떠나서 생각할수없고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어려운 초소에 달려가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구상을 꽃피워나가

는것도 우리 인민들이 그이께 기쁨과 만족을 드려려는 티없이 순결한 마음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는 것이다.

참으로 가사는 위대한 인간에게 매혹된 불타는 심장을 안고 살며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정신세계를 지닌 긍지높은 인민이라는것을 절절한 흠모와 념원의 정서속에 뜨겁게 구가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에 완전히 매혹된 전인민적인 사상감정을 그이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에 충성과 효성을 다하려는 시대적인 의지와 념원으로 깊이 파악하고 정서적으로 파고드는것은 우리 시인들의 가장 영예롭고 숭고한 의무인 동시에 근본적인 관점이며 태도이다.

가사 《매혹》은 가장 숭고한 경지에서 정화된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을 령도자와 인민사이의 관계속에서 감동깊이 보여주고있다. 령도자와 인민사이의 관계는 령도하고 령도받는 관계인 동시에 생명을 주고받으며 운명을 보살피고 의탁하는 관계이다. 인민의 운명에 대한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곧바른 길로 손잡아 이끌어줄 때 령도자는 인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게 된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는 혁명의 령도자이실뿐아니라 위대한 스승이시고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다.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정치의 기본특징을 이룬다.

가사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한없이 친근한 신 우리의 아버지, 만민이 우러르는 인민의 아버지로 뜨겁게 흠모하면서 그이의 품을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는 자애로운 품으로 노래한것은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우리 인민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숭고한 높이에 이른것인가를 정서적으로 확증해준 뜻깊은 시형상이다.

위대한 인간에 대한 완전한 매혹에 바탕을 둔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을 뜨거운 흠모의 서정으로 노래한 여기에 이 가사의 독특한 시형상이 있다.

3

가사 《그이의 한생》과 《매혹》은 끝없이 경건하고 숭엄한 감정과 한없이 소박하고 친근한 감정의 유기적인 통일속에서 송가형상을 창조함으로써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정서적으로 심오히 천명하고있다. 이 작품들은 구체적이며 개성적인 생활감정과 정서를 통하여 보편적이며 일반적인 생활감정을 웅심깊이 울려줌으로써 심오한 정서를 마련하는 시적일반화를 훌륭히 실현하고있다.

가사 《그이의 한생》에서 펼쳐진 위대한 령도자의 한생에 대한 숭엄한 감정과 가사 《매혹》에서

환기되는 위대한 인간에 대한 열렬한 흠모의 감정은 끝없이 친근하게 안겨오면서 무한히 소박하게 감수되면서도 경건한 세계에 이끌려가고있다. 여기에 바로 이 가사들에서 령도자의 위대성을 시화하는 정서적일반화의 훌륭한 성과가 있다.

경건하고 숭엄한것이 무한히 소박하고 친근한 느낌으로 펼쳐질 때 위대한 사상과 영웅적인 투쟁, 불멸의 업적이 간직되고있는 전인민적인 성격과 본질이 심오히 표현되게 되며 또한 소박하고 친근한것이 끝없이 숭엄하고 경건한 세계에 승화될때 인민적인것이 가장 위대한 사상과 리념, 위대한 투쟁 실천과 하나로 련결되어 최상의 경지에 오르게 된다.

바로 여기에 이 량자의 유기적인 결합과 통일이 가지는 참된 의미가 있으며 따라서 가사 《그이의 한생》과 《매혹》에서 훌륭히 실현된 시적일반화가 가지는 진리성과 보편성이 있는것이다.

가사 《그이의 한생》과 《매혹》에서와 같이 한없이 친근하고 소박한 속에서 끝없이 경건하고 숭엄한 세계를 뚜렷이 밝혀내어 정서적으로 시화하는 시적일반화를 훌륭히 실현하고있다. 하여 위대한 령도자에 대한 인민적인 감정을 위대한 인간에 대한 정서적체험으로 높이 승화시키고있다. 이러한 시형상은 수령을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중심으로,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최고뇌수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지닌 위대한 존재로서 감동깊이 노래할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이 가사들은 령도자와 인민대중과의

호상관계를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안에서 이루어지는 혈연적이며 운명적인 관계로서 강렬히 체험하면서 위대한 령도자를 우러르는 시대와 인민의 지향과 념원을 노래함으로써 숭고한 열정의 높이에 오르게 되었다.

가사에서 실현된 이러한 시적일반화는 작품의 진실성과 철학성을 확고히 담보해주고있으며 위대한 령도자를 칭송하는 가사문학의 혁신적인 전진을 보여주는 생동한 모습이다.

인민은 언제나 진실만을 받아들인다. 자기를 위해서고 참답게 이끌어주는 위인에게 마음의 대문을 열어제끼고 불타는 열망으로 따르는것이 인민이며 인민의 티없이 깨끗한 마음이다. 그래서 위인을 모신 인민의 정신세계가 것처럼 숭고한 높이에 오르게 되는것이다.

이 위대한 생활의 진리를 높은 시형상으로 노래한것으로 하여 가사 《그이의 한생》과 《매혹》은 사람들의 심장을 이처럼 뜨겁게 울려주며 노래로 불리워지는것이다.

헤아릴수 없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나가는 력사적 행정에서 이루어지고 공고화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신뢰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고 그 무엇으로써도 허물수 없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령도자에 대한 전인민적인 감정을 더욱 정서깊게 노래한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사회주의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더욱 힘있게 고무하여야 할것이다.

가사

조국의 첫밤

(총련) **홍순련**

조국의 첫날밤 잠못드는 밤
꿈같이 안기니 꿈만 같다네
책에서 배워오던 조국이어서
말로만 들어오던 조국이어서
아, 잠못드는 수도의 밤이여

밤하늘 못별을 바라보아도
조국의 별이어서 저리 밝은가
정원의 풀벌레소리 들어도

조국의 노래로 나는 새기네
아, 잠못드는 수도의 밤이여

이역의 어둠길도 비쳐주는 품
어머니라 부르며 정을 나누네
우리 당의 사랑이 넘쳐흐르는
내 삶의 보금자리 따뜻한 나라
아, 잠못드는 수도의 밤이여

2월의 대동강반에서

스무해... 그렇다, 스무해가 되었다.

스무해전 그날 나는 2월의 대동강반을 거닐었었다. 불어오는 바람이 아직 차건만 나는 추운줄도 몰랐다.

내 심혼을 뒤흔들고 내 심장의 벽을 울린 위대한 대강을 그날 받아안았던것이다.

생각난다. 그날 나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읽고 또 읽었다.

우리 당의 최고강령에 대한 위대한 선포,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며 그 실현을 위한 빛나는 진로를 밝혀주신 그날의 문헌은 나의 온 심혼을 불태웠다...

스무해전 그날처럼 그 버드나무아래서 나는 지금 그날의 흥분에 잠겨있다. 세월이 흘러갔건만 벽찬 가슴을 누르며 그날에 내 기대했던 버드나무도 예대로 서있다.

나는 조용히 눈길을 들어 바라본다. 옥류교너머 아름다운 강반에 주체사상탑의 붉은 봉화가 세기의 하늘가를 물들이며 떠오른다.

스무해전 그날의 모습대로 능수버들은 오늘도 변함없이 서있건만 나의 수도, 사랑하는 우리 평양은 흘러간 스무해에 얼마나 몰라보게 달라졌는가. 저 주체사상탑 전망대에 오르면 그 나날에 일떠선 아름다운 거리들을 다 볼수 있으리라, 락원거리, 창광거리, 광복거리, 통일거리...

가만히 평양의 거리들의 이름을 불러보니 거리마다에 깃든 향도의 자욱이 어려온다.

밤에 낮을 이으며 기울여주신 자애로운 아버지의 은정이 어려 무수한 창가마다 행복이 아롱지고 웃음소리 랑랑하다.

기적소리, 밤철차의 기적소리... 그 기적소리와 함께 얼마나 좋은 밤인가고, 인민을 위해 가고가는 이 길이 얼마나 보람차고 행복한가고 하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자애로운 음성이 들려온다.

광산에 가면 광부들이 말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이 막장길을 걸으셨다고...

농촌에 가면 농민들이 말한다. 그이께서 소문도 없이 령님어 동구길로 오시였다고...

령도의 그 자욱이 빛나 내 나라는 어디 가나 아름답고 눈부시다. 정녕 향도의 태양이 찬란한 내 나라는 사랑으로 위대하고 정치로 존엄 높다. 경제로 튼튼하고 문화로 찬란하다.

얼마전 우리 나라를 방문한 꾸바녀성법률가는 다 음과 같이 말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을 젊음과 희열, 인민의 행복이 넘치는 세계일류급으로 전변시키시었다... 때문에 조선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비할바없이 튼튼하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이여, 조선을 보라, 그러면 힘이 솟을것이다, 그리고 승리할것이다.》

그렇다. 세계가 오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승리의 포성을 련이어 터치며 전진하고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앞에서 실로 경탄을 아끼지 않는것은 응당한것이다.

가슴 벅차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제시기에 우리는 무적이고 내 조국은 불패이며 우리의 사회주의는 영구불멸하다.

2월의 대동강반을 나는 걷는다. 스무해전 그날처럼 가슴 뜨거워 불어오는 찬바람이 차갑지 않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받아안고 우리가 달려온 스무해는 실로 위대한 전변의 새력사를 이 땅우에 펼쳐놓았다. 달라진것이 너무도 많다. 거리도 마을도 일터도...

그것만이 아니다, 저 사람들의 얼굴을 보라, 아니 저 사람들의 가슴을 조용히 헤쳐보라. 그러면 그 가슴가슴마다에 자기의 수령을 진심으로 받드는 수정같이 맑은것이 샘솟고있으리라.

지난해 12월에 열리었던 전국공산주의미용선구자대회에 참가하는 영광을 지니였던 나는 토론자들의 목소리를 가슴 뜨겁게 들었다.

대회의 연단에서 여러명의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고있는 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수령님께서,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제일로 사랑하시는 아이들이인데 그애들의 얼굴에 그들이 저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아이씩 데려다 키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민은 자기의 수령과 함께 숨쉬고 한가지로 생각하고 하나로 행동한다.

이것이 우리의 일색화이다!

그날의 버드나무밑에 점도록 나는 서있다. 벽치게 흘러간 스무해를 궁지높이 돌아보며...

버드나무야, 그 옛날엔 넓은 벌의 성시라 해서 조상들은 이고장을 《부루나》라 불렀고 한껏 우거진 여름날의 버들숲이 강물에 비친 풍경 한없이 이채로와 다정히도 《류경》이라 했다더니 오늘은 세계에 빛을 뿌리는 평양을 무슨 말로 다 자랑하랴.

우리에게 2월의 대강이 있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여 우리의 스무해가 궁지도 드높듯이 10년... 또 10년 마중오는 미래는 더욱 눈부시게 찬란하리라!

평양시 상원군당위원회 선전비서

김창근

명제해설

《문학예술의 총적사명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며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인것만큼 마땅히 모든 문학예술작품에 주체의 혁명관과 민족관이 짝 들어차야 합니다.》

김정일

우리의 문학예술은 우리 당의 최고강령인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자기의 총적사명으로 하고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한다는것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혁명가로 만들며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문학의 총적임무는 모든 사람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들며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는것이다.

우리 문학의 총적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자면 문학작품창작에서 주체의 혁명관과 민족관을 형상적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주체의 혁명관과 주체의 민족관을 구현하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혁명적수령관을 구현하는 문제이라고 말할수 있다.

주체의 혁명관은 혁명에 대한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은 수령의 옳바른 령도에 의해서만 승리할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깊이 체득하고 수령의 령도에 충실하여야 한다.

수령에 대한 이러한 충실성은 혁명적수령관이 튼튼히 섰을 때 발휘될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혁명적수령관은 주체의 혁명관에서 핵이라고 말할수있다.

주체의 민족관은 우리 민족, 우리 나라가 제일이라는 민족제일주의정신이 확고할 때 확립될수 있다. 우리 민족, 우리 나라가 제일이라는 립장과 관점은 우리 수령이 제일이고 우리 당이 제일이며 우리 식 사회주의가 제일이라는 신념에서부터 흘러나오는것이다. 수령은 사회정치적생명체의 뇌수이며 통일단결의 중심이고 인민의 어버이이시다. 그러므로 주체의 민족관은 혁명적수령관에 의해서만이 튼튼히 확립될수있다.

우리 문학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수행에 힘있게 이바지하여야 하는 자기의 총적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문학작품창작에 혁명적수령관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가사 《내 나라 제일로 좋아》, 《3대자랑가》를 비롯하여 우리 수령, 우리 당, 우리 식 사회주의를 노래한 많은 작품들은 주체의 혁명관, 주체의 민족관을 투철히 구현하고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 커다란 사상미학적합력을 가지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수행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심화발전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작가들에게 주체의 혁명관과 민족관이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구현된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할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있다.

현시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창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최상의 수준에서 깊이있게 형상하는것이다.

우리 문학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반대고 그이의 령도를 따라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도록 힘있게 이끌어줄수 있다.

우리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야말로 우리 당과 혁명무력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사회주의위업승리의 불멸의 향도성이시며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시라는것을 감동깊은 형상을 통하여 격조높이 노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그이의 령도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충성과 효성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형상에서 탁월한 사상리론가, 정치가이고 군사전략가이시며 참다운 인민의 지도자로서의 그이의 위대한 령도풍모를 폭넓고 깊이있게 보여주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하는 문제는 현시기 우리 문학에서 기본의 기본을 이루고있으며 가장 중요한 시대적과제이다. 우리 문학이 이 영예로운 시대적임무를 다할 때 사람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들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할수 있다.

밭머리의 새벽

전흥식

가슴의 피를 끓게 하는 정열과 흥분은 결코 젊은 시절에만 생기는것도 아닌상싶었다. 어둑컴컴한 숲속에서 메돼지의 무리가 나타난 순간부터 박기창은 예순다섯이라는 나이를 망각해버리고 철부지때 마냥 이상한 충격과 마음떨림으로 숨결마저 거칠어졌다.

그는 쌍대배기사냥총을 지그시 틀어잡은채 희미한 그림자처럼 움썰거리며 다가오는 메돼지의 무리를 향해 눈심지를 돌구었다.

사위는 물밀처럼 고요했다. 다만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기운차게 구울러가는 신원천의 물소리와 물가의 버들숲속에서 때이르게 새벽잠을 깬 새의 조심스러운 지저귂소리만이 유난스러울뿐이었다. 그것은 오히려 여름날 이른새벽의 깨끗한 고요를 한층 더 정화시켜주는듯했다.

메돼지의 무리는 어둠과 안개를 헤가르며 점점 가까이 오고있었다. 그놈들은 꽃망울들을 활짝 터뜨려놓은 감자밭을 노리고 달려드는판이었다.

(이놈들 어딜 감히!...)

박기창은 숨을 죽이고 절호의 때를 기다렸다.

메돼지사냥이라기보다 지난 전쟁때 미국놈들을 수십명이나 쏘눕힌 저격수의 심정을 다시 체험하는듯하였다.

메돼지들은 마침내 감자밭으로 들어섰다. 들어가는서는 거침없이 보습같은 주둥이로 밭을 뜯지기 시작했다.

박기창은 조바심이 났다. 그로서는 아직 서둘러 불질을 할수 없었다. 미명의 그늘과 안개몽치가 방해하는데 거리도 좀 먼것 같아서 자신심이 생기지 않았다. 좀더 날이 밝아지고 좀더 거리도 가까워지면 좋으련만... 안타깝게도 그것들은 박기창의 뜻을 거역하면서 속을 태웠다. 어둠은 좀처럼 물러가지 않는대신 메돼지들은 점점 멀리로 나가면서 감자밭을 요정내고있었다.

(저런!...)

박기창은 감자밭을 마구 짓몽개놓는 메돼지들을 바라보며 안절부절했다. 감자밭이 아니라 자기의 몸뚱이가 그렇게 란탕을 당하는것만 같았다.

사실 이 다섯정보나 되는 감자밭은 그의 육체의 한 부분이나 다름없었다. 얼마나 정성을 들여 알뜰히 가꾸은 땅인가. 지난해까지만 하여도 비루먹은 소잔등처럼 노랗게 말라서 불모지로 취급당하던 땅이 올해는 정보당 마흔톤의 거름으로 살이 오르고

기름기가 내돌더니 마침내는 바닥이 꺼지도록 좋은 작황을 보여주고있었다. 대가 실한 감자포기들이 푸르싱싱하게 자라면서 보름이나 제철을 앞당겨 꽃을 피우기 시작했으니 그 뒤끝이야 더 말해선 무엇하랴. 바로 박기창이 세포비서로 있는 로병분조의 성실한 량심과 지성이 그토록 빛을 내고있는 셈이었다. 감자밭뿐이라. 그들이 다루는 보라콩밭이나 밀보리밭도 다 그랬다. 년초에 열다섯명의 로병들로 꾸려진 분조는 신원천기슭의 제일 낮은땅 열정보를 맡아 옥토로 만들고 전례없는 대풍작을 마련해가면서 사람들을 아연케 하고있었다. 누구도 성 쌓고 남은 돌이라고 여겼던 로인네들이 그런 기적을 낳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것이다. 지금 그 땅을 무엄하게도 메돼지들이 달려들어 탕을 쳐놓으니 박기창의 마음인들 어찌 끓어번지지 않으랴.

(이놈들, 어디 혼이 나봐라!)

박기창은 큰숨을 지으며 메돼지의 무리에서 제일 덩치 큰 놈을 총으로 겨누었다.

그가 막 방아쇠를 당기려는데 커다란 손이 나타나 총신을 짊 들어잡았다. 곁에 앉아있던 분조장주철령감이였다. 몸이 실하고 눈도 커다란 그는 로병분조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대신 제일 수고 많은 사람이였다.

총신을 틀어잡은 주철은 커다란 눈에 간절한 빛을 담고 말했다.

《내가 쏘보지요.》

이제껏 웅케 참아오더니 제손으로 쏘보고싶은 욕망을 더는 누를수 없었던 모양이였다.

박기창은 말없이 총신을 쥔 주철의 손을 밀어버렸다. 성미가 화약같은 주철의 손에서는 아무래도 란패밖에 남을것이 없으리라는 위구심때문이였다.

《쯔쯔쯔!...》

주철은 불만스레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려버렸다.

박기창은 속으로 웃었다. 그는 성급한 분조장이 무엇때문에 이토록 불만이 큰지 잘 알고있었다.

워낙 메돼지가 감자밭에 든 첫날 주철은 독같이 성을 내며 소리쳤다.

《당장 옹노를 봐야겠소.》

그의 말을 따라 온 분조가 펼쳐나서 다섯정보나 되는 감자밭두리에다 그물처럼 옹노를 놓았다.

하지만 옹노는 전혀 맥을 주지 못했다. 메돼지의 무리는 어떻게 알아차렸던지 물썰틈없는 옹노사이에 귀신처럼 들어왔다가 사라지곤했다.

주철은 너무 억이 막혀 큰눈을 펄펄 굴리며 우둘령거렸다.

《젠장, 웅노를 놓은꼴들이란...》

《허허, 그놈들이 령물은 령물이거든.》

그때 박기창은 누구에게나 타할 구실을 찾지 못해 몸살을 하는 주철을 보고 껄껄 웃었다.

《분조장까지 꼼짝을 못하구 찢찢매구있으니...》

《찢찢매긴 누가 찢찢매단말이요?》

주철은 술에 취한 때처럼 얼굴에 벌겋게 울기가 올라 소리쳤다.

《안되겠소. 오늘밤부터 양푼이든 소랭이든 다들구나와 경비를 서야겠소.》

《신통한 수는 못되는군.》

《그럼 어떻게야 되오?》

주철은 박기창을 향해 버럭 화를 냈다.

《세포비서가 어디 신통한 수를 건사해줬으면 나와보구려.》

《내놓지.》

박기창은 그날로 군에까지 가서 사냥총을 한자루 메고왔다.

총을 보자 주철의 눈이 화등잔만해졌다.

《아니, 이걸 어디서?...》

《다치지 말게.》

박기창은 주철의 거울진 손을 쳐물리쳤다.

《내가 구해온 총이니 내가 쏠게네.》

《흥, 령감이 메돼지를 잡으면 이 손바닥에 장을 지지겠소.》

《그럼 장을 지질 차비나 하게.》

그날부터 박기창은 옹근 사흘밤을 발머리에서 지냈는데 주철은 주철이대로 외면을 못하고 매번 같이 밤샘을 했었다. 그런 주철이고보면 총을 주지 않는다고 심술을 부릴만도 했다.

어느덧 날이 환해졌다. 땅에 녹아붙은듯하던 안개도 건뚫 쳐들렸다. 감자밭에 흩어져있는 메돼지들도 불질을 해볼만치 선명해졌다. 소만큼한 엄지가 여러 마리나 되는 무리를 거느리고 먹자판을 벌려놓은것이다. 인제는 쏘면 쏘는대로 어김없이 명중시킬것 같았다.

박기창은 그제야 고개를 돌려버린 주철에게 총을 넘겨주었다.

《봐보게.》

《영?...》

주철은 짹짹 놀라 움직이지를 못했다. 이런 때 박기창이 자기한테 총을 넘겨주리라고는 짐작조차 못 한듯하였다. 박기창은 멍청히 건너다보는 주철에게 어서 쏘라고 눈짓을 했다. 오랜 당일군의 경력을 가진 그가 좋은 일을 남한테 양보해주는것은 때버

릴수 없는 습관으로 되어버렸다.

주철은 어정쩡한 표정으로 총을 받아들고는 좀바재이는듯하더니 소리없이 썩 웃으며 메돼지를 향해 겨냥을 하였다. 낮이 간지럽기는 했지만 어쨌든 제손으로 메돼지를 쏘눅히고보자는 심산같았다. 그는 참을줄 모르는 성미와는 달리 놀랄만큼 침착하고 인내성있게 목표물을 겨누었다.

이어 그는 박기창에게 고개짓을 했다. 쏘겠으니 자리를 피할 차비를 하라는 신호였다. 메돼지와 같은 맹수는 헛불을 맞으면 총알같이 발사장소로 달려들어 덮치기 일쑤이다. 때문에 사냥군은 발사직전에 미리 피할 자리를 봐두지 않으면 안된다.

《걱정말게.》

박기창이 눈짓을 하자 주철은 다시금 숨죽이고 총을 겨누었다.

땅!-

요란한 총소리가 새벽의 대기를 뒤흔들어놓았다. 엄지란놈이 총소리에 놀란듯 펄쩍 뛰어오르더니 급기야 팽이처럼 팽글팽글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발가늬의 이빨나무를 들이받으며 푹 꼬꾸라졌다. 혼비백산한 새끼들은 놀라서 벼락같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내뺄고있었다.

주철이도 벌떡 일어서더니 무작정 앞으로 달려나갔다. 늙은 로인이 아니라 한창나이의 젊은이처럼 행동이 팔팔했다. 그는 쓰러진 메돼지의 주변을 조심스레 에돌며 살피다가 불시에 총을 높이 쳐들고 소리를 쳤다.

《맞았다!》

박기창이 숨가빠 달려갔을 때 주철은 벌써 메돼지의 몸뚱이를 타고서서 호통질하고있었다.

《야, 이놈아. 그대 맛이 어때? 버릇없는놈! 네놈이 감히 우리 로병분조의 발에 들어?...》

메돼지는 정수리에 시커먼 구멍이 뚫어져있었다. 뚫어진 구멍으로는 검붉은 피가 팔팔 쏟아져나왔다. 황소만한놈이 단방에 죽어자빠진것이다.

《허, 자네 숨씨가 헛불게 아니였군그래.》

《아무렴, 이 주철이가 속대까지 늙었겠나. 자 였소.》

주철은 쓸모를 잃어버린 총을 박기창에게 내주며 말했다.

《이놈은 내가 다 처리할테니 박령감은 곁에서 구경이나 하오.》

《난 그럴새 없네. 저 밭주제를 좀 보게.》

박기창은 늘 꿈무늬에 차고다니는 작은 호미를 꺼내들고 밭으로 들어갔다. 피해를 입은 감자밭을 빨리 손질해주기 위해서였다. 감자란 메돼지가 밀포기를 조금만 들쳐놓아도 바람을 맞아 아주 망치는 법이다. 그는 포기포기를 정성껏 일궈세우며

부드러운 흙으로 부지런히 덮어나갔다.

얼마후 주철이가 박기창을 불렀다.

《박령감, 어서 와서 생간을 자서보우. 뜨끈뜨끈한게 먹어볼만하우.》

《이걸 마저 덮어줘야겠네.》

《넌장, 혼자서 분조농사를 다 짓는것 같군.》

주철은 대뜸 짜증을 내며 빨리 오라고 독촉을 했다.

박기창은 할수 없이 일손을 멈추었다.

어느새 주철은 장도칼로 메돼지의 배를 갈라놓고는 손바닥만한 가독이파리들우에 시뻘건 생간을 토막쳐놓았다.

《여기 소금두 있으니 식기전에 잡쉬보우.》

주철은 배낭속에서 약술까지 한병 꺼내여 마개를 따고 비닐고뿌에다 클럭클럭 부었다.

《약술을 한모금 잡숫구 기운을 내서 이 분조장을 못살게 굴어보우.》

《그렇듯한 소리군.》

박기창은 약술고뿌를 받아들며 자못 생각깊이 주철을 바라보았다. 성미가 불같은 사람이면서도 마음속은 얼마나 비단결같은가.

그 약술로 말하면 이곳 심산계곡의 이름난 초약들로 만들어진것으로서 주철의 로병들을 위한 남모르는 정성이 숨배여있는것이다.

식전에 한모금씩 마시면 산삼록용보다도 낫다고들 한다.

박기창은 저도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올라 꼬챙이로 생간을 하나 꿰어들었다.

이때 등뒤에서 심술궂은 로인의 목소리가 났다.

《잘한다! 거기서는 뭘하구있소?》

같은 분조의 김택구로인이었다. 키가 멋없이 경중한 그는 때꾼해진 눈으로 숨진 메돼지를 바라보며 얼이 나간듯 서있었다.

《하아, 그놈 대단하다. 정통을 맞았군그래. 세포비서의 불질숨씨가 이만저만 아니군!》

《령감은 좀 저쪽에 가 있소.》

주철은 푸쩍없이 내쫓았다. 명사수의 영예를 덮어놓고 박기창의것으로 돌려놓는 김택구의 말에 반발이 생긴 모양이었다.

《우린 지금 사업토의중이란말이요.》

《뭘 사업토의?...》

김택구는 끄떡않고 마주 대꾸했다.

《그거 더 잘됐군. 중요한 사업토의에 사팔넌도 입대생이 빠져서야 되나.》

김택구는 두사람사이에 비집고 들어앉으며 약술병부터 나꿔채갔다.

《그렇잖아두 내 오늘은 자네의 버르장머리를 꼭 때놓자던참이네. 아무리 분조장이라두 옛상관을

알아보길 하나 사돈어른앞에서 어려워할줄 아나. 도무지 썸판이 없거든.》

《옛상관이랴구?》

주철은 어이없는 눈길로 김택구를 흘겨보았다.

워낙 나이가 훨씬 많은 김택구였으나 주철이와는 나이의 차이를 무시해버리고 늘 맞서기바쁘게 수탉처럼 티각태각하군하는 사이였다.

《령감이 어떻게 나한테 옛상관이 되우?》

《이녀석아, 전쟁이 끝나서 제대됐을 때 난 근위상사의 견장을 달았지만 네녀석이야 겨우 두줄배기 하사였어. 또 사돈지간이라는것두 그렇지 임자딸이 김택구의 문안에 들어와 뿌리를 내렸은즉 마땅히 옛상관이구 웃어른이지 안그렇소? 세포비서.》

《허허 듣구보니 그럼직두 하웨다.》

박기창은 큰소리로 웃었다. 웃으면서도 주철이에 대하여 늘 고마움을 감추지 못해하는 김택구의 마음을 죄다 읽을수 있었다. 바로 특류영예군인인 김택구의 막내아들한테 주철의 외동딸이 자진하여 찾아가 다정한 부부로 되었던것이다. 김택구는 떡돌같은 손자까지 낳아서 안겨준 막내며느리도 장중보옥처럼 여겼지만 그런 딸을 키워낸 주철을 언제나 감사의 정으로 대하였다. 목에 피대를 세우며 양보없는 다툼질을 일삼는것은 자기의 속마음을 감추기 위한 위장전술이었다. 주철이도 역시 티끌만한 재세의 빛도 없이 진심으로 김택구의 《다툼질》에 응해주곤했다. 그들 두사람의 특이한 관계는 박기창에게 항상 즐거움을 주었다.

《그래두 택구령감이야 이 분조장의 신세가 크질 않소? 맨날 로친네한테 물리워대는걸 분조장이 로병분조에 데려다 숨을 돌리게 했으니 그것만으로도두 백번 절을 할 일이지.》

《하 로병분조에 이 김택구를 선참 불러준거야 응당한 일이지. 김택구가 없이야 분조장이 어떻게 구실을 할라구. 그런데 약술 한잔이 축날가봐 낮을 쯤 그러서야 되겠나?》

《허튼 소리 말구 한모금만 마시구 물러나오.》

주철은 약술병을 뺏아 뒤로 감추었다.

《인제 령감들두 다 나옴텐데 그이상은 없소. 저기 벌써 나오지들 않소?》

과연 마을쪽의 행길로는 한패의 사람들이 줄레줄레 늘어서서 걸어오고있었다. 역시 로병분조에 망라되여있는 로인들이었다. 어둑 날이 밝기바쁘게 산보삼아 손에다 호미나 낫같은 쟁기를 들고 분조의 포전을 찾아보는것이 인제는 하나의 습관으로 굳어져버린셈이다. 하루라도 그것을 어기면 무엇을 잃어버린 뒤처럼 마음이 허전해져서 일손마저 잡히지 않는다는 그들이었다.

《히야 메돼지가 대잔 대짜다.》

누구라없이 죽어자빠진 메돼지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토록 큰놈을 잡아보기는 이 산골에서도 매우 드문 일이라는 찬탄이었다.

《어서들 오시우.》

박기창이 로인들을 가까이 불렀다.

《분조장이 오늘새벽에 큰일을 해놓구 한턱 내는 중이웨다.》

《분조장이 이런 재간두 있었나?》

로인들은 희색이 만면하여 그들의 량옆에 둘러앉았다. 주철은 분조의 좌상인 신동준로인한테 먼저 약술고뿌와 생간을 꺼여든 꼬챙이를 권하였다.

《어서 잡수시우. 이게 신아바이가 쓰는 보약보다 못지 않을거우다.》

《이사람, 난 인젠 보약을 끊었다네.》

로병분조의 좌상인 신로인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집안구석에서 골골 앓음소리만 내며 바깥출입마저 삼가하곤했었다. 갓 시집온 손주며느리가 그한테 하루 세끼 보약을 달여드리느라 몹시 수고를 한다는 소문까지 자자하게 났었다.

《난 인젠 밥을 한그릇씩 다 먹는다네.》

《보약이 은을 낸 모양이우다.》

《아닐세, 이사람.》

신로인은 주철의 어깨를 다정히 두드리주었다.

《분조의 덕일세. 아침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구 오금을 놀려 일을 하니 보약이 아니구두 밥맛이 돌아서며 기운이 생기질 않겠나. 잠두 푹 잘수 있구.》

《그것참 반갑수다.》

주철이도 신로인의 말에 대뜸 입이 헤벌쭉해졌다.

《우리 로병분조가 신아바이한테 젊음을 되찾아준셈이 니까.》

《거야 신아바이뿐인가.》

김택구가 꺼들었다.

《우리 다 집안에서만 맴돌다가 하 요즘은 정말 사는것 같다니까.》

《그렇구 말구.》

김택구의 말에 로인들도 모두 동감을 표시했다.

《아무튼 분조장이 나이로 치면 제일 아래이지만 실상은 만형구실을 했네. 로병분조를 내울 생각을 해낸건 정말 장해.》

《흥, 모두 알기두 잘 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해냈을게 뭐요?》

《분조장이 아니면 누군가.》

박기창이 곁에서 주철을 꺾 눌러버렸다.

《로병분조의 발기자야 엄연히 분조장이지.》

《허참 기쁘오다. 다들 그렇게 생각해주시...》

주철이가 로병분조의 발기자이면서도 그것을 부정하는데는 그럴만한까닭이 있었다.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니 박기창은 웃음을 감출수 없었다.

...정초의 어느날이었다. 날씨는 보기 드물게 맑았다. 흰눈을 이불처럼 두텁게 덮은 대지는 밝은 햇빛속에서 강렬한 은빛을 발산하였다. 도대체 눈이 부시여 어디든 온전히 바라볼수 없었다. 대신 소한 머리의 추위는 대단히 맵찔다. 맵찔 추위는 바늘처럼 따끔따끔 얼굴을 찔러댔다.

박기창은 인적없는 눈별우의 발구길을 따라 부지런히 걸어갔다. 발구길은 신원천기슭의 커다란 밭뽕기까지 나있었다.

눈덮인 밭에서는 누런 개털모자를 푹 눌러쓰고 병사용 낡은 솜옷을 뚱뚱하게 끼입은 주철령감이 소발구로 실어간 두엄을 부리우느라 걸싸게 일하고 있었다. 이때전까지 농장의 작업반장을 하다가 년로보장으로 넘어간 그는 푹심으로 새땅을 일쿠었는데 올해는 벌써부터 서두르는 품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자네 여간 극성이 아닐세그려.》

박기창은 주철에게 다가가며 말을 붙였다.

《이 추운 날까지두 일을 해대는걸 보니 혼자서 대농을 해보자는건가. 허어, 이밭이 룡백평두 넘겠군.》

《 룡백은 무슨 룡백?... 오백두 안되겠는데...》

주철은 룡백평이라는 말에 큰 변이라도 생기는것처럼 펄쩍 뛰었다. 단신으로 일궈낸 땅이지만 한평이라도 커보이는것이 어딘가. 땀땀치 못한 일처럼 여겨진 모양이다. 요즘같은 추위도 마다않고 땅이 꺼지게 두엄을 실어내는 일마저 박기창의 앞에서는 편안치 못하듯 부자연스러와하는 주철이었다.

박기창은 마음이 언짢았다. 그는 뼈심을 들여 일궈낸 땅을 기쁨지게 걸꾸려고 애쓰는 주철의 마음을 모르지 않았다. 주철은 제집 고간이나 채우려고 아득바득 애쓰는 사람이 아니었다. 지난해도 주철은 자기의 땀으로 지어낸 곡식전부를 백키로그람이 넘는 돼지까지 받쳐서 사회주의대건설장에 보내주었다. 올해농사의 목적도 마찬가지일것이다.

비록 늙어서 년로보장을 받는 처지에 있으나 옛 병사의 자세 그대로 나라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려는 가혹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해낼수 없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포비서 박기창에게는 주철의 일이 불만스러웠다. 주철은 오랜 당원이다. 그러나 어느새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되어버렸다. 그는 세포안의 로병들과 마음을 합치고 힘을 합칠 궁리조차 안하고있다. 저만 잘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주철의 머리속에서 아주 돌처럼 굳어져버린 듯하였다. 박기창이로서는 그것이 가슴 아팠다. 당원의 궁양이 어찌면 그토록 좁아질수 있단말인가.

남의 속내를 알리없는 주철은 의심쩍게 박기창을

훔쳐보았다.

《무슨 바람이 들어서 여기까지 나왔소?》

《자네가 부럽군. 힘두 부럽군 욕심두 부럽네.》

《뭘. 욕심?》

주철은 사납게 큰눈을 희번뜩거리며 독살스럽게 말했다.

《어서 용건이나 말하우. 아무리 부러워두 령감이 나한테 땅이나 품값을 빌리러 온건 아닐텐 데...》

《거야 두구봐야 알지.》

박기창은 능청스럽게 주철을 바라보았다.

《오늘이 자네 당적분공을 총화지를 날이더군.》

《무어요? 당적분공을...》

분공이란 말에 아연해진 주철은 마치 낯선 사람을 대하듯 한참이나 박기창이한테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분공집행을 총화지으려고 세포비서가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수 없었던 모양이다.

박기창이 한수 더 떴다.

《어찌겠나? 아무리 기다려두 자넨 분공집행에 대해선 꿈도 안꾸니... 제 발의 두엄을 실어내는 일은 잊지 않는 자네가 당생활에서는 지내 게으른것 갈네.》

《게으르다? 여보!》

주철의 낯색이 대뜸 험악해졌다.

《세포비서라구 아무 말이나 탕탕 하지 마오. 이래뵈두 난 전쟁때 화선입당을 한 사람이요.》

《그야 물론 장한 일이지. 하지만 자넨 이미 입당의 맹세를 저버린 사람이야.》

박기창이도 수그러들지 않고 준철히 질책하였다.

《지금 자네한테야 어디 당원다운데가 있나? 당회의때만 당원이구 밖에 나와선 이렇게 제 속심이 나 채우는것두 당원인가?》

《아니, 뭐가 어쨌다구?... 이 령감이 정말...》

주철은 너무나 분해서 턱을 우들우들 떨기까지 했다.

《내가 제 속심이나 채우는 사람이란말이요? 그래 령감은 지난해 이 밭에서 난 소출을 어떻게 했는지 다 잊어버렸소?》

《여느 사람이 그랬다면야 대단한 일이라 하겠지. 하지만 자넨 당원이구 전쟁로병이야. 전쟁땐 미국놈땅크를 두대씩이나 까부셨구 또 어제까지는 20년 가까이 작업반장을 하면서 훈장두 적잖게 받은 공로자란말이네. 그러길래 난 지금 자네 하는 일을 좋다구만 볼수 없구 좀 정신을 차릴걸 바라서 남다른 분공두 준거네. 현대 자넨 그 분공을 어디다 평가했나?》

박기창의 신랄하고 가차없는 꾸짖음에 주철은 말

문이 막힌듯 얼떨떨한 표정으로 서있었다. 전쟁때의 공로까지 꺼들어가며 질책을 하는 박기창의 속내가 아직 석연치 못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자존심이 서슬푸른 창대같은 주철이라 무턱대고 손을 들려고는 하지 않았다.

《분공을 평가했는지 어쨌는지 령감이 어떻게 알구 큰소리요?》

《그럼 제대루 집행했던 말인가?》

《헛 나참... 어서 목책을 꺼내 적어놓구려. 당원신동준은 하루 세끼 보약을 달어먹느라 온 식구를 달달 볶아놓구 김택구는 아이보개나 하는 주제에 맨날 로친네와 다툼질이 업이요. 그런가 하면 한복녀는 다 자란 자식들의 뒤편라지를 하는데 정신이 없구...》

주철은 손을 쏙아가며 열다섯 당원들의 생활정형을 하나하나 내리엮었다. 그것이 다름아닌 주철이가 받은 분공이었다.

《한마디루 모두 쓸모없는 폐인으로 되고말았던 말이요.》

《쓸모없는 폐인이라-》

박기창은 나직이 주철의 말을 받아외었다. 들은 풍월인지 실제로 눈여겨 살펴보았는지는 몰라도 로병들에 대한 주철의 평가는 비교적 정확하다고 말할수 있었다. 결코 지나친 과장이라고 볼수 없었다. 사실 지금 세포의 당원들 대부분이 집구석에 들이박혀 한갓 늙은이로서의 존재만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는것이다. 물론 그들모두가 당원의 량심마저 저버렸다고는 볼수 없었다. 신동준은 지난 세월 지주놈의 밑에서 머슴살이로 지지리 천대와 빈궁을 겪어본 사람이라 이 좋은 세상을 하루라도 더 오래 살고싶어서 보약을 쓰는데 온 신경을 쓰고있다. 김택구는 김택구대로 무언가 보람있는 일을 찾지 못해 우리안에 갇힌 호랑이처럼 우르렁대며 공연히 로친네한테 화풀이를 하는판이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용감한 간호장이었던 한복녀 역시 각지에 흩어진 자식들이 당을 받들어 일을 더 잘할것을 바라는 일념으로 극성스레 뒤편라지를 하는것이다. 따지고보면 누구나 다 그랬다. 결코 마음들이 변해서 그렇게 사는것은 아니였다. 그것이 박기창에게는 더 가슴아팠다. 젊어서는 누구라없이 당과 수령님을 따라 자랑스런 발자국을 찍어온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 인생의 황혼길에 들어서자 성 쌓고 남은 돌처럼 속절없이 세월을 보내는 일이 안타깝기만 했다. 다년간 군과 도에서 당일군으로 지낸탓인지 나이가 많아져 고향에 돌아온 박기창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볼수 있을가 하는 생각만을 거듭해왔던것이다.

《앉아서 한대 태우세나.》

박기창은 소말구의 귀퉁이에 걸터앉아 담배쌈지를 꺼내들었다. 담배를 큼직하게 말았다. 그도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상점에서 파는 담배가 아니라 제손으로 심어 가꿔낸 잎담배를 더 즐겨하였다. 담배를 말아몰자 품속에서 라이타를 찾아냈다. 라이타는 불이 잘 일지 않았다. 자꾸 불꽃을 일쿠어도 심지가 약한탓인지 날씨가 추워서인지 그냥 애를 먹었다. 하지만 박기창은 단념하지 않았다. 켜고 또 켜보았다. 한참이나 신고를 해서야 겨우 담배불을 붙일 수 있었다.

《자네두 지난 설날 텔레비존에서 신년사를 하시는 수령님을 뵈왔겠지?》

박기창은 조용히 말머리를 떼었다.

《난 요즘 내내 그 생각뿐이네. 인젠 년세두 많은 신 수령님이 아니신가. 그런데 아직껏 쉬지 못하시거든. 나라의 통일때문에. 또 사람들모두가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구 기와집에서 비단옷을 입구 살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겨오시려 그토록 로고를 바치시는거지.》

하지만 우리 세포 당원들은 어떻게 살구들 있나. 참 기막힌 일이지.》

박기창의 절절한 말에 주철은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저 실한 담배만 꺾꼭 피워댔뿐이었다.

박기창은 한결 무거워진 어조로 말을 이었다.

《요즘 정세라는것두 복잡하기 이틀데 없지. 결에서 사회주의를 한다던 나라들이 련이어 넘어지구 이 세상 반동들은 때를 만난것처럼 기세가 올라 우릴 없애버리겠다며 별의별 못된짓을 다하질않나? 행복스럽게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들을 모신덕에 우리같은 백성들두 기가 꺾이지 않구 배심있게 꾹꾹이 버티어나가는거지. 이런 때 우리 로병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나?》

《아따 그걸 누가 모르오?》

주철은 담배를 꺾 집어던지며 벌떡 일어섰다.

《나두 날마다 텔레비존을 보구 신문이랑 읽구있 단말이요. 그래서 스스로 내 할 일을 찾아하는데 령감은 뭐가 맞갖잖아서 그렇게 선히먹을 먹은것 같은 얼굴이요? 나한테 당치 않은 정치사업은 그만하구 어서 본심이나 내놓소. 이젠 내쳐 빙빙 에돌기만 하니 속이 뚫어번져 어디 견딜수가 있소? 예익!...》

《자네가 이젠 말귀를 알아들은것 같군.》

박기창은 그제야 빙그레 웃음을 지었다. 성미급한 주철이가 어느새 자기의 속깊은 의도를 눈치채고 독촉까지 하는 사실이 그를 기쁘게 했다.

《그럼 말하겠네.》

박기창이도 일어섰다.

《한마디루 우리 마을 로병들모두가 합심을 해서 좋은 일을 하자는거네. 자네처럼...》

《나처럼?...》

《그렇네. 우리 열다섯이 마음과 힘을 합친다면 이따위 오백평뿐이겠나? 다섯정보라두 능히 다룰 수 있지. 그렇게만 되면 나라에 주는 보탬도 크거니와 집집에서 할 일 없이 앉아있던 로인네들이 마지막까지 당원으로서, 로병으로서 본분을 다할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그럴듯한 궁리같긴 한데...》

주철은 속타산을 해보듯 한동안 말이 없더니 다시 고개를 들었다.

《헌데 신동준이같이 나이 많은 로인네들이야 뻔놓아야지 어떻게 셈에 넣겠소?》

《아닐세 그네들두 젊었을 땐 다 제구실을 해온 화선병사들이네. 그런데 나이가 지내 많다구 우리까지 따돌려놓으면야 그야말로 슬픈 일루 될거네.》

《됐소. 됐어.》

박기창의 말뜻을 알아차린 주철은 손을 쳐들어 공감을 표시하더니 불끈 화를 냈다.

《제길 그걸 왜 인제야 말하오? 그런 말이야 벌써 작년에 했어야지.》

《자네두 찬성이라면 한번 의논을 해보세나.》

《의논이구 뭐구 할게 있소? 다들 쌍수를 들어 찬성할텐데... 뒤일은 내가 말을테니 령감은 빠치질 마오. 이랴!》

주철은 무작정 소를 때려몰았다. 마음보다 행동이 앞서는 그는 당장 일을 아귀지를 잡도리었다.

결국 주철의 맹활약으로 그날에 열다섯명의 세포 당원들이 로병분조를 못고 제일 낡고 메마른땅 열정보를 받아안게 되었던것이다.

(모두 웃음이 날만두 하지!)

박기창은 누구라없이 젊어진듯한 사람들을 바라보느라니 실로 감회가 컸다. 불과 반년이 남짓한사이에 얼마나 달라졌는가. 물론 그동안에 격변하는 사변들도 많았다.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없애려는 원썬들의 발악적책동과 최고사령관동지의 준전시상태선포, 공화국정부의 핵전파방지조약에서의 탈퇴선언, 두차례의 조미회담, 그리고 전국로병대회와 전승40돐경축행사... 이 모든것들은 하나하나가 다 온 세계를 뒤흔들어놓은 전무후무한 대사변들이었다.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 거창한 사변들의 소용돌이속에서 집안의 구석자리를 차지하고있던 로병들은 젊었을 때의 그 정신, 그 기백을 되찾아가지고 어떤 풍파가 들이닥친다 해도 끝까지 당과 운명을 같이할 의지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이제에는 결코 할일이 없이 뒤편에 밀려나 인생의 종말을 기다리던 로인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불타는 열정과 충효의 한마음이 오늘의 흐뭇한 작황도 마련

한셈이다. 그것이 농장전반에 주는 영향도 대단했다. 지난해까지는 농장의 밭들에 김을 매준 뒤에도 적지 않게 풀대들이 흔들거렸고 밀거름을 잘 주지 않아서 온전한 결실을 보지 못한 구석들이 드문했었다. 하지만 지금에는 그런 폐단들이 거의나 사라져버렸다.

로병들의 말없는 본보기가 그렇듯 자극을 주고 충격을 주었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어쨌든 지금 로병들은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을만도 하였다.

《됐수다. 그만들 떠들어대시우.》

기빠서 웃음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철이가 버릇처럼 불만스런 얼굴을 보였다.

《울농사는 먹어둔 떡이오만 만세를 부르긴 아직 이르단 말이요.》

《왜 이르단 말인가? 뭐가 또 부족해서...》

《령감은 눈두 없소?》

주철은 덮어놓고 엇먹어나가는 김택구를 향해 큰 눈을 부릅떴다.

《감자농사는 이만하면 푹소리난다. 하겠지만 보라콩밭은 청년분조에들것보다 떨어지질 않소? 밀밭두 그저 엇비슷하구. 이게 우리한테 아직 빈틈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구 뭐요?》

《나두 분조장과 같은 생각이요.》

박기창은 해놓은 일을 두고 만족에 들떠있는 사람들에게 때때로 침을 놓는 주철을 두둔하며 말을 이었다.

《우리가 로병분조를 못구 일들을 많이 한건 참 몇몇하구 자랑할만하오. 하지만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농촌테제에 비춰보면야 아직 만세를 부르긴 이르지. 저 보라콩이나 밀밭에 도랑을 짚구 신원천의 물을 끌어들었다면 정말 땅이 꺼지게 대풍이 들었을거요.》

《웁소.》

김택구가 무릎을 치며 큰 발견이나 한것처럼 떠들어댔다.

《그럼 인제라도 물길을 짚놓으세나. 가만 앉아서 수확때를 기다리는것두 멋적은데...》

《령감은 좀 덤비질 마오. 다 생각이 있지 않으리.》

말꼭지를 떼놓고 뒤전으로 밀러났던 주철이 참지 못하고 다시 끼여들었다.

《우리가 비록 나이는 들었소만 농촌에서 사는 당원들이 아니겠소. 힘은 들더라도 마음만 든든히 먹고나서면 프락토르는 능히 물수 있는거요. 우리 로병들이 앞장서 본보기를 잘 보여주면 온 농장이 따라일어나 테제의 과업을 빛이나게 완수하게 될게구 그때 가선 우리 수령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구 이

신원천기슭을 다너가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또 얼마나 대견해하시겠소.》

《아 그야 두말할거 없지.》

신동준로인이 작은 주먹을 쳐들며 소리쳤다.

《이런 경사를 우리 대에 보지 았구 어떻게 뒤루미루겠나, 해봅세다.》

《웁수다, 합시다.》

흥분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일시에 터져올랐다.

나이와 일의 경중같은것에는 결년도 팔지 않는 로병들의 목소리였다. 당이 바라고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라면 먼저 가슴부터 내대는 화선병사시절의 습관이 인제는 아주 몸에 배인 그들이기도했다.

박기창이 흐뭇한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는데 멀리서 떠들어대는 웃음소리가 또 들려왔다.

마을쪽의 행길우에 여러문되는 녀인네들이 무언가를 이고 들고 걸어오고있었다. 집집의 주부들이 로인네들의 아침밥을 날라오는 길이었다. 밭머리에서 신선한 공기와 더불어 정성어린 아침상을 받는 것도 로병분조원들이 창조해낸 또하나의 이채로운 풍경이었다.

신동준로인이 남먼저 허둥지둥 마중나갔다.

《우리 손주며늘애기가 힘들어하는군.》

《허허, 저 로친네가 메패지 잡은걸 알구 소발구를 끌구오는군. 아무튼 인제야 남편을 공대하는 법을 배운것 같다니까.》

김택구가 너스레를 피우며 그쪽으로 격실격실 걸어갔다. 그뒤를 따라 안해와 딸과 며느리들을 찾아 로인네들모두가 바빠 마주 걸어나갔다.

주철이가 그모양을 어이없이 바라보다가 박기창을 돌아보았다.

《허참, 점점 애들같다니까.》

《젊어지는거지.》

박기창이 조용히 대답했다.

《이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 로병분조 포전을 찾아주시는 그날엔 더 젊어질걸세.》

이것은 박기창의 깊은 체험에서 우러나온 말이였다. 로병분조의 생활을 통하여 한걸 건강해지고 절도가 생긴 사람들, 그들의 정신력은 또 얼마나 대단한가, 다 당원된 의무와 본분을 자각한데서오는 변화일것이다. 그러고보면 사람은 나이가 들면 늙어진다 하겠지만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당원은 늙지 않는 법인듯하였다.

《어 좋은 아침이군!》

박기창은 큰숨을 지었다.

동컨 산마루에서 아침해가 불쑥 솟아올랐다. 태양은 대지를 향해 강렬한 빛발을 아낌없이 뿌려주었다. 그 빛발속에서 수렴도 발곡식도 신원천의 맑은 물도 청신한 자태를 드러내며 밝게 웃고있었다.

정든 땅

리정수

참으로 그것은 까닭모를 일이었다. 머리우에서 은근한 빛을 뿌리는 형광등이며 여러가지 기묘한 도자기들로 한면을 다 채운 진밤색의 번듯한 장, 눈부시게 하얀 카바를 씌운 쏘파들과 무게있는 웅접탁, 걸을 때마다 포근한 감촉을 주는 부드러운 참대 무늬 푸른 주단이며가 분명히 강철웅이 집을 떠나 기전에도 있던것들이었다. 헌데 금산리농장에 지원대로 나가 그곳에 뿌리내린후 2년만에 온 지금 모 든것이 너무도 서먹서먹하고 낯설게 안겨왔다. 더구나 자신도 딱히 알수 없는 야릇한 압박감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러와 철웅은 저으기 진땀까지 다 났다.

지금도 그랬다. 웅접탁우에서 물물 김을 올리며 삽시에 방안을 향긋한 향기속에 묻어버리는 검붉은 차잔을 천천히 휘저으며 마땅히 자신도 형과 자연스레 어울려야 할것이었다. 그런데 철웅은 그 어떤 구속감을 안고 물끄러미 차잔만 내려다보고있었다.

달콤한 홍차향기가 폐부를 찌른다. 류다른 빛갈과 특유한 향기로 강력한 매력을 불러일으키는 홍차잔만 선뜻 마실수가 없었다.

유유히 차잔을 휘젓던 형님은 웅접탁 맞은편 쏘파에 비스듬히 앉으며 후-후-불더니 몇모금 마시고나서 잔을 내려놓았다. 그는 담배팩에서 려과담배를 한대 뽑아 붙여물었다. 이어 파르스름한 연기를 입으로 길게 내보내며 두눈을 쪼프린채 철웅에게 넌지시 말했다.

《사람은 어리석음을 빨리 깨칠수록 현명해지는 법이야.》

철웅은 숙였던 머리를 천천히 들며 형을 뜯어보았다. 말소리는 점잖은데 은근한 시가스름이 짙게 어리어 도저히 귀등으로 흘려보내게 되지 않았다. 형은 느릿느릿 말머리를 이었다.

《후회는 언제나 일을 그르친 뒤에 따르는 법이지. 허나 그땐 늦어. 그래서 인생이란 시간과도 같아 한번 지나가면 영원히 보상할수 없다고 하는거야.》

그는 마치 풍부한 인생체험을 하고나서 생활의 리치를 환히 꿰뚫어보는 철학자같았다. 그런데 철웅에게는 마디마디 품들어하는 형의 이야기가 웬일인지 공허하게만 들리어왔다. 무엇인가 배반당하고 버림을 당한듯한 불쾌감과 쓰디쓴 환멸이 솟구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2년전 이맘때였다. 철웅이가 일하던 기계공장에서 수도 많은 남녀청년들이 사회주의대건설의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용약 자원하여나갔다.

원래 철웅에겐 남다른 희망이 있었다. 기계전문 학교까지 졸업한 그여서 세손으로 창안하고싶은 기계들도 허다했다. 농사일도 앞으로는 로보트화해야 한다는것이 그의 주장이고 꿈이기도 했다. 하여 목표를 세운곳이 금산리협동농장이었다.

물론 처음에는 이것저것 재며 망설이기도 했고 들뜬 감정을 가라앉히려고 무진에도 썼었다. 도시에서 나서자란 자신이 생소한 농촌에 정말 뿌리를 내릴수 있을까. 현실은 꿈과 희망처럼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닌것이다. 그러나 곰곰히 따져보고 생각을 굴릴수록 가슴속에 차츰차츰 자리잡히는 결심은 건잡을수 없이 철웅을 금산땅으로 달리게 하는것이였다. 크나큰 리상은 과감한 실천을 요구하기 마련 아닌가.

그렇지만 철웅의 남다른 꿈과 결심에 폭소를 터트리며 힐난하는 사람이 있었다.

《아이때 꿈은 아무리 엉터리없어도 천진한 아이이라 리해돼. 그러나 네 나이때 도저히 성취 못할 <망상>에 들떠서 동서남북도 가리지 못하는건 어리석은 바보짓으로밖에 달리 될수 없어!》

《그럼 형님은?...》

《도시에서 자라난 너에게 농사일은 당치않아. 방향각이 아예 어긋났거든...》

홀륭한 생각을 했다고 지지해줄줄로만 생각했던 형에게서 예상외의 비난을 당하자 철웅은 당황해났다. 그는 구원을 바라듯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어머니는 철웅이가 세손으로 배낭안에 차곡차곡 꾸려넣은 작업복만 쓸어보며 쓰다달다 말이 없었다. 두눈엔 다심한 사려가 깊이 어리었다. 차츰 그 눈빛은 어떤 우려와 불안 속에 허둥거리더니 이어 철웅이로서도 다 가늠할수 없는 고뇌의 빛이 짙어갔다.

《어머니, 전 사실...》

철웅은 죄지은듯이 더듬거리며 가늘게 떨리는 어머니의 두팔을 잡았다. 어머니가 이윽고 머리를 들었다. 하더니 두어개가 처져내리는 철웅의 잔등을 어루쓸며 퍼그나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젠 너도 철부지가 아니지. 다 자란 대장부인데 너의 결심이 옳다면 에미에게 물을게 있느냐.》

《아니 어머니 무슨 말을!...》

형이 펄쩍 놀라며 쓰겁게 입을 다시었다.

《하긴 농사일이 힘들지… 아직은 험치 않아…》

누구에게라없이 조용히 뇌이는 어머니의 무겁고도 절절한 이야기에 철웅이네 형제는 각기 제 생각에 잠겨 움직일줄 몰랐다.

그때부터 더없이 다정하던 형과의 사이가 어성버성해졌다. 그러더니 어머니 생일날을 계기로 다시 만난 지금엔 아득한 심연의 차이를 두고 가슴아픈 충돌을 야기시키고있었다. 그제서야 철웅은 무시로 압박해오는 구속감이 어디서 오는것인지 어슴푸레나마 의식할수 있었다. 그것을 깨달으니 부지중 코마루가 시큰해왔다. 철웅은 머리를 쳐들며 나직하나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난 자신을 후회하지 않아요!》

뜻밖의 도전적이면서도 확신에 찬 철웅의 말에 형은 영문 모르겠다는듯 어깨를 으쓱했다.

《하긴 그걸 깨닫기가 그리 수월하였던건… 아니었어요…》

마지막말마디가 가늘게 떨리었다. 철웅은 이상하게 가슴이 설레이기 시작했다. 문득 잊을수 없는 수많은 추억들이 영화화면처럼 눈앞에 떠올랐다…

그날은 비가 많이도 내리었다. 먹구름이 하늘가에 짙 뒤덮여서 세찬 비를 퍼붓는데 아득한 연백별은 묵묵히 물참봉이 되어 뽀얀 안개를 피워 올리고 있었다. 물아치는 바람에 물안개는 몽게치며 런던한 산발이 굵이쳐간 구월산계곡들을 어느샌가 휘감아버리었다.

《가는 날이 장날일세그러.》

회색비옷의 고깔모자를 머리에만 대충 올려놓고 비옷자락을 펄럭이며 앞에서 걸어가던 준보로인이 때문이가 다 드러나도록 병긋이 웃으며 말했다.

《그… 글썄요.》

우산으로 앞에서 들이치는 비바람을 막느라 무진애를 쓰며 진창을 피해 이리저리 잔걸음을 옮기던 철웅은 자신이 뭐라고 대답하는지도 몰랐다. 역에서 내릴 때 운이 나게 닦아신은 검은 사출장화가 관리위원회에서부터 이리로 오는 동안 온통 흙탕물과 진흙에 매달릴되어 엉망이 되었다. 등에 진 배낭도 뽀뽀이 다려입은 양복도 비에 후줄근히 젖어서 푹푹 물방울을 떨구고있었다. 화락하니 젖은 밀짚모자에서 떨어지는 비방울이 잔등의 목덜미로 스며들어 온몸이 으시시해났다.

《님자네가 우리 금산땅에 뿌리내리겠다고 찾아오니 하늘도 이렇게 약비를 보내주는걸세.》

철웅은 어처구니없이 쓴웃음을 지었다. 로상에서 흠뻑 비를 맞아 초췌해진 자신의 꼴이 한심해났는데 아바이는 그냥 좋다고만하니 은근히 부아가 났다.

《요즘 당에서 청년들에게 나라의 어렵고 힘든 부문을 도와주라니 그저 큰 공장이나 대건설장이요

하는데만 줄창 가는데 실은 그것도 좋네만, 우선 농장에 와야 하는걸세. 왜 그런고하니 먹는게 선차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온것이 아닙니까.》

철웅은 크나큰 자부심에 넘쳐 넋지시 말했다.

《고마우이 넌장! 땅을 팔세하면 대체 뭘 먹고살텐가. 바다물이 아무리 많대도 그걸 한바께쓰만 먹으면 사람은 절취질거란 말일세. 그런즉 땅이 제일이야. 암! 땅은 만복을 준다니까…》

금방 갈아엎은 논밭의 흙처럼 거뭇거뭇한 살결에 굵고 가는 주름이 이마며 눈언저리, 여월사한 볼에 한가득 뒤덮이고 번듯하게 날이 선 우뚝한 코밑의 두툼한 입술은 꼭 다물려서 어딘가 과묵하고 무뚝뚝한 인상을 주던 로인이었는데 무엇이 그리도 흥이 나는지 그냥 입을 땃짓거렸다.

《자, 이젠 다 왔네.》

산골짜기에서 팔팔 흘러내린 비물이 길바닥을 온통 물참봉으로 만들어놓는 가파른 등메골 등성이를 넘어서니 그야말로 한쪽의 그림같은 마을전경이 눈앞에 아름답게 펼쳐졌다.

뿔나팔같은 용마루가 하늘의 구름을 금시 건드릴듯이 번쩍 쳐들리고 마치 날아가는 학처럼 추녀 날개를 활짝 편 고래등같은 기와집들이 굵이굵이 다락을 이룬 과수원골짜기 아래에 오뚝하니 마주앉아 있었다. 그것은 휘뿌러지는 비와 몽게치는 젖빛안개속에 묻히어 마치 구름속을 뚫고가는 기러기떼의 담차고 씩씩한 모습을 방불케 했다.

철웅은 가슴이 빠근하도록 숨을 들이켰다. 아름답고 복넘친 생활을 추녀마다 뜨락마다 한가득 신고서 날아며며 손저어 자신을 부르는듯한 마을의 전경에 전신이 짜릿해왔다. 벌써 자신을 맞아주는 마을사람들의 열렬한 축하를 받는듯한 심정이 되었다. 더구나 이제부터 뿌리내려 살아갈 고장이라는 데로부터 뜨거운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붓고픈 충동에 가슴이 달아올랐다. 철웅은 얼굴에 들이치는 찬바람과 비발에도 주저없이 언덕을 내리었다.

길은 오를 때보다 내릴 때가 더 미끄러웠다. 이 등메골 길은 마을로 곧추 질러오느라 철웅이가 우겨서 택하였는데 여간 애먹이지 않았다. 몇번이고 털어버렸는데도 장화에는 또다시 흙덩이가 한가득 달라붙어 어느덧 자그마한 매생이를 만들어놓았다. 철웅이가 갑자기 어-어-외마디소리를 지르며 몸의 중심을 가누지 못하고 위태롭게 기우뚱하다 어쩔새없이 오른발을 진창에 구겨박았다.

《허-땅이란건 알고 가야 한다니…》

등뒤에서 준보로인이 웃음섞인 어조로 소리쳤다. 철웅은 이마에 빠질빠질 진땀이 났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힘껏 발을 뺐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양말 신은 발만 쑥 빠져나오고 장화는 진창속에 꼭 잡혀서 움쩍 안했다.

결에 다가는 준보로인이 철웅을 부축여주더니 장화를 꺼내어 들어붙은 흙덩이를 손으로 아무 꺼리낌없이 뜯어내며 은근한 어조로 말했다.

《땅이 심술부린게 아니라니. 자네 고맙다구 절이나 하게.》

《절이라니요?》

철웅은 두눈을 치뜨며 준보로인을 쳐다보았다. 붓초리같은 눈썹이 희끗희끗 움썹거리는 로인의 눈가에서 즐거운 웃음이 잔줄거리더니 검은 눈동자가 서서히 정지되었다.

《님자가 이 땅을 잘 가꾸는 실농군이 되라고 땅이 자네발을 꼭 잡고서 당부하지를 앓나!》

《예?》

철웅은 그만 기가 딱 막히었다. 가슴속에서 무엇인가 흐물거리던것이 메마르고 강짜부리는듯한 선웃음으로 넘쳐나 고개를 젓히며 터쳐버리고 말았다. 남은 진창에 빠져 찢절매는데 무슨 희극대사같은 싱거운 소리를 다 한담, 철웅은 맹랑해나서 쓰겁게 입맛을 다셨다.

준보로인은 갑자기 입귀를 썰룩거리었다. 그는 혼자서 음-갑자라며 철웅을 흘겨보더니 체소한 육체의 땅어깨를 잔뜩 모아세우고 수긋이 걸음만 다 그쳤다. 뒤집을 진 북두갈구리같은 커다란 손에서 방금 장화에 들어붙은 진창을 훔쳐낸 자그마한 흙덩이가 손아귀를 움켜질 때마다 이리저리 굴리우며 물적거리었다. 웬일인지 그 흙덩이가 유난스레 두눈을 찢렸다.

철웅은 이상하게 두다리가 노근해왔다. 방금전의 벽차오르던 기분은 흔적도 없게 사라진것은 둘째치고 별치 않은 일로 어성버성해진 로인과의 간격을 메꾸기가 더 힘들었다. 수다스럽다할만치 떠들던 로인이 삽시에 벅어리가 된듯 꼭 입을 한일자로 봉하고 통 결을 주지 않는것이 철웅이로서는 섭섭했고 리해가 되지 않았다.

갑자기 이마가 선평해왔다. 고개를 쳐들고 보니 파수원언덕너머에서 불어오는 세찬 바람에 길옆의 버드나무가 축축히 물기를 머금은 가지를 머리태처럼 풀어헤치고 휘파 나뭇기고있었다. 그때마다 무수히 떨어져내린 물방울들이 철웅의 이마며 코등에서 보라를 일으켰다. 철웅은 주먹으로 코등을 쓱 문질렀다. 헌데 물방울 하나가 또르르 굴러내려 입가에 스며들며 입안이 씹쓸해났다. 어쩐지 마음이 허전하고 울적해왔다. 왜 그럴까. 준보로인의 급작스런 함구무언때문인가. 에이참, 무엇때문에 으쓱해서 덤벼치다 그런 창피를 당한단말인가.

철웅은 저도 모르게 긴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그땐 땅을 가꾸려 가면서도 땅이란 의미조차 몰랐다. 그러니 세상리치란 죄다 땅과만 결부시켜보며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로인의 깊은 속내를 어떻게 알수 있었겠는가? 형이 자신을 리해하지 못하는것과 어찌보면 같기도 했다.

이제는 응접탁의 차잔도 거의 식었다. 방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이따금 부엌에서 저녁을 짓는지 형수가 달그락거리며 동자질하는 소리가 도간도간 문짹으로 들리어왔다.

철웅은 식어진 차잔을 이리저리 돌리며 묵묵히 내려다보았다. 빗살무늬를 정교하게 새긴 유리잔은 언젠가 자신이 술을 마구 부어마시던 고뿌와 신통히도 같다. 다르다면 지금의 잔에는 홍차가 불그스름한 빛갈을 띠고 찰랑거리고 그때의 고뿌에는 밀창까지 환히 들여다보이는 술이 마구 넘어나 흙덩이들이 더덕더덕 덕지 앉은 자신의 바지가랭이를 적셨을뿐이었다. 문득 새삼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이 홍차는 선뜻 마실수가 없는데 그때 쓰디쓴 술은 왜 그다지도 정신나게 마셨던가...

농장에서 일을 시작하여 얼마후 철웅은 온 작업반사람들로부터 재간둥이로 불리우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는 농사일에 쓰이는 기계란 아무것이나 척척 다루어냈기때문이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쏟아지는 이야기는 또 얼마나 환상적이고 신비로웠던가.

《이제는 종합적기계화가 다 됐거든요. 그러니 머지 않아 농촌에서도 자동화, 로봇트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저녁이면 의례히 열리는 농장대학 현지학습반에서 기계공학원리를 강의받던 날 철웅은 누구에게라 없이 말했다.

《허-무슨 소린지. 이보라구. 농사를 자동화한다는게 무슨 감투끈인가?》

고불통을 빼금빼금 빨던 상고머리로인이 고개를 기웃하며 성수나서 이야기하는 철웅에게 불쑥 물었다.

《예, 그건 일명 전자계산기화된 농장산업조종실에 앉아서 사람이 지령마이크로 신호하면 대기하고 있던 로봇트들이 기계를 운전하며 밭도 갈고 씨도 뿌리고 가을도 하면서 농사를 짓는걸 의미합니다.》

《어마나! 그럼 우리 농장은 얼마나 희한할까요!》

두손으로 턱을 고이고 앉아 새별같은 눈을반짝이며 철웅의 이야기에 열중하던 옥심이가 환희에 넘쳐 부르짖었다.

《아무렴요. 그땐 도시가 우릴 부러워하게 됩니다. 황금전야에선 로봇트들이 일하고 푸른 하늘엔 비행기가 약뿌리고 설혹 한랭전선이 추위를 몰아와도

한두말의 화학포탄을 쏘서 모조리 녹여버리고 이 모작도 할수 있는 여름을 불러오는 그야말로 자동화의 시대는 반드시 옵니다.》

《아이, 어쩐!》

무아경에 빠진듯 욕심은 연방 감탄했다. 그러다 철웅의 불을 뿜는듯한 시선과 마주쳐 제풀에 함뿍 수태를 머금었다. 보매 그는 철웅의 눈부신 환상에 아주 반해버린듯싶었다.

《음 말만 들어두 속이 후련하군...》

돈보기를 끼고앉아 기술서적을 뒤적이며 좀해서 말이 없던 준보로인디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끄덕였다.

얼마후 철웅은 작업반은 물론이고 온 농장적으로 소문이 나게 되었다. 이젠 누구하고나 친숙하게 지내었고 모두에게서 선망어린 눈길을 받았다. 그중에서도 분조장 욕심의 은근한 호기심이 갈수록 강렬해짐을 철웅은 은연중에 느끼었다. 그런데 자신도 처녀에게로 자석처럼 마음이 끌려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어느날은 그와 남모르는 약속까지 했다. 그 약속이래야 작업반 돼지분조의 먹이주기를 기계화하자는것이였다. 처음에 철웅은 좀 재세하며 비싸게 굴었다.

《난 농사일의 종합적기계화를 더 연구하고픈데...》

《어마,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데요. 철웅동문 흰쌀밥에 고기국을 안잡수겠어요?》

마을사람들이 일명 《봉봉이》 처녀라고 이름대신에 즐겨부르는 욕심은 두눈을 꼭게 치켰다. 옷을 때마다 랑불의 불우물이 살짝 패이는 인상적인 매력으로 못시선을 끄는데다 류달리 크고 역실역실한 눈이며 빨간 수건으로 머리를 종지여 뛰어다닐 때면 풍지가 어깨우에서 달짝거리는 욕심을 철웅은 누가 별명지었는지 참 그럴듯하다고 생각했다. 휘거선수처럼 쪽 빠진 목, 랑견으로 곡선 그리듯 솟은 동그스름한 어깨며 한창때의 젊음이 감출수 없이 약동하는 부푼 앞가슴, 잘룩한 허리며 길고 매츠런 다리, 어느모로 보나 나무랄데없는 청신함과 아릿다움에 철웅은 얼마나든 욕심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열결에 욕심이와 허공에서 시선이 부딪쳤다. 일순 바빠난것은 철웅이였다.

《응,...그...그러니까 고기국을...》

말꼬리를 얼버무리며 철웅은 낮색이 벽돌빛으로 달아올라 마른침을 꿀꺽 삼키었다.

그후 부지깽이도 편다는 모내기철의 어느날 아침이였다.

하늘은 아득히 넓고 거대한 바다같이 푸르렀다. 그속으로 흰구름덩이들이 양떼 흘러가듯 유유히 움직이고있었다.

두부모같은 규격포전들에서 피어오르는 안개가 아득한 지평선너머에서 아물거리며 은빛, 금빛으로 령롱해지더니 이어 아름다운 무지개가 대지에 서서히 뿌리를 박고 창공으로 날아오를듯이 다리를 놓았다. 대자연의 황홀경으로 하여 저절로 흥에 겨워난 학떼가 긴 날개를 활짝 펴고 원을 그리며 춤판을 벌리는듯싶었다.

철웅의 마음도 두둥실 들떠났다. 그는 모내는 기계의 운전대를 지그시 잡고 싱그러운 봄바람에 옷자락을 날리며 자신이 드넓은 대지우로 훨훨 날아예는 심정이었다. 눈앞으로 눈부시게 빛나는 은빛 세계가 확확 다가들며 발밑으로 사라져버리었다.

이때 빨간 수건을 쓴 처녀가 파란 사출장화를 신은 발을 동동 구르며 다급히 손을 흔들었다. 철웅은 모내는 기계를 세우며 큰 소리로 물었다.

《왜 그러오?》

웬일인지 울상이 되어 철웅을 흘겨보던 욕심은 야속한 어조로 부르짖었다.

《야, 등메다락논에 모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철웅은 깨달았다. 아침 작업조직때 그의 조는 등메논의 똑쌍기를 완성하고 오늘중으로 모내기를 끝내게 되였었다. 그래 올라가보니 다락논은 작업반의 덜랭이 운전수가 써레질하며 어찌나 갈꺽질했는지 논뚝은 반나마 허물어져 한심하기 그지없었다. 그걸 다 정리하고 모를 내자면 곱절 품을 들여야 했다. 그런데다 갓 개간한 폐기투성이여서 기계가 작업하기에도 여간 마땅치 않았다. 이래저래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궁싯거리던 철웅은 작업반 논면적에서 보면 있으나마나한 논을 두고 괜한 품을 넣을 필요를 느끼지 않아 앞내벌로 나왔던 것이다.

《난 또, 그거야 눈에도 차지 않는건데 기본면적부터 해제끼고 후날 째째이 하지 뭐...》

《아이 써레질한게 래일부터 굳어지는데 어떻게 그럴수가 있어요!》

《이보라구, <봉봉이>, 기본소출은 여기 앞내논이야. 사실 다락논은 있으나없으나...》

철웅은 얼른 입을 다물었다. 언제 나타났는지 모단이 든 새끼그물구렁을 어깨에 멘 준보로인이 입귀를 씹룩거리며 못마땅스레 바라보고있었던것이다. 로인이 콩-하고 모단을 푹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철웅을 바라보며 나직한 목소리로 타이르듯 말했다.

《가뜩이나 모자라는 땅인데 참... 그 논도 가을엔 님자 한해 먹을 낱알을 준다네...》

아바이 눈에는 땅이라는게 온통 쌀로만 보이는 모양이였다.

준보로인이 쪽에 꽂아놓은 삼을 들고 슥슥 걸어갔다. 너무도 웅당한것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로인의 충고가 쉽사리 마음속에 배어들지 않았다. 별스레 자기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남다르게 채근하는것이 여간만 시끄럽지 않았다. 귀찮게 군다는게 이런것인지...

《저...철웅동무...》

등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며 옥심이 손에 천것을 쭈뼛쭈뼛 내밀었다. 그것은 푸른색바탕에 흰 들국화를 정히 수놓은 손수건이었다. 하지만 철웅은 속이 좋지 않아 덜퉁스레 옥심의 손을 밀막으며 등메골로 향했다.

얼마후 철웅은 바지가랭이를 허벅 밑까지 걷고서 선풍 찬기운이 느껴지는 논물에 성큼 들어서서 걸싸게 삼질했다. 자기 키를 넘는 자루의 중허리를 꼭 잡고 삼날을 깊숙이 땅에 박았다. 주르륵 물흐르는 커다란 덩이를 떠내어 한치한치 쌓고 또 쌓으며 독을 정리해갔다.

한낮부터는 손바닥에 차츰 콩알같은 물집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것이 터지며 진물이 흘러 몹시도 쓰리고 아팠다. 이제 팔다리도 시큰해오고 허리도 쿡쿡 쑤서왔다. 연방 얼굴이며 가슴, 온몸의 여기저기에 튀어올라 더덕지 않은것처럼 들어붙은 흙탕, 또다시 이마에 질척한 흙탕이 뉘뉘 튀어올랐다. 옆구리며 무릎가에 주먹같은 흙덩이가 달라붙어 매닥질되었다. 저으기 부아가 난 철웅은 잔뜩 이마살을 찌프렸다. 간신히 허리를 펴며 얼굴에 뒀 돌아보니 저만치에서 준보로인이 방금 자신이 쌓으며 나온 논뚝을 정히 손질하는 모습이 얼핏 바라보였다. 철웅은 전류에라도 감전된듯 흠칫 놀랐다.

마치 장관바닥을 열심히 닦아내는 알뜰한 주부마냥 독을 다지고 물매질하는 로인을 멍하니 바라보며 철웅은 움직일줄 몰랐다.

갑자기 로인의 앞에 커다란 흙덩이가 썩은 호박이 떨어지듯 논물속으로 굴러내리며 찼병 물방울을 튀기었다. 그런데 로인은 얼굴에 입가에 튀어오른 물방울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문지르더니 거뭇한 얼굴에 느슨한 미소를 지었다. 그 모습이 어찌나 푸스스하고 너그러운지... 그것은 어리광부리는 자식을 사랑스런 눈길로 애무하는 어머니의 인자한 모습을 방불케 하였다. 로인은 떨어져내린 흙덩이를 삼으로 퍼올렸다. 그리고는 다시 떨어질세라 꼼꼼히 다져놓고 삼등으로 쓰다듬듯이 물매질했다.

철웅은 저으기 등골이 달아올랐다. 얼마나 거칠게 일하였으면 준보로인이 뒤통수까지 하게 한단말인가. 그는 부지런히 이손을 놀렸다. 연방 흙을 떠내어 허물어진 자리를 바삐 메워나가는데 점점 손맥이 풀려왔다. 또 한삼을 가까스로 퍼올려 독에 놓

았는데 어찌나 물을 먹었는지 풀어놓은 가루반죽처럼 흙덩이들이 흐물흐물하며 와르르 물러내리었다.

철웅은 못견디게 숨이 가빠왔다. 웬일인지 장판지가 몹시 가려워나더니 다리짚으로 별안간 무엇이 총알같이 홀 튀어올라 논뚝의 배개통만한 흙덩이 위에 냉큼 올라앉았다. 와플 놀라 보니 주먹만큼 큰 개구리였는데 그놈은 물기가 번지르르한 온몸을 축 늘어뜨리고 넓적한 입을 짹 벌린채 하품을 해댔다. 하더니 결이 나서 노려보는 철웅을 울렁하니 마주보다 흥, 코방귀귀듯 어느샌가 툅너머 물속으로 내리꽂혔다. 부아통이 터진 철웅은 더는 자신을 건잡지 못하고 개구리가 뒤다리를 꼰듯이 편채 헤엄쳐가는 그 어방에다 삼을 들어 힘껏 내리쳤다. 그바람에 사방으로 뿔기듯 튀어오른 무수한 물방울들이 허공에서 눈부시게 번쩍이며 철웅의 앞섰을 순식간에 화락하니 적서놓았다.

《영?!》

준보로인이 퍼그나 놀라며 붓초리같은 희끗한 눈섭을 푸들거렸다. 그는 어이가 없는듯 철웅을 바라보았다.

《착실한 사람은 그러질 않네. 땅에 화풀이를 하면 대체 뭐가 될텐가. 응 이 사람아, 이 땅이 어떤게 라구...》

흥분을 가까스로 억제하며 심중히 말하는 로인의 꾸짖음이 고막을 울리었다. 철웅은 자신의 처참해진 꼴을 내려다보며 그 어떤 반발이 속에서 마구 뒤번져와 도저히 진정할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이 어데로 가는지도 몰랐다. 발길 닿는 대로 가노라니 어느덧 숙소에 이르렀다. 원탁우의 다반에 보온병이며 빗살무늬가 부채살모양으로 경쾌하게 새겨진 고뿌가 바라보였다. 벽장뒤에 간수했던 술생각이 불쑥 났다. 철웅은 술이며 고뿌를 들고 방을 나섰다. 발길은 어찌된 영문인지 야릇한 봉변만을 당하던 그 등메골산턱에 이르렀다. 풀밭에 들어앉아 안주도 없이 붓고 마시었다. 눈앞의 마른 풀대며 잡초들이 차츰 언듯언듯하더니 빙그르 돌아가며 막 춤추기 시작했다. 이어 하늘땅이 둥글둥글 맞붙어 돌아가고 온몸은 아찔한 미궁속으로 걸잡을 수 없이 떨어져내리는것 같았다.

(형님의 말이 옳은지도 몰라. 내가 무슨 농사일을 한단말인가? 그래두 내스스로 뿌리내렸지. 본때있게 농사를 지어 남먼저 리상촌 만들고 《무릉도원》의 주인이 되겠다 했지. 아니 영웅이 되겠다 했어. 얼마나 희한한 공상이고 꿈이었던가...)

눈곱이 뜨끔하더니 축축히 젖어올랐다. 이어 막을수 없이 슴배어오는 이슬같은 눈물이 귀전을 타고 흘러내리며 머리맡에서 뽀족히 머리를 내밀기 시작한 파릿한 풀잎새를 적시며 거무스레한 땅속으로 잣아들었다....

갑자기 전신이 오싹하도록 으시시해왔다. 철웅은 무의식적으로 눈을 떴다. 순간 그는 놀랐다. 주위는 고요한데 이따금 어데선가 풀벌레가 우짖는 소리가 간단없이 울리었다. 어둠의 공간에 짙 찬 비릿한 물내와 싱그러운 풀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철웅은 엉거주춤 몸을 일으켰다. 서쪽하늘가를 온통 붉게 물들이는 저녁노을의 황홀함에 놀랐던 것이다. 저렇게도 노을이 아름다운가!

산들바람이 사과나무며 배나무에서 풍기는 향긋한 꽃향기와 더불어 소쩍새의 가락맞는 울음소리도 도간도간 실어왔다.

철웅은 어리둥절했다. 자신을 감싸안은 자연의 온갖 조화로움은 얼마나 크고 장엄한 것인가. 그는 포근하면서도 열렬하기 그지없는 느낌에 전신의 힘이 우쭐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었다.

어데선가 청아한 목소리로 부르는 서정가요가 들려왔다. 고르로운 발동기동음도 곁따라 울리었다.

철웅은 산타아래로 내려다보았다. 순간 오른손의 고뿌를 짊 움켜잡으며 움직일 줄 몰랐다.

자신이 한때기나 된다고 아무 생각도 없이 외면했던 다락논에 옥심은 열심히 모를 내고있었다. 앞에서 허리를 구부정하고 모내는 기계를 운전하는 것은 준보로인이었다.

...

아 언제나 좋은 곳일세

아 내 고향 어머니 품아...

마지막곡조엔 준보로인의 석실한 목소리도 잘 화음되어 울리었다.

《봉숭이》 처녀, 그제서야 이 별명의 진짜의미가 느껴져왔다. 거뒀한 살결이 그대로 땅인듯싶은 준보로인의 마음도 새삼스레 가슴을 쳐왔다. 철웅은 그만에야 자신이 안긴 이 대지며 온 강산의 모든 신비함과 거대함이 깊은 의미를 안고 새롭게 음미되는 것이었다.

쿵쿵하는 세찬 박동이 가슴속에서 일어났다. 그의 손에서 고뿌가 짹-하고 깨어져나갔다. 처음 이곳으로 올 때 로상에서 준보로인이 혼연스레 하던 이야기가 짜릿이 가슴에 젖어들었다.

《...암! 땅은 만복을 준다니까!》

철웅은 어루러지듯 쭈그리고 앉으며 이슬머금은 풀잎새를 헤치고 와락 훑 한웅큼을 그러모아 들었다.

정녕 이 흙이 창조이고 노래며 고향이고 행복이란 말인가...

두 형제사이에 서린 어색한 분위기를 헤가리며 형수가 밥상을 들여다놓았다. 형이 먼저 쏘파에서 몸을 일으켰다.

《난 로동 그자체를 신성한것으로 간주한다. 단지 네가 그렇게 일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발전할수 있다는 그 리치를 모르는게 안타까울뿐이지...》

그는 밥상에 마주앉으며 혼시조로 말했다. 철웅은 형의 이야기가 들을수록 점점 더 불쾌하고 저조한 감을 자아냄을 어쩔수 없었다.

《넌 당장이라도 큰 일을 칠듯이 들떠 그러는데 물덤벼 술덤벼하다 무슨 꼴이 되겠는지 가늠할수 없구나. 제발 사서 고생은 말아라.》

밥술을 들었던 철웅은 그만 도로 내려놓았다. 부지불쑥 속에서는 강한 반발심이 끓어올랐다.

사서 고생한다구, 또 들뜨고... 그러니 지금껏 근면한 로동과 보람찬 창조에 정이 든 자신의 이야기를 무슨 꿈에서 본 동화세계처럼 듣고있었던 말인가? 분했다.

《아니, 왜 밥을 먹지 않고 그러니?》

자기만엔 동생에게 심중한 말을 한다고 생각하며 푸짐한 밥상의 흰밥을 푹푹 허물던 형은 의아스레 두눈을 치떴다.

저 흰쌀밥! 철웅은 너무도 가슴아픈 현실에 숨이 막혀왔다. 아무런 주눅과 가책이란 꼬물만치도 없이 태연하게 응당한듯 흰밥을 푹푹 먹어대는 형이 도저히 리해되지 않았다. 저도 모르게 눈길은 건넌방 문썸으로 보이는 배가 불룩한 커다란 배낭에 가뒀었다. 올해농사를 지어서 힘자라는 것 지고온 쌀배낭이었다. 그 쌀배낭이 우울하고 침통하니 웅크리고 앉아 이런 형에게만은 먹이고싶지 않다는 것이 딱 버티는 것 같은 환각도 들었다.

어머니 생일날을 맞으며 3일 휴가승인을 받고 그 준비를 하던 날 저녁이었다. 철웅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 저고리감을 샀다. 자기의 노력으로 어머니 생일선물을 마련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정말 가슴이 뿌듯하였다.

이때 옥심이가 무거운 보통이를 이고서 트랙으로 총총히 들어섰다. 철웅은 얼른 그것을 토방에 받아 내리었다. 얼굴이 감빛으로 상기된 옥심은 수건으로 이마를 훔치며 불우물을 한껏 파면서 철웅을 정답게 쳐다보았다.

《?...》

옥심은 보통이를 풀었다. 그러자 뜻밖에도 아구리가 넘어나도록 알알이 여문 버를 꼴깍하니 담은 흰자루가 나타났다.

《이건 왜?》

《저... 사실 어머님의 생일날이 가까워오기에... 이걸 절구에 찧어서 가져가면 어머님이 얼마나...》

더는 말끝을 맺지 못하며 옥심은 크고 그윽한 눈을 내리깔았다. 하더니 그 자루를 닝큼 들고 트랙의 돌절구에도 다가가 바가지로 듬뿍 퍼내어 쏟아넣고 찧기 시작했다.

순간 철웅은 가슴이 뭉클했다. 이런 때는 무슨 말을 하면 좋을가.

《원 가루하기란 아무렴! 쌀이상 좋은 생일선물이 없어. 어머니가 이 기름기 찰찰 도는 햇쌀을 보면 제일 기쁠게야. 그저 쌀이 많아야 때식끓이는 우리 녀자들이 많고생이 없다니...》

키를 가져다놓고 옆에서 거들어주며 식모어머니가 하는 말이였다.

철웅은 움직일줄 몰랐다.

(고맙소, 옥심이!)

불같이 치미는 뜨거운것을 가까스로 녹잡히며 철웅은 절구공이를 잡아들었다.

바로 그 옥심이가 형의 이런 태도를 본다면 얼마나 가슴아프고 분해하겠는가.

《형은 쌀에 대해 생각하여본적이 있어요?》

《응?》

철웅의 돌발적인 칼날같은 물음에 불이 미여지도록 밥을 입안에 문채 형은 얼며름해졌다.

《농사를 지어본 사람만이 쌀에 가시가 있다는것을 알아야!》

《가시가?!》

철웅은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지금도 가슴허벼오는 못잇을 그날을 더듬었다.

...그날은 긴 련결차를 단 프락포르를 몰았다. 흙갈이와 거름생산에 온 농장이 떨쳐나서 철웅은 프락포르를 몰고 집집의 퇴비장에서 여름내내 썩여두었던 거름을 퍼내어 밭에 실어날랐다.

이즘에 와서 철웅은 대단히 흥이 났다. 작업반선전실 앞길로 달릴 때면 더구나 기분이 좋았다.

《강철웅동무! 돼지분조 먹이주기를 기계화한데 이어 등메골다락논 삭도건설 또다시 성공. 흙갈이 전투에서 5배의 속도를 보장!》

대문짝같은 속보판의 감탄부호가 눈앞에 확확 안겨들었다. 귀전에는 옥심의 정다운 목소리가 포근하고 간지럽게 감싸돌았다.

《동무손은 정말 보배손이에요. 어쩔 동무같은 사람이 우리고장에 복덩이처럼 굴러들었을가요!》

어제 새벽녘에 과수원에서부터 등메골짜기 거름운반 삭도시운전을 성공했을 때 옥심은 이렇게 부르짖었었다. 얼마나 듣기 좋던가. 막 가슴이 울렁거리려 철웅은 황소숨을 토폴며 프락포르 조향간을 으스러지게 잡았다.

소한추위가 시작된 때라 과수원언덕길은 여간 말쑥하지 않았다. 엇그제 무릎까지 내린 눈이 뻘뻘 추위에 꽂꽂 얼어 누가 바깥으로 물을 퍼부어 일부러 얼음판을 만들어놓은것처럼 길이 미끄러웠다. 철웅은 언덕길 어구에서부터 프락포르조향간을 꼭 잡고 가속답판을 들이밟았다. 우당탕, 프락포르가 울부짖으며 흠칫흠칫 상체를 몸부림치듯 부르르 떨더니

우적우적 용을 켰다. 꿈무니에 달린 련결차가 덜커덩거리며 이리 빼돌 저리 빼돌 마구 흔들렸다.

(조금만 더!)

철웅은 입술을 앙다물었다. 언덕마루쯤에 이른 프락포르가 급기야 걸잡지를 못하고 헛바퀴를 돌리며 아래로 미끄러져내렸다. 그순간 뇌리를 치는 생각 아뿔사, 바퀴에 첼을 감지 않았지... 뒤창문으로 얼핏 내다보니 거름더미위에 꽂아놓은 걸이대가 뒤로 넘어지고 적재함 전체가 밀고 당기우며 그만에야 뒤쪽 문짝의 고리가 벗겨져나갔다. 호박통같은 언 거름덩이들이 마구 떨어져 사방으로 데굴데굴 굴러갔다. 기겁한 철웅은 다시 가속답판을 밟았다. 또다시 공중으로 시꺼먼 연기를 숨가쁘게 퍽퍽 날리며 프락포르가 움쭉 용을 쓰더니 더는 걸잡지 못하고 지치기를 시작했다. 련결차가 우지끈 산락에 꿈무니를 들이박았다.

《어마, 저걸... 철웅동무!》

흙갈이 지게통을 등에 멘 분조원들을 이끌고 언덕을 내려오던 옥심이가 기겁하며 달려왔다. 어찌나 세계 엉덩방아를 찼었는지 철웅은 다리가 떨어질듯이 얼얼하고 이마에는 퍼렇게 감자알같은 혹이 툭 불거져나와 가까스로 운전칸에서 내리었다.

《하마트면 큰일날뻔했네.》

철웅을 부축하던 분조원들이 혀를 찼다. 다행히도 프락포르의 련결차 쇠고리가 떨어졌을뿐 크게 고장난데는 없었다.

《그러게 길에다 강냉이짚이라도 깔아야 한단말이야!》

이구동성으로 떠들며 분조원들은 련결차를 떼버리고 프락포르 적재함에 와-달라붙어 밀어서 언덕까지 끌어올리었다.

절뚝거리며 털모자를 뒤통수에까지 제껴쓴 철웅은 이마의 불룩한 혹을 비비다 코를 찌르는 역한 두엄내에 속이 다 뒤집혀서 신경질적으로 장갑을 벗어던졌다.

《어데 상한데는 없어요?》

아직까지 긴 속눈썹밑의 눈가에 근심을 지우지 못하며 옥심이가 걱정스레 물었다.

철웅은 대답할 겨를이 없었다. 그가 씨근거리며 프락포르에다가 다가 운전칸에 오르려 할 때였다.

《가만 좀 있게나.》

길바닥에 어지러이 굴러내린 거름덩이들을 꼼꼼히 모아서 삼태기에 안아든 준보로인이 프락포르에로 다가왔다.

《이게 한줌이면 난알 한줌이야.》

철웅은 흥-하고 코방귀를 내뿜었다.

《첻, 아바이 뻘시다. 거름을 앞만 주물러야 썩은 내나는 두엄이지 금덩이는 아니잖나요!》

준보로인이 흠칫했다. 무심결에 철웅이가 내뿜은 소리에 삼태기를 든 로인은 얼어붙은듯이 굳어졌다. 그의 입귀가 쉴룩거리고 두눈에는 모욕당한 농민의 자존심이 서서히 어리였다. 로인을 도우려고 다가오던 옥심이기도 하얗게 얼굴이 질리였다.

숨막히는 정적, 다치면 터질듯 험악한 분위기…
《음…!》

준보로인은 살을 저미는듯한 피로운 신음소리를 냈다. 그의 미간이며 목덜미에서 굵은 심줄이 푸들거리였다.

철웅은 순간 눈을 꼭 감았다. 삼태기를 짊어잡은 북두갈구리같은 로인의 커다란 주먹이 당장 자기의 면상으로 날아오는듯한 환각을 느꼈던것이다. 한참만에 준보로인이 침통하게 부르짖었다.

《덜된녀석같으니…》

로인의 두눈엔 이슬같은것이 번쩍 하더니 무겁게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배밑까지 내리드리운 삼태기를 더 힘껏 끌어안고 걸음을 옮기였다. 그러다 돌부리에 걸쳐있는지 넘어질듯이 중심을 가누지 못하고 휘친거리다 간신히 다잡으며 언덕아래로 무거운 걸음을 힘겹게 옮겨놓았다.

옥심이가 준보로인에게로 다급히 달려갔다.

《할아버지…》

그러나 로인은 그냥 어텐가를 지못게 바라보며 고집스레 걸어갔다. 옥심이기도 더는 만류하지 못하고 그자리에 굳어졌다. 차츰 그의 동그스름한 어깨가 눌리기 시작했다.

한돌기의 회오리바람이 뽕얇게 하늘공중으로 눈가루를 날리며 언덕아래에서 휘유-불어왔다. 로인의 개털모자 갈기가 날리고 힘겹게 숨을 쉰는지 흰 입김이 헉헉 날리였다. 어느덧 그의 털모자며 잔등, 온몸에 하얗게 눈가루가 들썩워졌다.

갑자기 흑-하는 흐느낌이 터졌다. 와플 놀라 고개를 드니 옥심이가 얼굴을 싸쥐고 서럽게 흐느끼고있었다. 그 울음소리가 세차게 철웅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준보로인이 저 멀리 별 한가운데로 나섰다. 로인은 삼태기에 담은것을 거름더미위에 와르르 쏟았다. 그리고는 쭈그리고 앉더니 좀처럼 일어날 념을 못했다.

철웅은 더는 바라볼수 없었다. 그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가가스로 고개를 돌리는데 등뒤에서 흐느끼던 옥심이가 트락트로운전칸에 뛰어올랐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철웅을 쏘아보더니 발동을 걸었다. 우당탕 발동소리가 그 무슨 노성처럼 세차게 고막을 두드렸다.

철웅은 온 하루를 무슨 정신에서 보냈는지 몰랐다. 저녁작업이 끝나고 울적한 심사를 안고 합숙에 오니 전신이 노곤해와 그저 침대에 드러눕고싶기만

했다. 그런데다 무척 배가 고팠다. 작업복도 벗지 않은채 배식구앞으로 다가간 철웅은 본능적으로 문을 열었다. 순간 그는 깜짝 놀랐다. 뜻밖에도 흰김이 천정우로 서려도는 부엌봉당에는 아궁이에 장작을 밀어넣은채 옥심이가 오도카니 앉아있었던것이다. 날름거리는 아궁불빛에 그 얼굴이 별스레 하얗게 질린것 같기도 하고 파릿하게 서늘이 내뿜힌것 같기도 했다. 어쨌든 좀해서 볼수 없던 모습이여서 마주 대하기가 무척 난감해났다.

철웅은 몹시 갑자르며 머뭇거리였다. 과연 옥심이가 뭇때문에 이리로 왔는가, 날 만나자고…낯의 일이 떠올라 모닥불을 들쭉쳐처럼 얼굴이 화끈했다.

《뭇때문에 왔어요!》

별안간 어색하고 긴장한 침묵을 깨뜨리며 머리로 들지 않은채 옥심이가 야멸차게 물었다.

철웅은 가슴이 섬쩍했다. 저리도 가시돌히고 속이 웅크라들다니…철웅은 난처하기 그지없어 입맛을 다셨다. 한참만에 은근히 농치려들며 나직이 물었다.

《<봉봉이>…》

《흥, 그래도 배고픈것은 아는게지요!》

옥심이가 발딱 일어났다. 하더니 다짜고짜 다반우에 정히 차려놓았던 밥그릇이며 찬들을 찬장에 마구 넣어버리는것이였다.

《안돼요. 동무같은 사람에겐 흰쌀밥을 절대로 줄수 없어요. 우리가 뭐 동무같은 인간들을 위해 이 땅을 가꾸는줄 알아요 뭐? 썩은내나는 두엄이라구요? 그리고도 감히 배식구앞에 다가오는게 창피하지도 않아요!》

철웅은 얼굴이 거뭇게 질리였다. 입술이 덜덜 떨리며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도저히 할수가 없었다. 옥심은 그냥 부르짖었다.

《동문 무슨 권리로 농사군을 모욕하고 농사일을 천시해요. 누가 동무에게 그런 권리를 주었나요? 가라요. 필요없어요! 동무같은 사람은 보기 싫단 말이에요?》

정녕 밥그릇이나 드나드는 작은 배식구구멍으로 얼마나 무자비한 타매와 격분의 거세찬 웨침이 불같이 터져나오는것인가.

《옥심이!》

《똑똑히 기억하세요. 우리의 성실한 로동, 농사를 천시하는 사람은 쌀밥을 먹을 자격이 없어요!》

갑자기 밥사발 하나가 배식구앞에 언득 올라왔다. 옥심은 부엌문을 열고 단호히 나가버리였다.

《대관절 이건…》

철웅은 다짜고짜 반쯤 열려진 밥사발의 뚜껑을 활 열어제치였다. 실로 거기에는 기상천외하게도 알알이 껌질터지고 속살이 다 드러나 마구 범벅이

된 벼밥이 조소하듯 골막하니 담겨져있는것이 아닌가.

역이 막혔다. 눈앞이 캄캄했다. 가시돋힌 벼알들이 당장 끈추 일어나 예리한 가시로 온몸을 사정없이 찌르며 달려드는듯한 무서운 환각이 전신을 휩쌌다.

철웅은 사납게 충혈진 눈으로 밥그릇을 쏘아보았다. 이어 더는 참을수 없는 수치와 모멸에 와락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썩은 강대가 넘어지듯 신음소리를 지르며 어푸러졌다.

취죽은듯한 정적... 누군가 방안에 들어왔다. 그러나 인기척을 느끼지 못한 철웅은 꿈쩍 안했다.

《음...!》

철웅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놀랍게도 준보로인이 방가운데 장승처럼 우뚝 서서 가슴아프게 바라보고있었다.

《너석두... 그냥 었드레질이군.》

준보로인은 혼자말처럼 중얼거리었다. 그는 방바닥에 천천히 주저앉았다. 하더니 말없이 뒤춤에서 병이며 잔과 마른명태를 꺼내놓았다.

무거운 침묵이 잠시 흘렀다. 그럴수록 철웅은 더 웅색하고 바빠났다.

준보로인은 방바닥에 넘어진 그릇이며 한벌 널려진 벼밥알들을 이윽히 바라보았다. 그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

이윽하여 힘겹게 자신을 다잡으며 로인은 말없이 병마개를 뽑더니 잔에 한가득 술을 부었다.

《옥심이가 오죽했으면 님자에게 벼밥을 주었겠나. 어-밥상앞에서 수저를 들기 앞서 쌀의 무게를 안다면 얼마나 좋을텐가 응?》

그 마디마디가 한없이 철웅의 심사를 파헤쳐놓았다. 눈부리가 세차게 돌아올랐다. 코허리가 점점 시큰해오며 속에서 불덩이같은것이 치밀어 목을 지지였다.

《실은 삭도 농기도 성공해, 작업반에서 크게 축하해주려 했던노릇인데...》

무척 갈리고 떨리는 목소리... 로인은 복두갈구리 같은 손으로 잔을 들어 천천히 내밀었다.

어이 받을수 있으랴. 그만에야 목이 짝 메여 철웅은 입술만 떨다가 《아바이!》 하며 머리를 떨구고 야말았다. 준보로인이 준절히 말을 이었다.

《여보게 농사를 천히 하면 못쓰이. 쌀먹고 살며 거름을 모르다니. 그래 이 땅이 어떤 땅인가.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대소한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친히 포전마다 일일이 돌아보신 영광의 땅이야, 그때 그이께서는 우리들에게 간곡히 가르치셨지.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농사를 천하지 대본으로 일러왔다. 아버지수령님께서는 농사는 나라의 국사중에서도 국사라고 가르치셨다. 농사를

잘 지어야 우리가 남들에게 업수임을 당하지 않고 잘살수 있다. 자고로 쌀은 힘이며 쌀독에서 인심이 난다고 했다. 그러니 우리 농민들은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답게 이 기름진 옥로를 잘 가꾸어 풍년을 거두어야 한다 하시며 이 땅에 만풍년의 금나락이 설레일 때 아버지수령님을 모시고 자신께서 언제든지 꼭 오시겠다고 하셨어. 때문에 나두, 옥심이 두, 온 농장사람들이 자나깨나 그이를 영광의 땅에 다시 모실 그날만 학수고대하며 그토록 아글타글하는데 님잔 도대체 뭔가 응?》

철웅은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여래껏 대지에 뿌리를 박은것이 아니라 허공에 붕-떠서 살고있는것이다. 도대체 땅을 모르고 땅과 인연이 없이 무슨 공산주의 이상촌을 건설한단말인가. 로인은 계속 말했다.

《이보라구, 님잔 자진하여 이곳에 뿌리내리고 또 로보트며 자동화랑 해볼 꿈두 큰데 이 땅을 아직 잘 모르니 야단이 아닌가. 쌀은 땅에서 거름에서 생긴다네. 그래서 일년내내 우리 농민들이 그토록 땅을 걸구는거야. 땅에 뼈심을 들이지 않으면 만풍년은 고사하고 쪽정이밖에 못걸어.》

《아바이, 제가 정말 불충한놈이었습니다.》

《어-됐네. 자 쪽-내라구.》

밤은 깊었다. 준보로인과 한자리에 들었다가 도무지 잠을 이룰수가 없어 슬며시 밖으로 나온 철웅은 조용히 트랙을 거닐었다. 한밤중이라 사위는 고요한데 저쪽 토방끝에서 누군가 몸을 웅송그린채 앉아있는 모습이 어슴푸레 안겨왔다.

《?...》

가까이 다가간 철웅은 자기눈을 의심했다.

《옥심이가?!》

숨저고리로 무릎을 감싼채 쪽잠든 그 모습앞에서 철웅은 자책과 수치에 가슴저미었고 속깊은 진정에 목이 메었다. 급히 부엌아궁이에로 다가간 그는 잉겔불을 꺼내여 한가득 화로에 담아들고 나왔다. 옥심이가 깨여날세라 발자국소리를 죽여가며 철웅은 확확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화로를 그의 발앞에 조심히 놓았다. 마치 심장으로 옥심을 감싸는듯한 심정이였다.

트락의 대추나무가 와슬렁거리며 한돌기의 바람이 토방을 휩쓸었다. 하자 잉겔불이 이글이글한 연기를 날리며 빨갛게 타올랐다. 그 불빛이 소곳이 잠든 옥심의 보조개볼에서 흔들거리였다. 갓난 아이의 고르로운 숨결마냥 췌근거리는 숨소리... 어쩐지 찌릿이 눈곱이 젖어들었다.

소리없는 눈물이 철웅의 두볼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리었다...

잇을수 없는 그날밤처럼 오늘밤도 도저히 잠들수 없었다. 폭신한 침대우에서 하르르한 보슬털이 살

갓을 포근히 감싸는 모포를 쓰고 누웠으나 두눈은 세록세록 밝아지며 철웅에게 깊은 생각을 불러왔다.

어둠 깃든 창가에 씩없이 빛을 뿌리는 장식등의 환한 불빛이 서서히 비쳐들었다. 그 불빛은 침대우에 누운 철웅이와 맞은편 주단우에 이불을 쓰고 누운 형과의 사이를 그 무슨 어둠과 밝음의 심연처럼 짙게 갈라놓고있었다.

주단우에 누운 형이 몸을 뒤척이며 음-하는 신음 소리를 냈다. 그도 잠들지 못하고있었다.

그들이 자리에 눕기전이었다. 어머니가 직장에서 돌아오셨다고 형수가 알려주어 철웅은 아래방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어머니는 철웅이가 가져온 배낭을 펼쳐놓은채 그 희디흰 쌀을 하염없이 쓸고 만지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너무도 체험이 많은 어머니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쌀은 곧 공산주의라고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다.

아들이 어머니 생일날에 쌀을 가져왔다. 오늘날 행복이 넘쳐 부러운것 없는 우리의 유족한 살림에 아들이 쌀을 가져올 때 그가 바란 소중한 참된 마음의 깊이가 스스로 헤아려지면서 어머니는 눈시울이 뜨겁게 젖어들었다.

《너석두, 어쩌면 이리도 속궁양이 깊을고...》

뜨거운것이 세차게 치밀어 어머니는 더 말을 이을수가 없었다. 그는 벌써 조국의 대지를 한가슴에 안아들이기 시작한 미덥고 장한 아들을 본것이었다.

《어머니!》

철웅은 귀밑머리에 성에가 내불리고 이마며 눈가에 퍼그나 주름깊은 어머니에게 다가앉았다. 어머니는 해별에 타서 거뭇해진 철웅의 혈색좋은 얼굴을 애무하듯 바라보다 마디마디 썩살박힌 손을 꼭 잡고서 하염없이 쓰다듬었다.

《내 너희들의 이야길 죄다 들었구나...》

그 소리에 형은 낫색이 컴컴하게 질리었다. 만아들의 그런 모습을 가슴아프게 바라보던 어머니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예로부터 땅을 알고 쌀을 알면 사람이 된다고 했다. 그래 말 잘하는 아들보다 일 잘하는 아들이 진짜 효자라고 했지. 철준아, 너는 채심해야겠다. 네가 하루 세끼 배불리 먹는 흰밥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중한 땀을 흘리느냐. 그런데 넌 별

써 그것을 잊었거든. 못쓴다. 사람이 도리도 모르고 의리도 저버린다면 그게 무슨 인생이겠냐. 철웅이를 봐라. 이태란 짧은 세월에 얼마나 몰라보게 달라졌느냐. 난 저런 아들을 둔것을 어머니의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침묵을 깨뜨리며 형이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맡에 놓아두었던 담배꽂에서 한대 꺼내여 피워물었다. 어둠속에서 형이 뿜어대는 담배연기가 형광등천정에서 실오리를 만들며 꼬무럭거리었다.

형은 머리를 떨구었다. 그는 커다란 자책과 허탈에 몸부림치듯 어깨를 떨더니 한참만에 괴롭게 부르짖었다.

《넌... 넌 확실히... 실농군이 다 되었구나. 아... 아니지. 주인이 되었어. 이 땅을 책임진...아-사람이 자기 세대의 의무와 도리를 자각한다는게 쉽지 않아. 그런데 넌 그걸 깨달았고 또 대지에 든든히 뿌리내렸으니... 철웅아 네가 부럽구나!》

철웅은 미처 말을 못하였다. 왜서인지 눈앞이 뿌연게 흐려지며 가슴이 벅차오르고 숨쉬기조차 가빠왔다.

《이 땅이, 어머니대지가 날 그렇게 키워주고있어요.》

×

아득히 펼쳐진 논밭가운데서 철웅이가 무드기 쌓아놓은 거름무지를 허물어서 걸이대로 휘휘 뿌리고 있었다. 그가 걸이대를 들어 날릴 때면 크고 작은 무수한 검은 흙덩이들이 온 하늘가에서 바글바글 뿜다간 겨우내의 긴긴 잠에서 깨어나 흰김을 날리는 드넓은 대지우에 와르르 떨어져내렸다. 구수한 땅냄새며 거름냄새가 한껏 폐부를 적셔주었다.

철웅은 논밭에 오금을 꺾고 앉아 거무스레한 거름덩이 하나를 집어들었다.

과연 이 땅, 이 대지야말로 얼마나 허위와 거짓을 모르고 근면한 노동의 생활력, 창조의 역세인 숨결을 주는것인가.

땅속에 숨결이 있으며 참된 삶이 있다. 너나없이 사람들의 한생이 어머니 젖가슴으로부터 시작되듯 누구나 밝고 다니고 사시절 오곡백과를 거두는 대지도 이 한줌의 흙으로 시작되는것이다.

이 땅, 이 대지를 사랑하라. 쌀을 창조하는 농군들에게 머리숙여 경의를 표시하라...